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2024. 6. 7.(금)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주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SSK지원사업단

| 공동주최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가나다순)

| 후원 KB경영연구소, 금융산업공익재단, 한국연구재단





#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2024. 6. 7.(금)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 주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SSK지원사업단

| 공동주최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 (가나다순)

| 후원 KB경영연구소, 금융산업공익재단, 한국연구재단

10:00-10:15	등록
10:15-10:30	개회 및 축사 <b>사 회</b> 김미영(한국사회과학협의회 사무총장,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b>환영사</b> 장원호(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b>축사</b> 신동천(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10:30-11:00	기조 발표 · 21세기 한국의 문명전환: ESG의 심화를 위하여   임현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11:00-12:20	SESSION 01   ESG와 지속가능한 사회 <b>사 회</b> 김정식(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ESG, 상생과 공존   정혁(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 ESG와 국가발전모델의 전환   김석호(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ESG와 국제정치   이태동(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b>토론</b> 박효민(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 김병준(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상호(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12:20-13:30	점심식사
13:30-14:30	SESSION 02   한국 사회의 ESG 대응과 과제 <b>사 회</b> 정용덕(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 한국형 ESG 공시기준과 주요 이슈   한승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부의 EGS경영   채원호(카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b>토론</b> 김태종(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연구교수)
14:30-14:50	휴식
14:50-15:50	SESSION 03   ESG경영의 사례 <b>사 회</b> 박영렬(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포스코 ESG 경영매커니즘과 향후 과제   김용근(포스코 기업시민실 기업시민전략그룹장) · SK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ESG   박성훈(SK사회적가치연구원 기획실장) · 아모레퍼시픽 고객 사회와의 동행, 대자연과의 공존 “2030 A MORE Beautiful Promise”   오정화(아모레퍼시픽 지속가능경영센터 상무)
15:50-16:10	휴식
16:10-17:40	SESSION 04   [종합토론] 사회과학과 ESG <b>사 회</b> 장원호(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 5대 학회장 김연성 (한국경영학회장·인하대학교 교수) ·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한남대학교 교수) · 장덕진 (한국사회학회장·서울대학교 교수)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학교 교수) ·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건국대학교 교수)
17:40-17:50	폐회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과학협의회 23대 회장 장원호입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1975년 설립된 이래, 국내 15개 사회과학 주요 학회와 협력하여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관해서 학제 간 융합연구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에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이라는 주제의 융합 심포지엄을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학술적, 정책적 논의의 장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의 핵심의제는 ESG를 통해 인류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ESG와 관련된 논의가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가히 지금은 ESG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ESG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가 제시하는 ESG, 기업이 추구하는 ESG, 그리고 시민사회가 바라는 ESG가 각각의 강조점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시각에서 ESG를 논의할 시기입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사회과학 5대 학회와 더불어 국가, 기업, 시민사회의 희망이 교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ESG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각 학회의 발표는 자신의 학문 분야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5개 학회가 공동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학문 분야의 관점은 더욱 일반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ESG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리라 기대합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는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사회집단 간 갈등 문제 등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에 관하여, 15개 협력학회와 함께 융합적·종합적인 시각에서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융합 심포지엄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장원호**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 **축** **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신동천입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장원호 교수님, 한국경영학회 김연성 교수님, 한국경제학회 김홍기 교수님, 한국사회학회 장덕진 교수님, 한국정치학회 조화순 교수님, 한국행정학회 이영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前 사회과학협의회장이신 정용덕 교수님, 김정식 교수님, 박영렬 교수님, 기조 발표를 맡아주신 임현진 교수님 등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기업 경영 환경에서 화두이며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ESG를 정치, 경제, 사회, 행정, 경영 등의 융합적인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ESG를 효율성과 공정성, 지속가능성과 같은 실용의 관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1년을 ‘ESG의 해’로 불리게 할 만큼 큰 유행을 이끈 이후, ESG는 그간 기업이 평가받는 재무제표에 없는 세 가지인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들이라면 ESG 경영을 해야만 하는 변화된 소비 트랜드와 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책무를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인식 개선도 폭발적인 관심을 끌게 된 주요 요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인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 만큼 자본 시장에서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은 기업의 필수적인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삼생과 공존의 모색**



ESG는 단순히 한때의 유행하고 사라질 이슈로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속가능성은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최근의 ESG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기업과 국가의 관계,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고려한 거시적 관점으로 확장되어가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슈 마련, 경영 매커니즘 적용 사례에 대한 담론을 나누는 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정치, 경제, 경영, 사회, 행정 등 모든 영역을 고려한 ESG 발전 전략과 그간의 성과평가, 국제 사회 질서 내에서 취할 수 있는 국가적 대응 방안과 같은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어 우리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 목차

## 기조 발표

- 21세기 한국의 문명전환: ESG의 심화를 위하여 | 임현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3

## SESSION 01 | ESG와 지속가능한 사회

- |   |    |
|---|----|
| •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ESG, 상생과 공존   정 혁(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 29 |
| • ESG와 국가발전모델의 전환   김석호(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47 |
| • ESG와 국제정치   이태동(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63 |

## SESSION 02 | 한국 사회의 ESG 대응과 과제

- |   |    |
|---|----|
| • 한국형 ESG 공시기준과 주요 이슈   한승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71 |
| •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부의 EGS경영   채원호(카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87 |

## SESSION 03 | ESG경영의 사례

- |   |     |
|---|-----|
| • 포스코 ESG 경영매커니즘과 향후 과제   김용근(포스코 기업시민실 기업시민전략그룹장)                                      | 113 |
| • SK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ESG   박성훈(SK사회적가치연구원 기획실장)   | 131 |
| • 아모레퍼시픽 고객 사회와의 동행, 대자연과의 공존 “2030 A MORE Beautiful Promise”   오정화(아모레퍼시픽 지속가능경영센터 상무) | 143 |

## SESSION 04 | [종합토론] 사회과학과 ESG

- |          |     |
|----------|-----|
| • 5대 학회장 | 163 |
|----------|-----|

김연성 (한국경영학회장·인하대학교 교수) ·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한남대학교 교수) · 장덕진 (한국사회학회장·서울대학교 교수)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학교 교수) ·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건국대학교 교수)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기조 발표

## 21세기 한국의 문명전환: ESG의 심화를 위하여

임현진(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상공회의소, 2024년 6월 7일(금)<

## 21세기 한국의 문명전환: ESG의 심화를 위하여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문학사, 문학석사)
- 미국 Harvard 대학교 대학원 졸업 (사회학 박사)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제18대 회장
- 한국사회학회, 한국NGO학회, 국제개발협력학회 회장
- *Pacific Affairs, Asian Survey, <國外社會科學>* 편집위원
- 독일 베를린자유대, 프랑스 보르도대, 베트남 하노이대, 몽골 몽골국립대, 중국 길림대, 미국 Duke대 초빙교수
- 경실련 공동대표
- SK 텔레콤 이사회 의장
- 국회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 East Asian Sociological Association 회장
-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겸 아시아연구소 창립소장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 강사 소개



임 현 진

“ 과거는 찾아갈 수 있지만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미래는 찾아갈 수 없지만 만들 수 있다. ”

“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

## 목차

1. 문명전환의 과제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3. ESG의 정치경제학



## 1. 문명전환의 과제



- 일본 세토 내해의 나오시마
- 구리 제련소의 폐기물이 쌓인 버려진 섬에서 건축과 예술의 섬으로 변모
- 후쿠다케 쇼이티로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을 짓고 싶었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기업을 정리하고 섬을 가꾸는 데 재산을 사용
- 기업을 일구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 후쿠다케의 시도
- 기업이 문화를 통해 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자본주의도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1. 문명전환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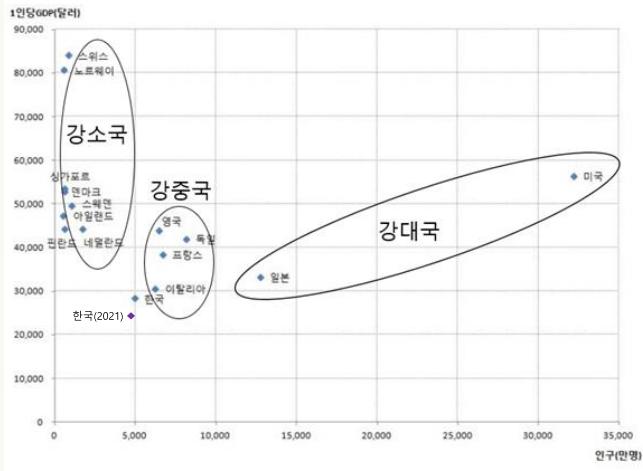
- 일본 DEFTA 파트너스그룹 하라(原丈人) 회장은 2002년부터 '공익 자본주의(public interest capitalism)'라는 표현을 사용: 기업은 주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 종업원, 고객, 공급자, 지역공동체, 나아가 전지구 – 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 사적 조직이지만 공공의 이해를 위해 기업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임원과 직원 사이의 공평한 보상, 시민의 생활과 안녕을 위한 재화 제공을 추구해야 함
- 공익 자본주의의 내용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다르지 않음.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의 환경 아래에서 유럽식 노동의 경영참가와 노사 이윤공유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한국에서도 기업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 아래 이른바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이 자주 거론되고 있지만,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를 기본 노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음

## 1. 문명전환의 과제

- 수원국에서 공여국: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O) 가입
- 2016년 21번째 채권국 모임 '파리클럽' 가입
- 2019년 30-50클럽 일원: 일본(1992), 미국(1996), 영국(2004), 독일(2004), 프랑스(2004), 이탈리아(2005)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
- 2021년 7월 2일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1964년 설립 이후 최초로 개도국 → 선진국
  - 그룹 A :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
  - 그룹 B : 선진국 31개국
  - 그룹 C : 중남미 국가들
  - 그룹 D :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
- 최근 US News 세계 10대 강대국: 미국-중국-러시아-독일-영국-한국-프랑스-일본-아랍에미레트-이스라엘
- 선진국: 자유, 평등, 연대, 인권, 정의, 평화 등 문명전환의 과제. 겉은 선진국 속은 후진국  
**先進國→善進國.** 오늘의 자본주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hypermodernity → 문명을 보증X  
 새로운 대안: green growth, tecology, degrowth

## 1. 문명전환의 과제

### 선진국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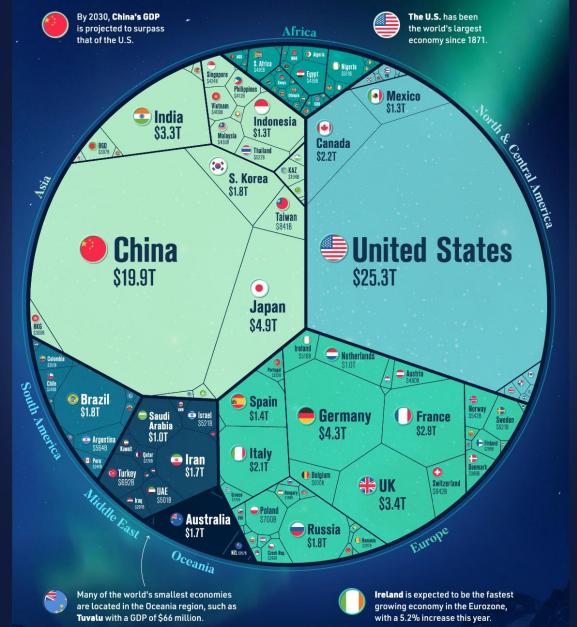


주: 인구는 2015년 7월 기준, 1인당 GDP는 2015년 기준.  
 출처: CIA The World Factbook,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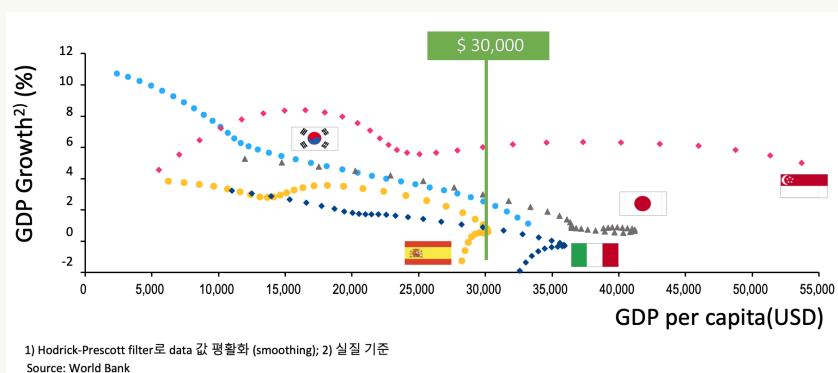
### ■ 세계 GDP 중 한국의 비중 (2021)

Rank	Country	GDP (\$T)	% of Global GDP
1	U.S.	\$22.9	24.4%
2	China	\$16.9	17.9%
3	Japan	\$5.1	5.4%
4	Germany	\$4.2	4.5%
5	UK	\$3.1	3.3%
6	India	\$2.9	3.1%
7	France	\$2.9	3.1%
8	Italy	\$2.1	2.3%
9	Canada	\$2.0	2.1%
10	Korea	\$1.8	1.9%

## The \$100 Trillion World Economy GLOBAL GDP 2022



## 1. 문명전환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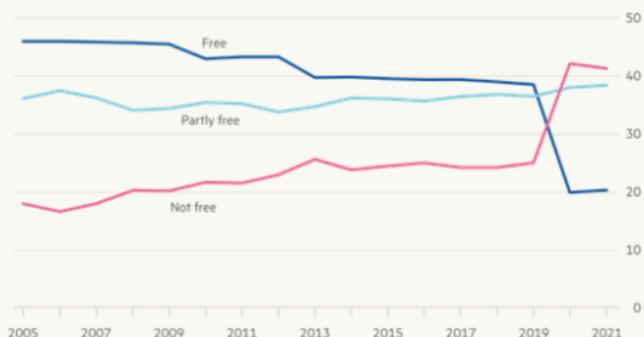


- 한국은 2007년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2019년 3만 달러를 넘었음
-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소득이 감소
- 스페인은 3만 달러 아래로 추락 후 다시 넘음

## 1. 문명전환의 과제

- 오늘날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퇴보(backsliding, recession, retreat)하고 있다
- Freedom House(2022): 지난 20년간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국가의 숫자는 줄어들고 반대로 권위주의 국가들이 늘어남

&lt;그림 1&gt; 민주주의의 역행 (세계 인구의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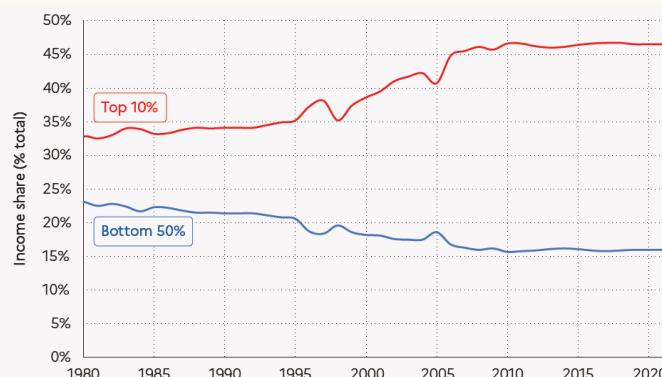
## 1. 문명전환의 과제

- 미국의 Freedom House(2023)에 의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2013년에서 2022년 사이 정치적 권리 (political rights)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가 모두 향상되어 '자유'로운(free) 국가에 해당
- 영국의 Economist는 네 가지 유형의 민주주의를 분류: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민주주의·권위주의와 혼합형 체제'(hybrid democracy),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 이 중 한국을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
-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dex 2022)에서 한국은 총점 10점 만점에서 8.03점으로 167개국 중 24위를 차지함. 8점대를 간신히 유지하며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로 평가
- 복수정당제에 기반한 공명선거와 같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 민주주의라 할 시민이 누려야 할 민주적 권리(democratic rights)와 정부가 앞장서야 할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잘 구현되고 있지 않음. 집단·계층 간 대결을 부추기는 정치문화도 취약
- 스웨덴 Gotenburg대 V-DEM연구소: 독재화가 진행되는 42개국 중 한국 포함(2021년 10위권→2023년 47위)

## 1. 문명전환의 과제

-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기반 또한 중요
- 한국은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생활과 문화의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두 개의 국민'이 나타남
-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 2022)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소득 불평등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비교가능한 30개국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음
- 200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소득 최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p 증가한 11.7%를 기록함  
→ 멕시코의 8.7%p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
- 소득 최상위 10%의 비중도 2.5%p 늘어난 34.4%를 기록 →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뉴질랜드(4.5%p), 덴마크(3.8%p), 튜르키예(3.3%p)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증가폭
-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의 소득분배가 더욱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상위 계층으로 소득이 집중되면서 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이를 지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지니계수로 보면 다음과 같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지니계수는 0.331로 27위를 차지하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의 소득분배는 더욱 나빠짐
-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저출생 고령화, 낮은 생산성, 기반기술 부족

## 1. 문명전환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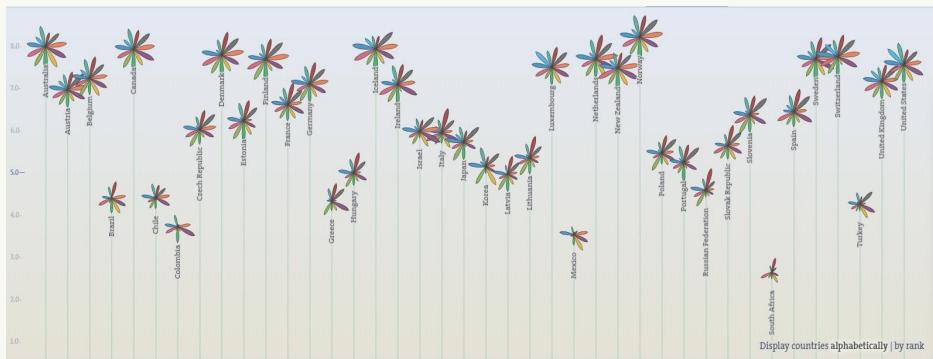


**Interpretation:** The Top 10% income share is equal to 46% in 2021.  
Income is measured after the operation of pensions and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s and before income tax.

**Sources and series:** see wir2022.wid.world/methodology.

## 1. 문명전환의 과제

-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OECD 37개 국가 중 28위



- 한국은 10점 만점에 5.9점 (OECD 평균: 6.5점)
- 평균 노동시간 3위, 커뮤니티 만족도 최하위, 미세먼지 농도 1위

출처: OECD Better Life Index 2020

## 1. 문명전환의 과제

- 국가별 행복 순위

2023년 세계행복보고서-스스로 매긴 행복도 평가



\*자료: 유엔 산하 지속가능 발전 협력 네트워크(UNDP)  
그래픽: 윤선정 디자인기자

##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 오늘날 자본주의가 직면한 복합위기: 기후변화라는 환경위기, 식량, 에너지, 물의 자원위기, 불평등, 양극화의 경제위기, 팬데믹 같은 질병위기, 세계대전이란 전쟁위기
-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사이의 충돌로 인한 **이원적 세계화**와 지구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의 분열에 따른 공급망의 교란 등
- 복합위기의 와중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각자도생을 위해 자국우선주의로 나아가고 있음  
→ 국가의 일시적 귀환, 시장의 잠정적 후퇴, 시민사회의 지속적 위축
- 유엔은 2006년에 PRI(책임투자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를 발표하며 ESG를 제시
- 오늘의 자본주의는 진로 수정을 넘어 자기교정을 위한 혁명적 전환이 필요: <> woke capitalism<degrowth>
- 한국의 기업이 ESG(환경보호, 사회공헌, 지배구조)의 쇄신을 통해 내셔널 챔피온(national champion, 국가대표 기업)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정치적 진영화를 극복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 지나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 생태파괴, 이상기온, 국경분쟁, 인종분규, 자원갈등, 재정파탄, 식량위기, 도시침수, 난민발생, 질병확산 등
-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은 기후위기에 따른 동식물 서식지 파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WHO에 의하면 지구 평균기온이 1°C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씩 증가함.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와 습도의 상승이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동물과 인간의 거주지 경계를 허물어 열대우림에 서식하던 세균이 인간에게 옮겨지는 것
- 최근 20년간 30종이 넘는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였고, 2002년 이후 사스(SARS), 아프리카돼지열병, 에볼라(Ebola), 메르스(MERS),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3년 주기로 발생하고 있음
- 이제 인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문명의 길을 개척해야 할 새로운 세기를 마주하게 된 것: 인류세(Anthropocene)

##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 한국은 세계에서 열 번째로 탄소배출량이 높은 나라(1950년 이후 총누적량 세계 18위)
- 한국은 2030년 탄소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  
현정부 탄소감축 목표 14.5%->11.4% 완화. 탄소포집, 국제감축 사업 등으로 상쇄 예정.  
그러나 2027년까지 감축율 1.9% 불과, 2028-30년 연평균 9.3%씩 감축 계획: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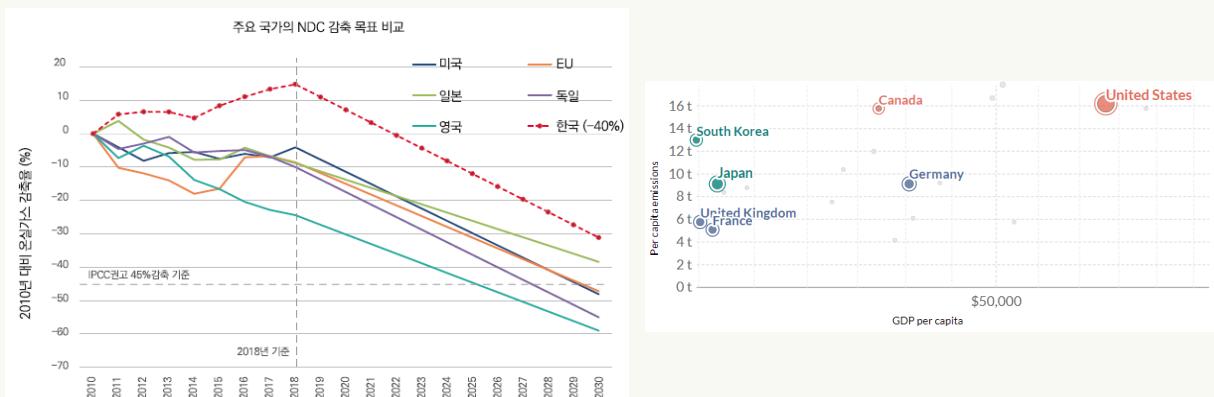
##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2023. 4. 11. 국회 주관 국가현안 대토론회 <100년간 기상 데이터로 본 기후위기, 대응 과제는?> 발표자료

##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주요국의 일인당GDP 및 온실가스 배출량,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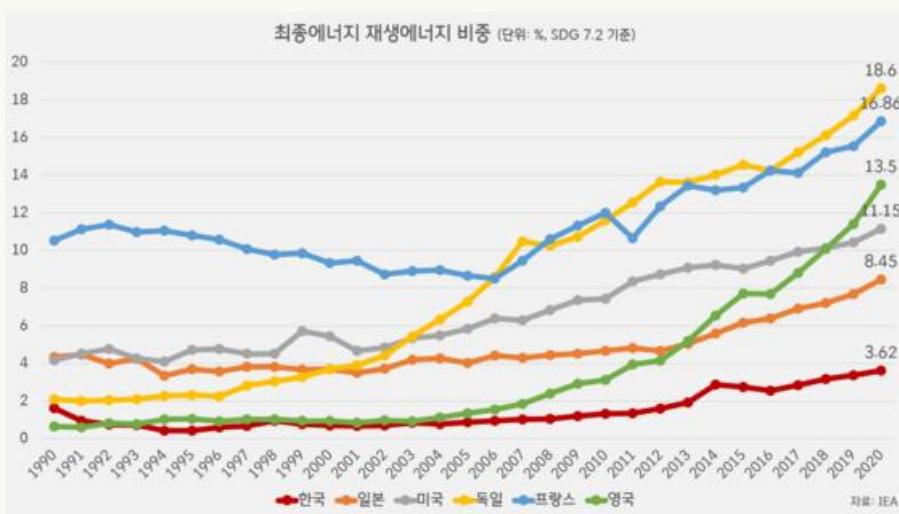
##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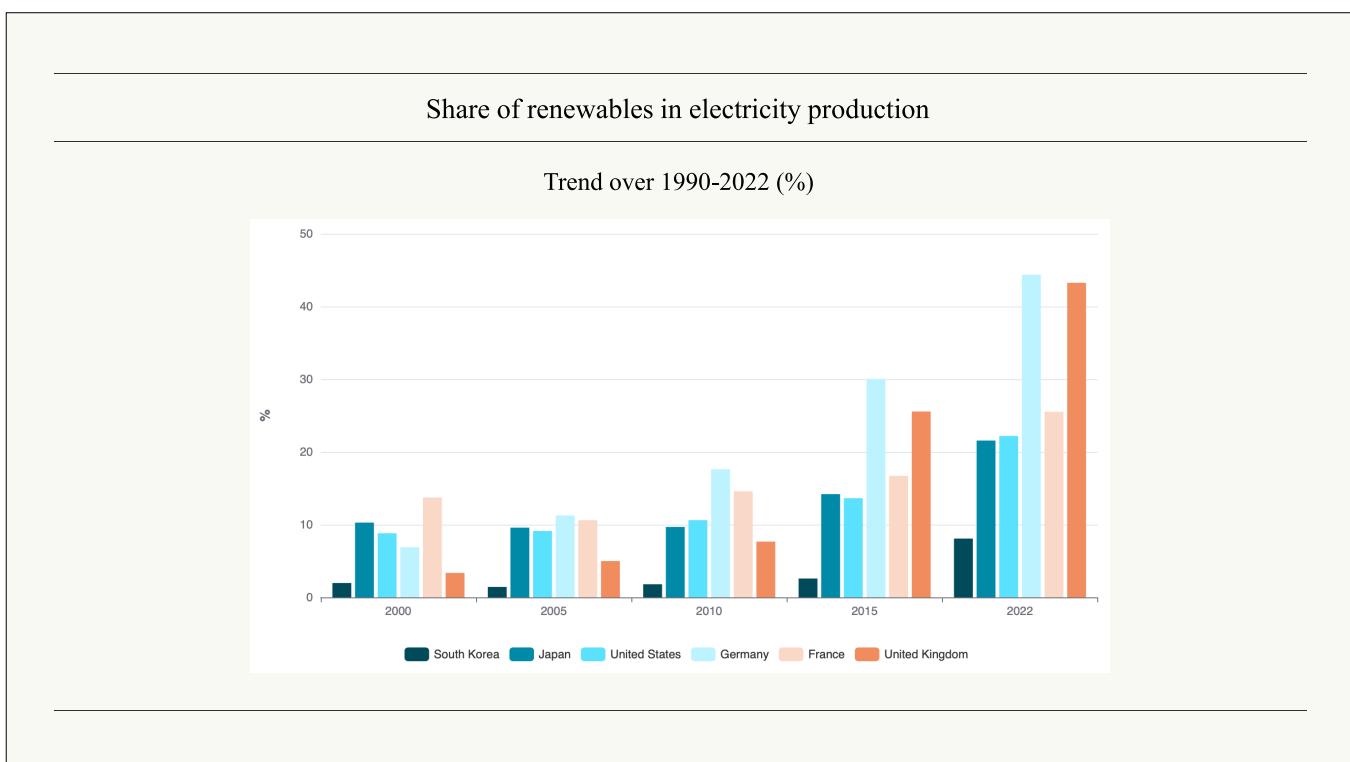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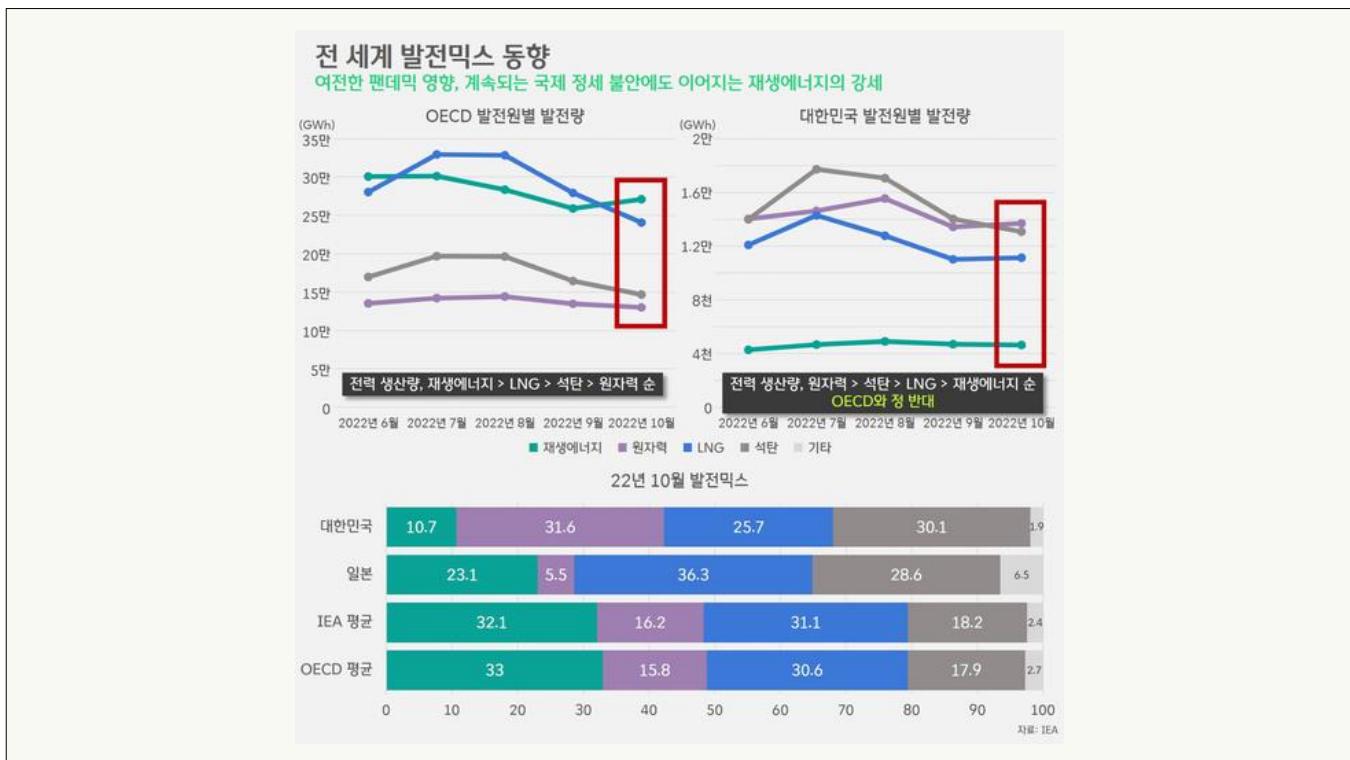
- 기후위기의 현실에서 지나친 화석연료 의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 국민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정권의 변화에 따라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중
- 탄소중립: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 0을 만든 넷제로(net-zero)를 의미
-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임계점: 2023년 COP28에서 RE100→CF100으로 후퇴, 원자력의 재등장  
脫원전→脫脫원전
- 한국은 2050년을 넷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 넷제로를 목표로 설정한 132개 국가들 중  
한국은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
-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감축 방안이 허술하여 목표 달성을 쉽지 않고 앞으로 전력공급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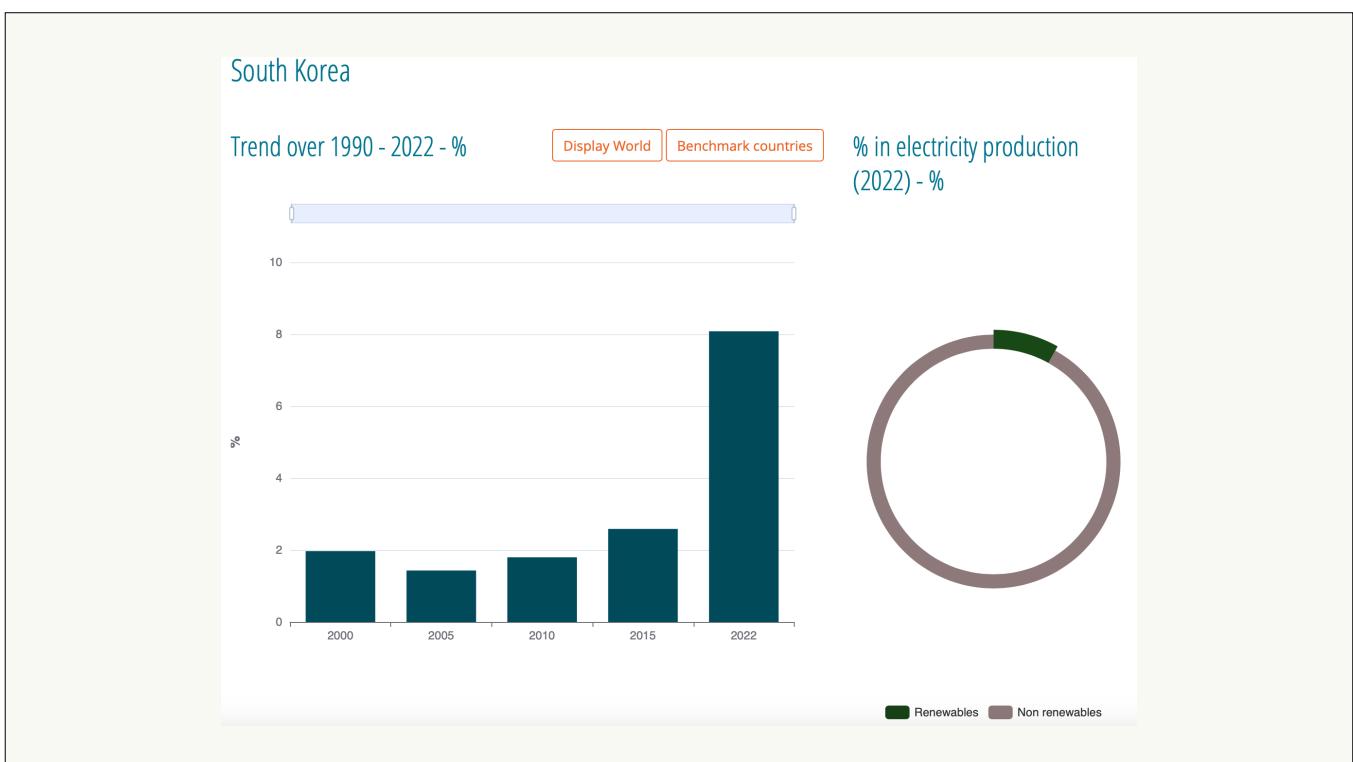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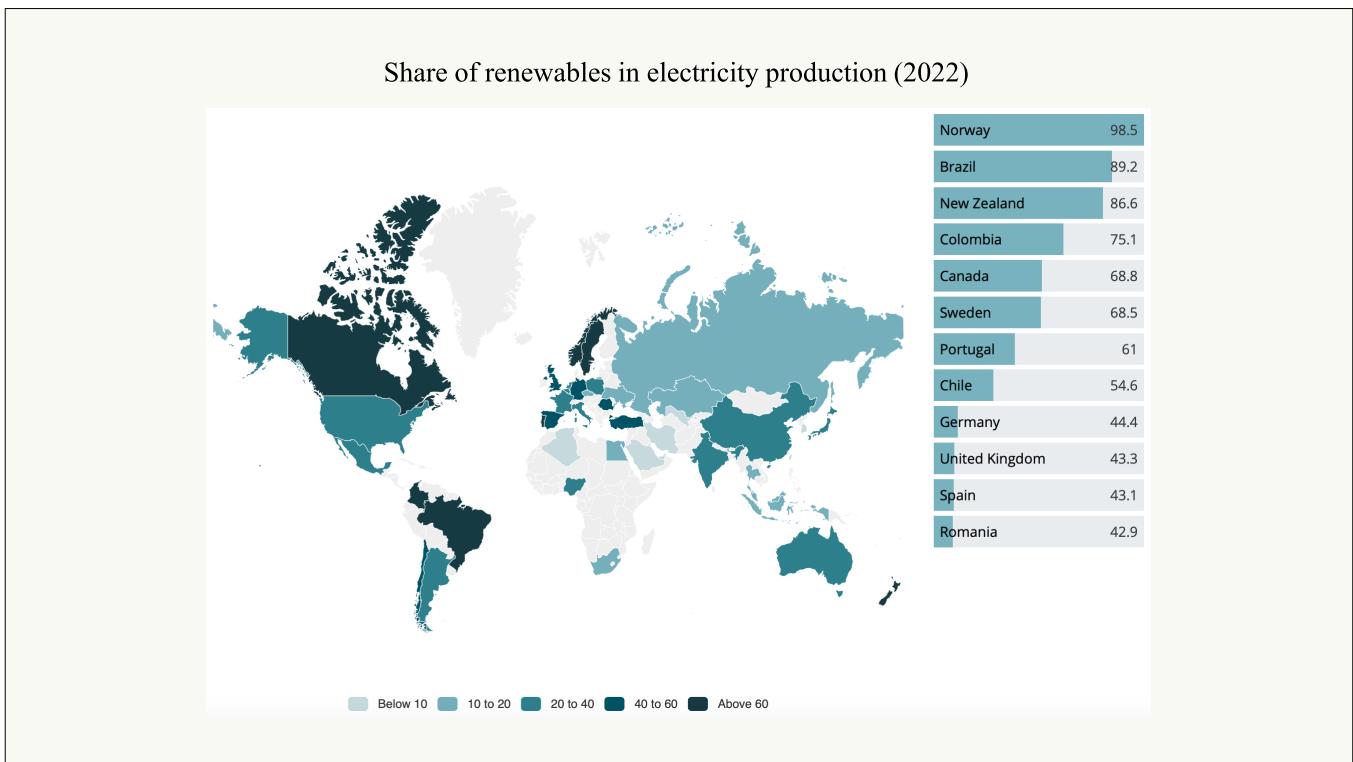
##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 2022년 기준 한국의 전력생산: 원자력 29.6%, 석탄 32.5%, 가스 27.5%, 신재생 및 기타 9.4% 등  
2030년까지 원자력 32.4%, 신재생 에너지 21.6%로 올림
- 2017년 대비 지난 5년간 석탄 7.5% 감소, 원자력 2.2% 증가, 가스 6.4% 증가  
→ 탈원전이라고 하지만 원자력 비중이 높아지고 석탄 대신 가스 사용이 늘어난 탈석탄의 이면  
    석탄발전소 증설: 전력 생산 공급할 송전망이 취약  
    → 최근 원전으로 복귀
-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하면 주요 전력의 원천은 재생에너지(60%)
-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난 4년간 G20 국가들 중 빠른 편이나,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기준 G20 평균 28%, 한국은 5.7%**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93% 차지
- 한국은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풍력 발전의 조건이 좋지 않고, 지형적으로 산악이 많아  
태양광 효율이 낮고 자연파괴가 심함. 무탄소 가스터빈의 구현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며, 중국,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것도 실현불가능

##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 탈석탄에 비교적 성공을 거둔 노르웨이, 독일,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은 꾸준한 민간과 공공 투자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시도해 옴
- 한국도 미래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헌법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해야 함  
기성세대의 책임--젊은 세대는 무얼 하는가?
- 미래 세대를 위한 대전환이 필요: 인구소멸 대신 기후위기로 몰락 위험
- 탄소감축이 뒤틀리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도 어렵지만 국제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제재에 따라 고립될 수 있음
-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금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강하고 정부가 기업과 노동과 더불어 에너지 전환의 비용과 고통을 분담하는 협치의 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 한국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 **2021년** GDP 비중의 27.9%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음  
(독일 18.3%, 일본 19.7%, 미국 11.2%)
-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 철강, 가전, 석유화학 등이 해외수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이에 관련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전체의 80%를 차지: 버릴 것과 살릴 것
- 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넷제로를 향한 전력공급 과정에서 차질을 가져와 산업계 전반이 위축될 우려가 큼
- EU와 미국 '탄소장벽': EU는 2023년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여섯 품목에 탄소 국경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 미국은 2024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수소, 종이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온실가스 1톤당 55달러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을 실행할 예정. 최근 미국 SEC는 상장기업 탄소배출 공시 의무화, EU ECT(에너지현장조약) 탈퇴
-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을 주요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우리 제조품들은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을 제품가격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음  
→ 친환경설비 투자를 포함하여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할 시점

### 3. ESG의 정치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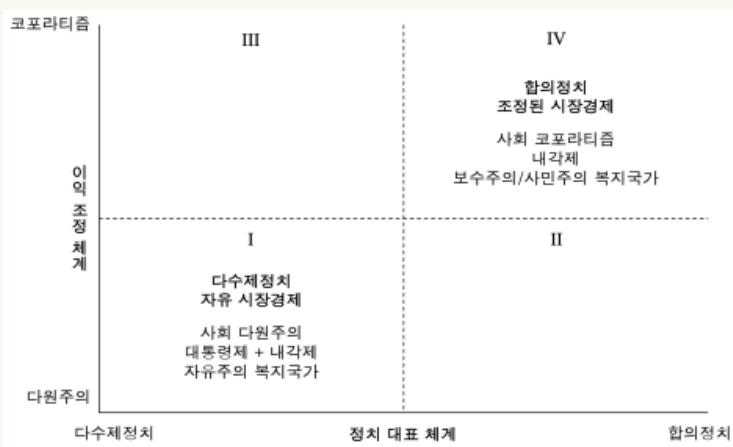
#### (1) 주주 자본주의 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현재 SK, 삼성, 현대차, 포스코, LG 등이 선두에 나서 ESG를 수용하고 있음: 불루워싱...그린워싱→ESG워싱
- 그러나 지금까지는 성과보다 한계가 많음.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국의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염두하고 하기 때문
-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치경제체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짐
  - 선진 민주주의 나라들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미국은 다수제정치아래 자유 시장경제가 주주 자본주의로 이어진다면, 유럽은 합의정치아래 조정된 시장경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가져옴

### 3. ESG의 정치경제학

#### (1) 주주 자본주의 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 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정치대표체계와 이익조정체계의 차이



- 주주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 관계가 사회 다원주의를 취함. 주로 대통령제아래 지역구 기반의 선거제가 특징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조정된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가와 사회 관계가 사회 코포라티즘을 취함. 주로 내각제아래 비례대표제가 특징
- 아마블(Amable)의 자본주의 유형으로 보면 영미식 자본주의와 유럽 대륙 모델이나 사회민주주의 모델과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음



### 3. ESG의 정치경제학

#### (1) 주주 자본주의 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국가-사회 관계에서 본 이익조정의 네 가지 유형

	사회다원주의	사회 코포라티즘	국가 코포라티즘	국가 단원주의
정치체제	민주주의 선발국	민주주의 선발국	권위주의 후발국	권위주의 후발국
이익집단구조	자율적, 수평적, 경쟁적	자율적, 수직적, 경쟁적	강제적, 수직적, 비경쟁적	강제적, 수직적, 비경쟁적
대표국가	미국,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멕시코, 브라질	한국, 대만
행동주체	집단	집단과 국가	국가	국가
이익집단활동	정부기구 밖에서 활동, 대의회 및 정당활동 중시	정부기구 밖에서 활동하나 정부기구와 의회에 제도적으로 참여	관제화된 이익집단들 동원	관제화된 이익집단을 통해 억압
계급관계	경쟁적	상호보완적	상호배타적	상호배타적
정부역할	중립자	조절자	통제자	통제자

### 3. ESG의 정치경제학

#### (1) 주주 자본주의 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중요한 사실은 이해관계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주주 자본주의를 취하는 나라들보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성과가 크다는 것. 범죄율과 투옥율도 낮고, 이민과 난민에 대해 포용적이고 해외 원조도 많음
- 합의정치 모델아래 비례대표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시민사회 이해를 반영하면서 코포라티즘은 이익집단들이 정부와 정책을 협의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함
- 다수제정치 모델에서는 소수가 배제됨으로써 다수의 독재가 일어날 수 있음. 또한 과반이 안 되더라도 승자 독식이 일어남. 이른바 대표성의 과잉과 왜곡으로 다수에 의해 소수를 배제하는 정책이 형성될 수 있음 (Steiner, 1981)

### 3. ESG의 정치경제학

(1) 주주 자본주의 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오늘의 분열적 진영대립의 시대에 기존의 극단 좌우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카르도소(Cardoso): '중범위의 유토피아'
- 베를린장벽의 붕괴 이후 '현실 사회주의'의 쇠퇴와 복지국가의 위기가 불러온 유토피아 에너지의 상실은 발전의 여러 가치 중 최소한 자유, 평등, 연대의 구현을 위해 자본주의 자체의 체제개혁을 요구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사회성원 모두가 더불어 사는 포용과 융합을 지향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제시할 수 있음

### 3. ESG의 정치경제학

(1) 주주 자본주의 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념적으로 중도 우파에서 중도 좌파에 걸치는 비교적 넓은 스펙트럼아래 지금도 여러 나라들에서 발견되고 있음: 영국의 블레어 정부, 미국의 클린턴 집권 1기 정부, 브라질의 카르도소 정부와 룰라 정부가 좋은 보기
- 한국의 경우 김대중정부가 사회적 협약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한 걸음 다가서려고 했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은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를 모델로 했지만 IMF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오히려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로 이어짐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효용과 생산을 공동으로 책임짐으로써 가치와 자원 배분상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사회성원 모두가 승자가 되는(win-win) 시나리오
- 경쟁과 효율아래 경쟁에서 밀려난 성원들을 배려함으로써 '하나의 국민(one nation)'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



### 3. ESG의 정치경제학

#### (1) 주주 자본주의 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자본과 노동 사이의 동반관계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국가가 조정자의 위치에서 다양하고 상충되는 이해욕구를 코포라티즘의 기제에 의해 흡수함으로써 정당체계가 지니는 이익대변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노사 간의 공동결정과 이윤공유를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사회결속 위에서 높은 생산성과 양질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음. 노사 간의 공정성, 신뢰도, 그리고 책임성이 주요 특징
- 기업 관리상의 공동결정과 이윤공유는 자본의 성격을 보다 사회적으로 만들어 주면서 효율성, 지속성, 경쟁력을 갖는 기업을 사회의 중심에 서게 할 수 있음.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일종의 동반 성장 : co-determination과 profit sharing 영향없음
- 기업은 소수에 의해 소유되는 재산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로 인식됨. 즉 개인과 전체의 조화를 중시

### 3. ESG의 정치경제학

#### (1) 주주 자본주의 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유럽의 보수주의나 사민주의 자본주의에는 노사정 대타협의 산물로 이미 ESG가 반영되어 있음
- 그러나 미국에서도 ESG가 현안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함: 투자자 반발, 정치적 압력, 법적 위협 2019년 8월 19일 미국 대기업 대표들이 Business Roundtable을 갖고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성명서를 냈.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등 181명이 참석, 기업의 포용적 변영을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종업원에게 투자하고, 협력업체를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원하겠다고 선언: woke capitalism
- 하지만 미국 대기업의 ESG 선언은 상징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지배구조는 물론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가 없기 때문 → ESG의 종말론=anti-ESG  
보수 세력: 화석연료 산업, 무기 산업, 인종차별주의자, 성차별주의자, 공화당 정치인 등
- 특히 Business Roundtable에 참여한 기업의 ESG 선언은 이사회와 의결을 거쳐야만 집행력을 가질 수 있음. 문제는 181개 기업 중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기업이 아직까지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아직도 기업들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면서 탄소중립에 회의적임

### 3. ESG의 정치경제학

(2) ESG의 가능성과 한계

- 미국 대기업은 전세계 온실가스의 2/3를 배출하고 있음. EXXONMOBIL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더디게 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과학의 신뢰성을 손상케 한 적이 있음
- 아프리카에서 녹색혁명을 위한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는 유전공학 기술을 활용한 생합성 식량을 생산함으로써 오히려 그 지역의 농민과 농업을 해치고 있음. 가난과 기아 극복을 위한 기후친화적 해법이란 구호아래 실제로는 반생태적인 것
- 한국 전경련은 그간의 ESG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바꾸어 수용하기에 이른다. 2021년 10대 기업이 ESG 경영위원회와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고, 2022년 5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표 기업인 54명이 ESG를 도입하겠다는 '기업선언문'에 서명
- 그러나 이해관계자는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주주 자본주의의 연장선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일부를 거론하고 있을 뿐임

### 3. ESG의 정치경제학

(2) ESG의 가능성과 한계

- ESG 수용은 기업 내부의 의지보다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커다고 볼 수 있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참여하면서 어떤 에너지로 만든 제품인가가 국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 즉 기업의 사활이 달림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라는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고객사와 투자자의 이탈과 함께 외국에서 생산과 판매가 어려움
-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ESG를 실행하기가 쉽지 않음
- 친환경기술의 개발, 산업 안전보건의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감사위원회의 활성화 등 필요
-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이사회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최고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 인수합병, 투자, 자산매각, 위험관리와 회계감독 등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한다고 보기 어려움

### 3. ESG의 정치경제학

(2) ESG의 가능성과 한계

- 지금의 ESG에 IE&D(Inclusion, Equity and Diversitiy)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ESG는 기업의 관점에서 경영과 투자를 위한 것. 지속가능성이라는 이름 아래 환경 그린워싱, 책임화이트워싱, 인권 블루워싱 등 흥보수단으로 편용될 수 있음 (최근 ESG워싱). IE&D는 젠더와 인종의 장벽을 넘는 고용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늘이고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유급 휴가를 확대하고 고객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특히 임원급과 종업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형평성도 포함
- IE&D는 형평의 가치에 입각한 일자리 창출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동참 아래 직원과 고객에게 공평한 대우와 기회접근을 강조하며, 인간과 사회와 환경을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연결함
- 기업은 ESG를 실천으로 앞장서야 하지만 정부는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 지원하고 NGO는 시민 참여를 유도하면서 비판과 독려를 아끼지 말아야 함

### 3. ESG의 정치경제학

(2) ESG의 가능성과 한계

- 한국에서는 공동결정과 이윤공유에 대해 자본과 노동이 첨예하게 부딪쳐 옴. 기업의 일차 목표가 이윤창출이라면 주주를 넘어 종업원을 포함하는 이윤공유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음
-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이윤공유에 대한 문제제기.  
특정 기업이 산업군의 평균이윤율이 계산된 다음 개별 기업의 초과이윤을 측정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
- 이윤공유에 앞서 공동결정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공동결정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다면, 재계는 경영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대함
- 서울시에서 2016년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국회는 2022년 1월 11일 '공동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킴. 현재 36개 공기업과 96개 준정부기관에 적용 중. 노조가 추천한 2명 중 1명이 노동이사(비상임으로 2년 임기 1년 연임 가능)로 이사회에 참여함
- 독일의 경험: 공동결정이 오히려 노사협력과 안정에 기여 (물론 독일 모델도 어려움 있음)

### 3. ESG의 정치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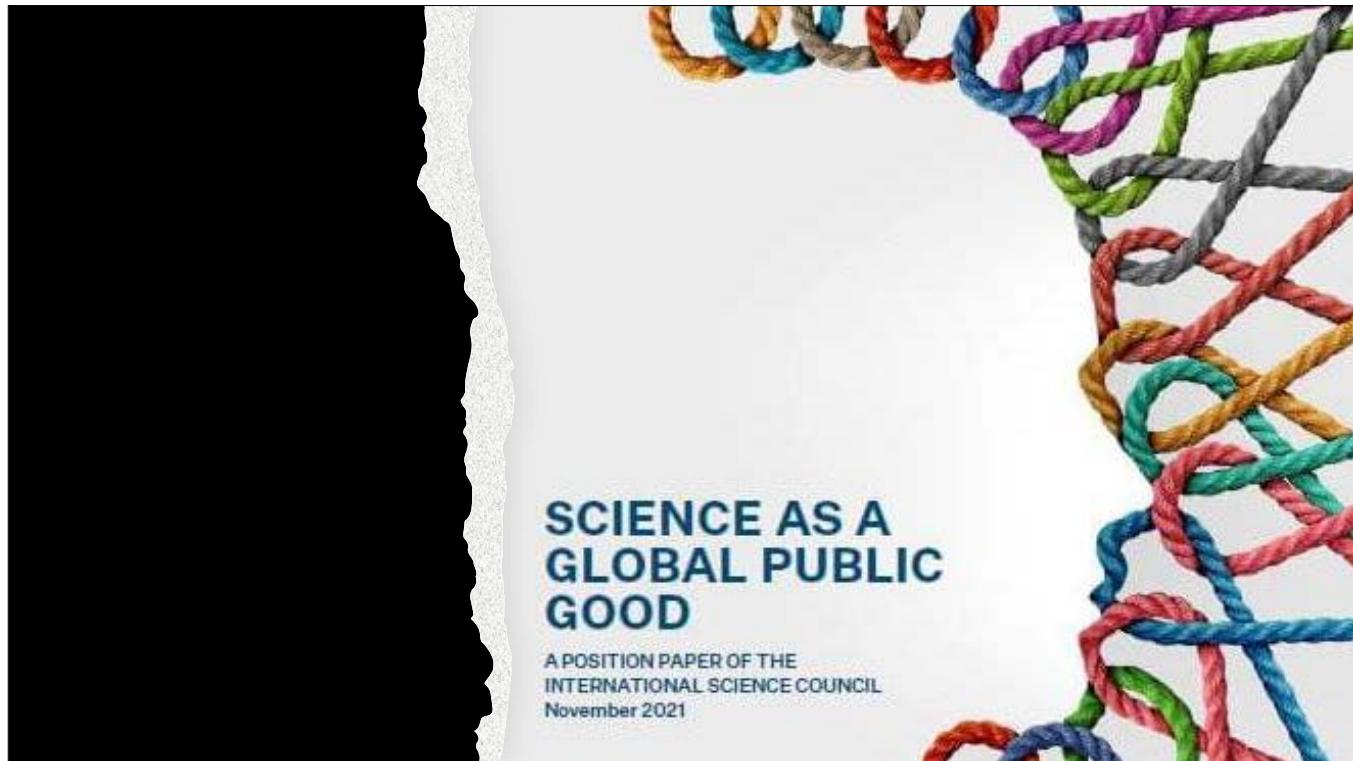
(2) ESG의 가능성과 한계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가 호경기였을 때나 유효한 것이지 현재로는 낡은 모델일 수 있음
- 특히 세계화 시대에는 자본의 이동과 기업의 합병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작동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규모와 고용관계를 다양화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함.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면서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함. 외국에 합작 내지 독자 기업을 설립하거나 국내에서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 (Albert and Gonenc, 1996)
- 한국 기업의 ESG 도입은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더불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함: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보면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환경규제 위반 내역, 사회공헌 내용, 비정규직의 규모 등을 공시하고 있음. 68.8%의 기업이 탄소중립이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

### 3. ESG의 정치경제학

(2) ESG의 가능성과 한계

- 자원위기, 환경위기, 경제위기, 정치위기, 인구위기, 문화위기 등 동시다발적 복합위기 특히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실존적 위기, 인류의 미래와 생존의 미래
- 한국 사회과학의 과제: 동시다발적 복합위기—시민의 공공 이해와 공공 가치에 기반한 개방적이고 공유된 공공재(a public goods)—진실성, 형평성,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참여
- 두 가지 역할: '사제'(priest)=체제유지 혹은 '예언자'(prophet)=체제변혁  
**강단-정책-비판-공공 역할**
- 증거 기반의 연구, 공공 영역에서의 공유와 확산, 객관적 연구-가치자유의 문제, 비판과 대안을 통해 갈등하고 협력
- 사회과학은 시민에 대한 계몽을 통해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회와 편익으로서 ESG 심화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비판적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함



## Types of Sociological Knowledge

	Academic	Extra-Academic
Instrumental	<i>Professional Sociology</i>	<i>Policy Sociology</i>
Knowledge	Theoretical/empirical	Concrete
Truth	Correspondence	Pragmatic
Legitimacy	Scientific norms	Effectiveness
Accountability	Peers	Clients
Politics	Professional self-interest	Policy intervention
Pathology	Self-referentiality	Servility
Reflexive	<i>Critical Sociology</i>	<i>Public Sociology</i>
Knowledge	Foundational	Communicative
Truth	Normative	Consensus
Legitimacy	Moral vision	Relevance
Accountability	Critical intellectuals	Designated publics
Politics	Internal debate	Public dialogue
Pathology	Dogmatism	Faddishness

source: Buraway (2005: 43)

감사합니다!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SESSION 01 | ESG와 지속가능한 사회

##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ESG, 상생과 공존

정 혁(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 사회과학 융합 심포지엄: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ESG, 상생과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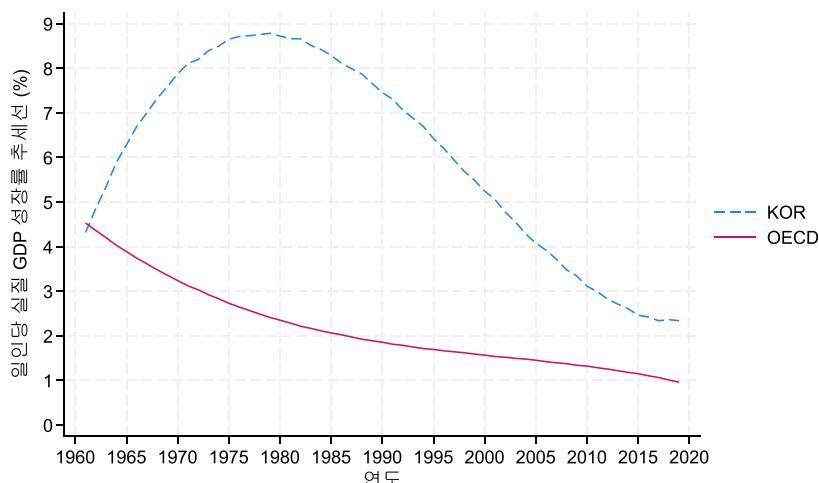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정혁

2024년 6월 7일

한국경제 성장경로 특성 진단

## 한국경제의 저성장 수렴



- 고도 성장 이후 성장률 하락은 예상된 정상 과정
- 중요한 질문은 성장률이 어느 수준의 정상 상태(定常狀態, steady state)로 수렴할 것인가?
- **총 생산성 성장률이 장기 성장률의 궁극적 척도**

\* 저성장의 핵심

- i) 미래 투자 유인 감소: 현재-미래 자원 배분 균형점 이동
- ii) 성장-분배 균형점이 분배로 이동
- iii) 경쟁과 지대 추구 강화와 동시에 공정 가치 강조
- iv) 저성장-저금리 동반 환경 조성 시 경기부양책 무력
- v) 생산성 혁신만이 근본적 타개책

정혁, 한국 경제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3

## 한국의 경제 성장 장기 추세 분해

Table 5. Decomposition of GDP per Capita Growth Contribution with Quality-adjustment of Land (%)

Period	URB	WER	IND	$T_a$	$k_a$	$h_a$	$v_a$	$l_a$	$T_b$	$k_b$	$h_b$	$v_b$	$l_b$
'74-'16	0.34	0.79	1.05	0.04	0.16	0.02	-0.004	0.11	1.53	1.28	0.28	-0.18	0.11
'74-'80	0.52	0.99	2.97	-0.15	0.33	0.05	0.001	0.20	-1.36	2.11	0.39	-0.03	0.22
'80-'90	0.71	0.68	1.61	0.12	0.29	0.03	-0.001	0.21	2.21	1.40	0.38	-0.11	0.26
'90-'00	0.29	0.75	0.62	0.10	0.14	0.01	-0.004	0.01	2.74	1.70	0.27	-0.18	-0.25
'00-'10	0.16	0.69	0.32	0.04	0.02	0.005	-0.01	0.07	1.98	0.78	0.19	-0.30	0.22
'10-'16	-0.04	0.99	0.20	-0.01	0.03	0.01	-0.01	0.06	0.57	0.37	0.21	-0.20	0.16

Table 6. Broad Categories of GDP per Capita Growth (%)

Period	'74-'16	'74-'80	'80-'90	'90-'00	'00-'10	'10-'16
GDP per Capita	5.70	6.68	8.29	6.32	3.98	2.34
Compositional Changes	1.39	3.49	2.32	0.91	0.48	0.16
Within-sector Employment Rate	0.79	0.99	0.68	0.75	0.69	0.99
Within-sector TFP	1.57	-1.51	2.33	2.84	2.02	(0.56)
Within-sector Inputs per Worker	1.78	3.27	2.46	1.70	0.98	0.63

\* 세 가지 심층 분석 통합한 장기 성장 회계  
(TFP Refinement)

- i) 구조 전환
- ii) 토지
- iii) 노동 시간

### 한국 경제 성장 전환 과정

1. 축적과 도약: 60-70년대
2. 생산성 주도 성장 기제로 전환 : 80년대 초 이후 30년

\* 80년대 초~90년대 초: 중진국 합성 탈피

3. 생산성 주도 성장의 정체 : 2010년대 초반 이후 현재

\* “5년 1% 하락” 원천:  
산업 구성비 변화 + 자본 축적 → 0

⇒ 이는 모든 경제에서 정상 상태 0으로 수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출처: 정혁(2020)

정혁, 한국 경제 미래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4

## 저성장 경제의 악순환 기제와 대응방안

- ▣ 저성장이 생산성 감소에 기인할 경우에는 투자도 감소
- ▣ 불확실성 증가가 동반할 경우 저축 증대하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저금리 경제로 전환되며 이 상태가 지속될 시 “장기 경기침체(Secular Stagnation)”로 진입
- ▣ 저금리가 유동성 함정에 걸릴 경우 정부에서 가용한 경기부양 정책은 확대 재정 및 공공부채 증가.
  - 1)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저금리 유지 필요.
  - 2) 이는 인플레이션과 과잉 유동성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거품 형성.
  - 3) 이는 장기 경기침체를 다시 강화하는 악순환을 발생시켜 저성장 함정에 빠짐
- ▣ 부채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금리인상이 어려워짐
- ▣ 정부 경기부양책은 악순환을 강화할 따름이며 유일한 탈출구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정혁,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5

## ESG 해석의 관점



## 인류 발전의 본질적 기제

### □ 연결

- 연결의 의미: 상호작용 영역의 폭과 깊이의 확장
- ‘교환’은 인간의 본성[Adam Smith], 연결은 뇌의 본능
- 연결에 의한 발전 양상
  - 1) 연결 관계 형성
  - 2) 연결된 관계의 구체화와 지속 ⇒ 측적
- 시대와 장소에 따라 연결 매체와 상호교류 양상은 변하나 연결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

### □ 혁신

- 혁신의 의미: 기존 연결관계의 구성과 그에 대응하는 가치에 변화를 주는 추동력(기술·제도)
- 혁신의 원천
  - 1) 필요/위기에 대한 의식적 대응
  - 2) 자율적 진보

정혁,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7

## 연결의 차원

### □ 사람과 사람의 연결

- 시간(Temporal Connection)
  - 개인 수준: 저축과 투자
  - 세대 수준: 출산과 보육, 연금
- 공간(Spatial Connection): 개인-지역공동체-국가-글로벌-유니버설
- 사회(Social Connection): 사회계층-계급/기능-직업/연령/성 ⇒ 사회적 분업(S)과 거버넌스(G) 문제

### □ 사람과 ‘상품’의 연결

- 중앙통제 계획 vs. 익명의 시장 vs. 양자·다자 계약 vs. 합의에 의한 Coalition(기업, 은행)
- 대항해시대와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확산

### □ 사람과 ‘자연’의 연결

-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E) 문제는 ‘사람-상품 연결’과 ‘사람-자연 연결’ 사이의 균형이 무너져 사람-사람 시간·공간·사회적 연결이 깨지는 문제 ⇒ ESG는 깨져가는 사람-자연, 사람-사람의 연결을 복구하기 위한 제도 혁신

정혁,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8

## 연결의 균열과 생산성 감소: 저성장의 근원 요인

### ▣ 사람-자연 연결의 균열

- 상품 연결 확장 가속화 ⇒ 기후변화/자연재해 빈도 증가
- 자연의 파드백/조정 ⇒ 팬데믹

### ▣ 사회적 분업의 균열

- 사전적 기회 불평등 vs. 사후적 소득/자산 불평등
- 다각적 차원의 양극화 증폭 ⇒ 사회갈등 비용
- 사회적 신뢰 감소 ⇒ 사회적 분업 영역 축소 ⇒ 생산성 감소

### ▣ 세대 간 연결의 균열

- 인구 감소 경제: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 세대 간 연금 **dividend rate** 마이너스 ⇒ 재정지원 없는 연금 논리적 불가능
-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 저축·투자 연결 어려움, 부모의 자녀 인적자본 투자 유인 감소 ⇒ 생산성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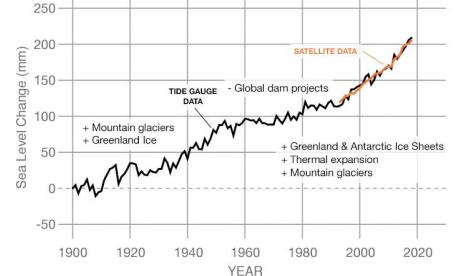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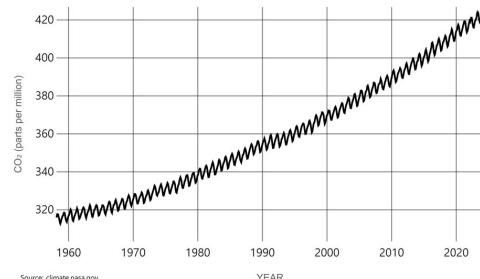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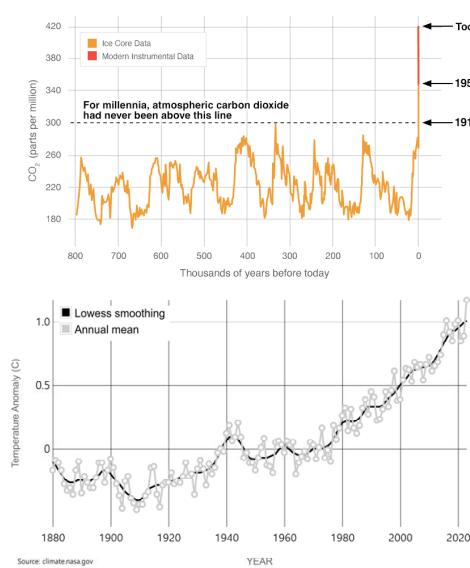
### ▣ 글로벌 연결의 균열

- 중국의 대대적 글로벌 시장 진입을 통한 축적과 폐권 도전, 미국의 반응, 그리고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 교역/투자/기술의 글로벌 교환 공간 감소 ⇒ 생산성 감소

정혁,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9

## 기후변화의 실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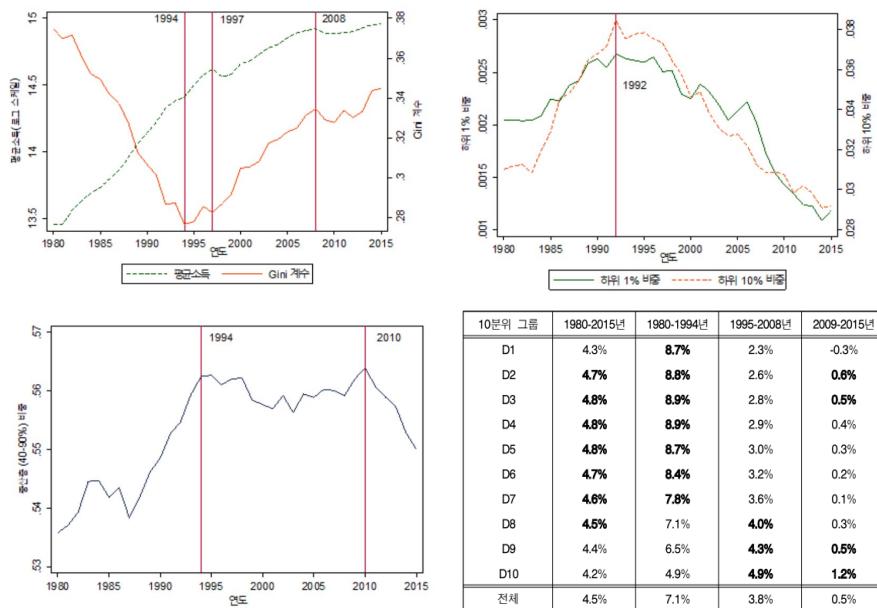


출처: NASA

정혁,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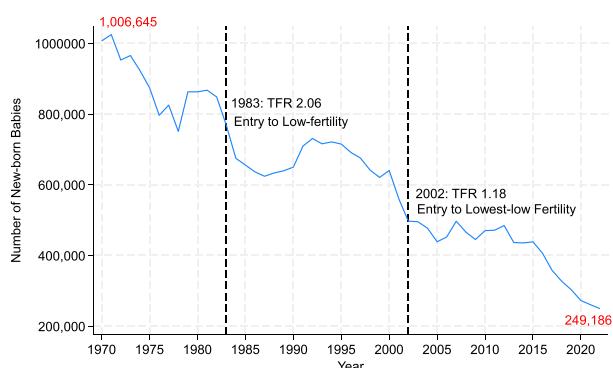
## 한국의 소득불평등 장기 추세: 역(逆) KUZNETS CURVE와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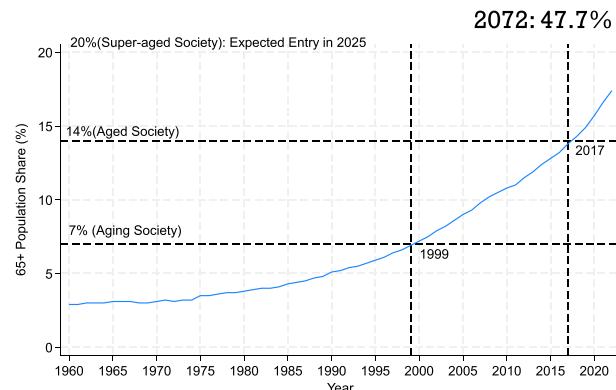
11

## 저출산·고령화

### A. New-born Babies (Cohort S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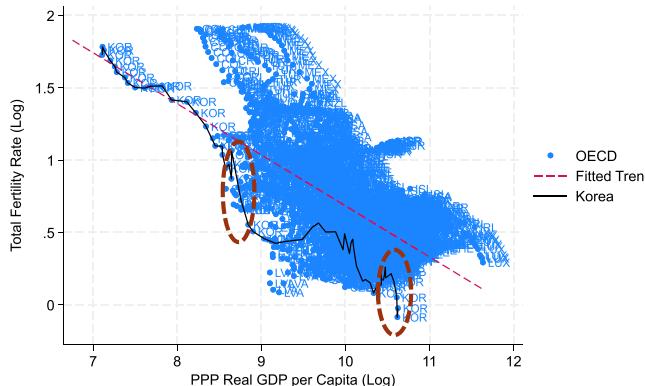
### B. Share of 65+ Population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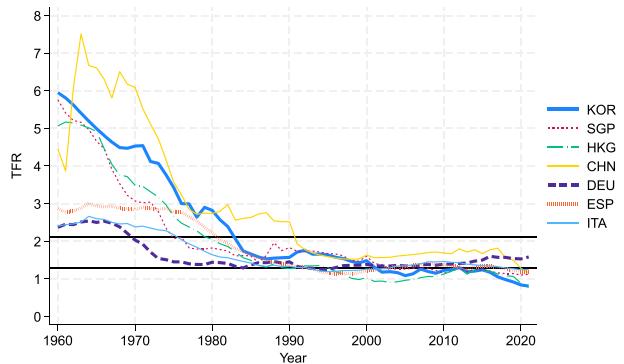
Hyekok JEONG, Korean Demographic Transformation

## 한국 저출산의 특이점



1980년 이전은 OECD 추세선을 따르다가  
1983년 이후 추세선에서 이탈한 후  
2000년대(특히 2016년 이후) 감소 가속화  
⇒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소득효과가 아님

정혁,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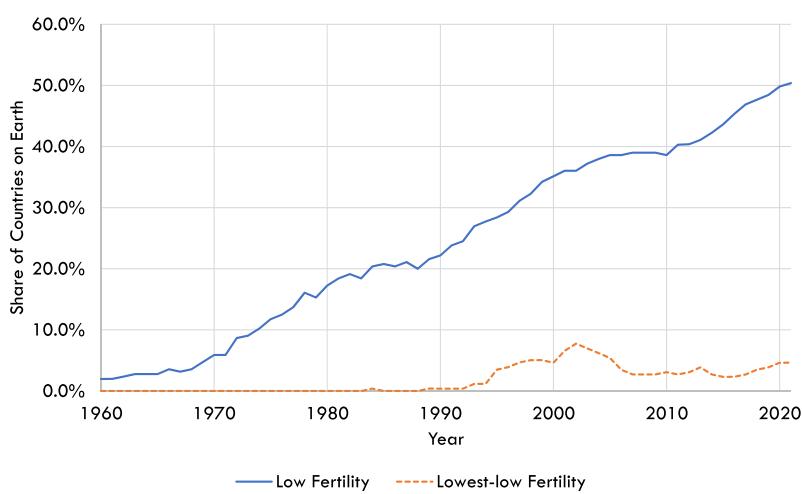
### 다양한 초저출산 경험

독일: 초저출산 몇 진입 직전에 빠져나온 사례  
싱가폴, 이탈리아, 스페인: 초저출산 몇 경제에 머무는 사례  
중국: 초저출산 몇에 빠져들고 있는 사례  
한국, 홍콩: 초저출산 몇에 빠진 후 더 깊이 들어가는 사례

13

## 헤어질 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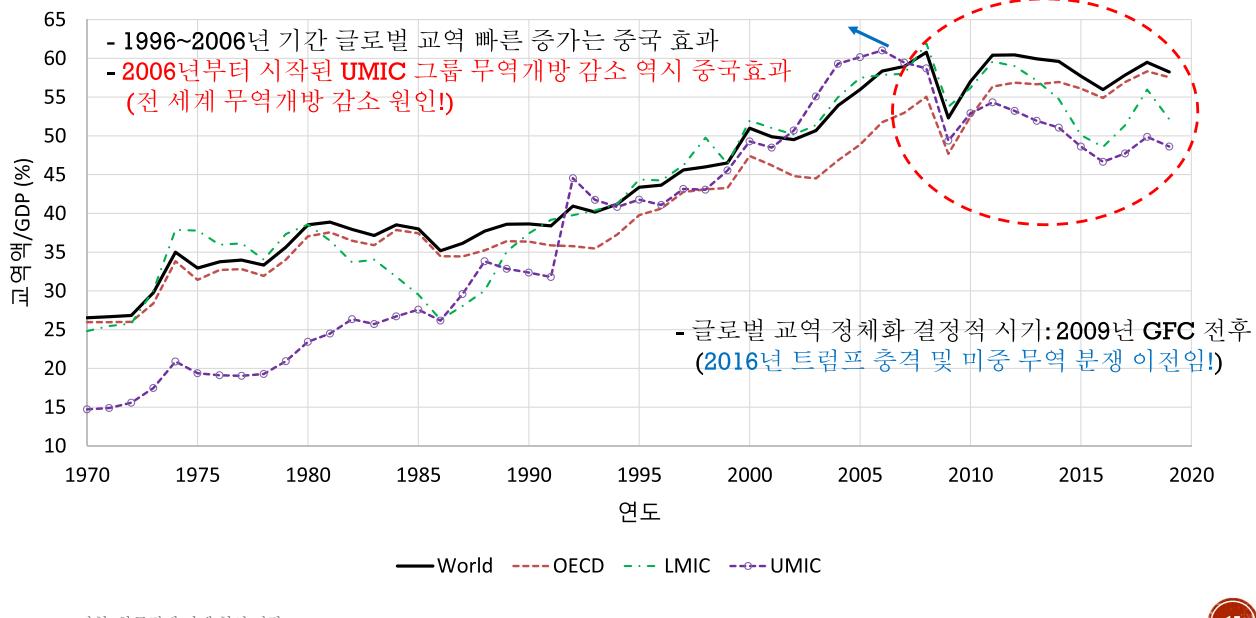
2021년 전 지구 절반(50.4%)의 나라의 사람들이 지구와 헤어질 결심을 한 듯!



Hyeok JEONG, Korean Demographic Trans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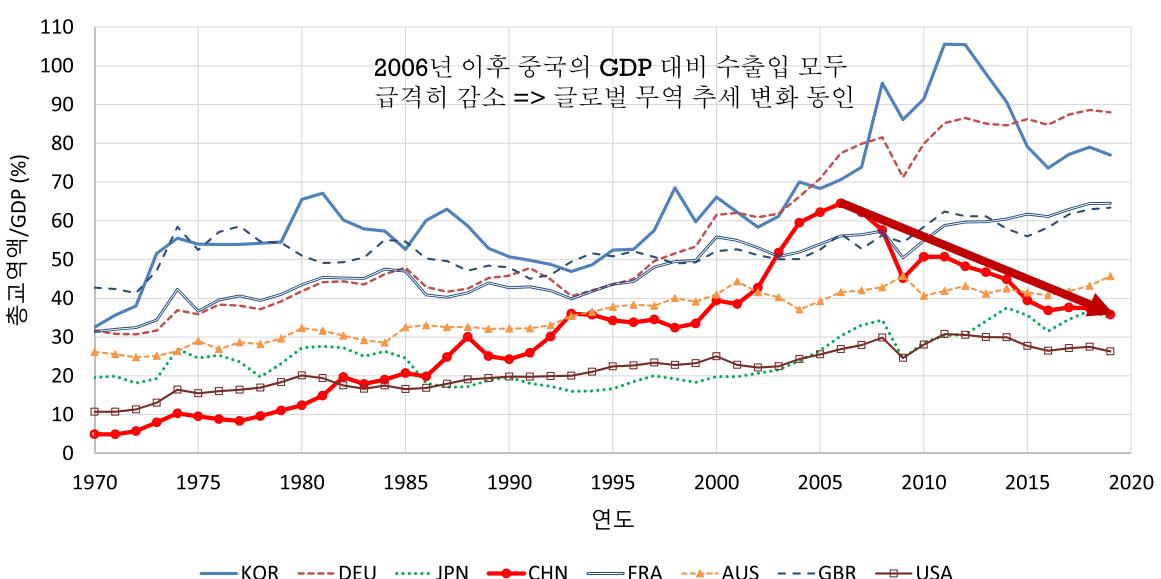
14

## 글로벌 교역 확장 추세 변화



15

## 주요국 교역 확장 추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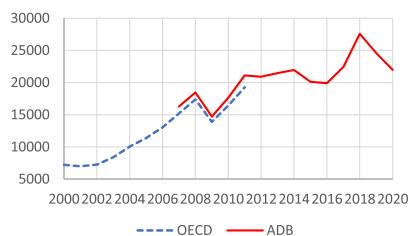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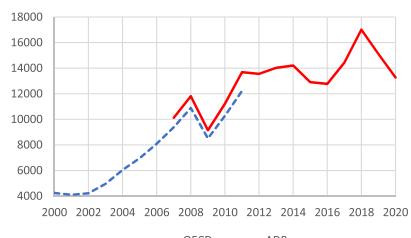


## 글로벌 중간재 무역 추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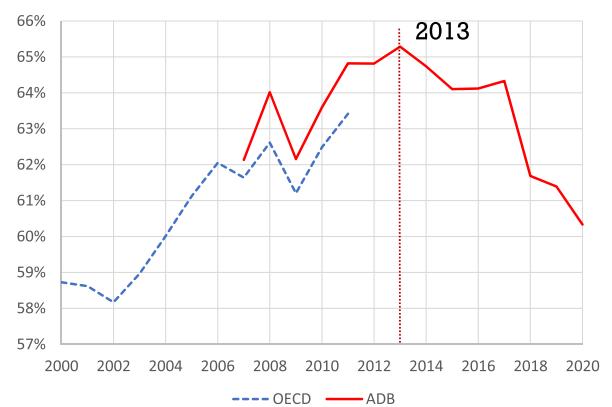
A. 전 세계 총 교역액 (Billion USD)



B. 전 세계 중간재 교역액 (Billion USD)



C. 전 세계 교역 중간재 비중



GVC 참여도 2013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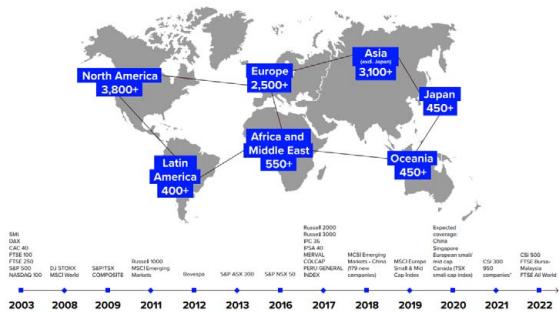
정혁, 한국경제 미래 혁신 전략

17

## ESG 측정



## REFINITIV ESG SCO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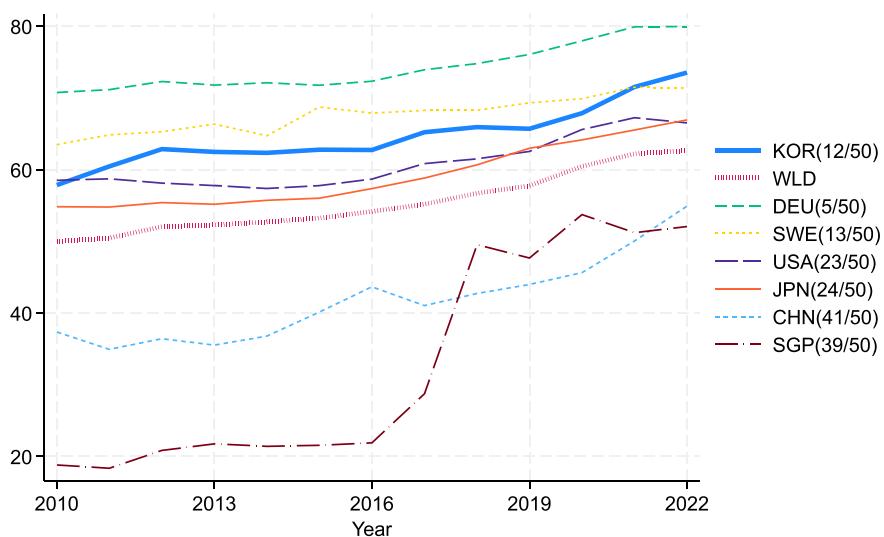


**Global coverage of ESG indicators at company level**  
:12,500 private and public companies from 50 countries  
for 2002-2022 period (comparable period: 2010-2022)

정혁,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19

## ESG 성장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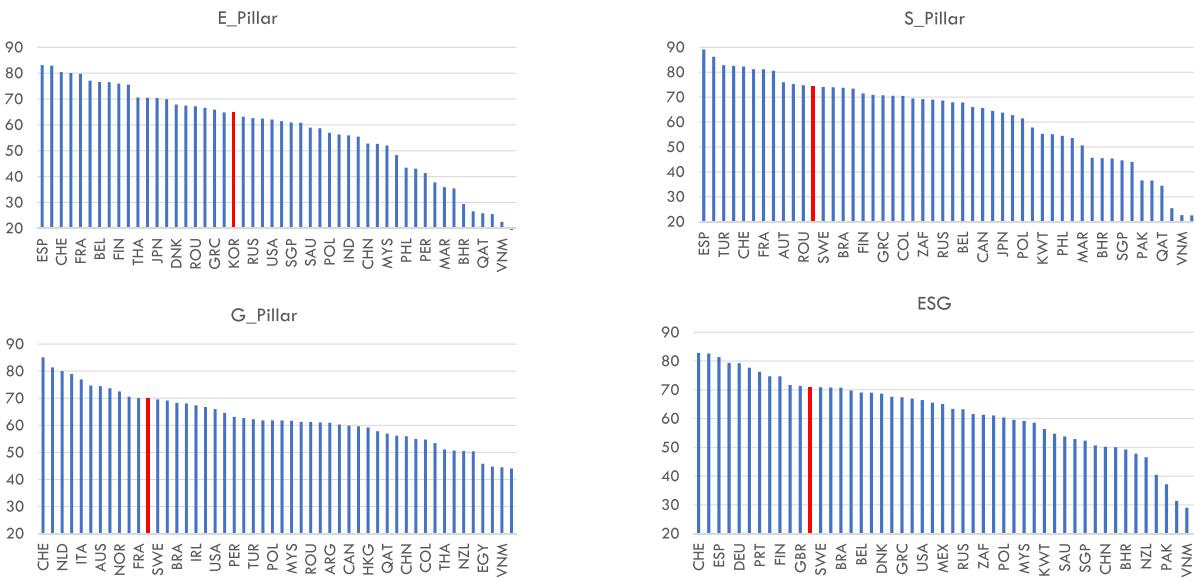


정혁,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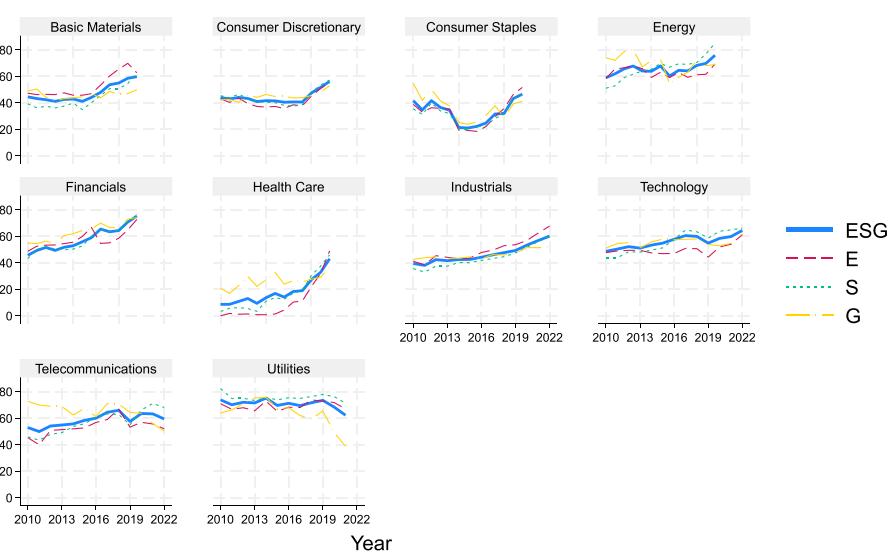
## ESG 분야별 국가 순위(2020-2022 평균)



정혁,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21

## 한국 ESG 산업별 변화



정혁,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22

## ESG 국가경제성장 효과: 국가간 성장 회귀분석

- 통제 변수: 소득 수준, 투자율, 정부지출 비중(정부 크기), 인플레이션, GDP 대비 교역량(개방성), High-Tech 수출 비중, 교육 인적자본, 출산율, 평균 수명 [lagged]

- E.S.G.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

- TFP, 즉 생산성 증가가 채널!
- 장기효과가 단기효과보다 큼

		1년 주기	5년 주기	10년 주기
일인당 GDP 성장률	ln_E	-0.03	-0.21	0.25
	ln_S	0.02	-0.09	0.02
	ln_G	-1.22	-0.15	-1.20
	ln_ESG	-0.22	-0.08	-0.08
TFP 성장률	ln_E	1.16	1.40	1.13
	ln_S	1.30	1.51	1.37
	ln_G	0.25	2.25	1.19
	ln_ESG	1.56	1.92	1.76

정혁,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23

## ESG의 기업 수익률 향상 효과

- 한국 Refinitiv 개별 기업 ESG 지표와 외감 데이터 기업 특성 변수 병합
- 한국 기업의 경우 기업 특성 변수를 제어할 때 E.S.G 각 지표와 기업의 수익률은 강한 양의 상관 관계를 보임

- 시기: 2011-2022년
- Year fixed effects 포함
- (-): 수익 크기, 설립 역사, 부채율
- (+): R&D 비중, 현금 흐름 비중, 여성근로자 비중, 여성 임금/남성 임금
- (~): 노동생산성

Regressor	Coeff.	p_value	Coeff.	p_value	Coeff.	p_value	Coeff.	p_value
ln_ESG_1	2.321	(0.000)***						
ln_E_1			0.817	(0.011)**				
ln_S_1					1.271	(0.000)***		
ln_G_1							2.433	(0.000)***
ln_rev_1	-1.257	(0.000)***	-0.865	(0.000)***	-0.977	(0.000)***	-1.098	(0.000)***
history	-0.029	(0.018)**	-0.013	(0.287)	-0.033	(0.007)***	-0.030	(0.014)**
ln_lp2_1	0.189	(0.276)	0.372	(0.030)**	0.117	(0.498)	0.204	(0.240)
sh_rnd_1	4.084	(0.058)*	11.139	(0.000)***	4.180	(0.053)*	4.586	(0.032)**
sh_cashflow_1	0.303	(0.000)***	0.653	(0.000)***	0.293	(0.000)***	0.306	(0.000)***
sh_debt_1	-0.003	(0.001)***	0.001	(0.360)	-0.003	(0.001)***	-0.003	(0.000)***
sh_f_worker_1	8.007	(0.000)***	5.621	(0.000)***	8.152	(0.000)***	7.848	(0.000)***
f_rel_wage_1	6.468	(0.000)***	5.377	(0.001)***	6.862	(0.000)***	6.122	(0.000)***
Constant	21.77	(0.000)***	15.81	(0.000)***	21.82	(0.000)***	19.02	(0.000)***
Observations	1288		1161		1288		1288	
R-sq	0.218		0.306		0.212		0.219	

정혁,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24



# ESG, 상생과 공존을 통한 미래 성장 전략



## 상생과 공존 관점의 ESG

### ▣ ESG의 연결 촉진 효과

- **E:** 사람과 자연 간 연결의 균열 완화(장기 시계 효과, 하지만 압도적 기회비용의 가속적 상승)
  - 자원 남용 방지, 환경 오염 배출 최소화, 환경 비용과 고객 부담 최소화하는 기술·상품 개발을 통한 신 시장 개척
- **S-G:** 사람 간 연결 균열 완화(단기·중기 시계 효과) ⇒ 사회적 분업 균열 완화, 조직 문화 내재화
  - **S:** 노동의 질, 인권, 공동체, 상품 공급 책임성
  - **G:** 기업 내 거버넌스, 주주 보호, 기업경영의 사회적 책임
- 생산성 척도인 국가 수준 TFP 성장을 과 기업 수익률(EBITDA, 영업이익률)에 **E-S-G** 모두 강한 긍정적 효과 실증!

### ▣ ESG 연결 촉진 간접 효과

- **E-S-G**가 정치적 사회운동가들에 의해 **hijacking**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강화될 경우 현 청년 세대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바꾸어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
- **E-S-G**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레버리지로 성장 정책과 인식이 고도성장에서 지속가능 안정 성장 기조로 바뀐다면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 극복에 도움
- **E-S-G**에 대한 글로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경우 글로벌 무역·투자·아이디어 연결의 균열 완화



부록





## REFINITIV ESG 하부 지표 정의

Score	Definition
Refinitiv ESG resource use score	The resource use score reflects a company's performance and capacity to reduce the use of materials, energy or water, and to find more eco-efficient solutions by improving supply chain management.
Refinitiv ESG emissions reduction score	The emission reduction score measures a company's commitment and effectiveness towards reducing environmental emissions in its production and operational processes.
Refinitiv ESG innovation score	The innovation score reflects a company's capacity to reduce the environmental costs and burdens for its customers, thereby creating new market opportunities through new environmental technologies and processes, or eco-designed products.
Refinitiv ESG workforce score	The workforce score measures a company's effectiveness in terms of providing job satisfaction, a healthy and safe workplace, maintaining 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ies,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its workforce.
Refinitiv ESG human rights score	The human rights score measures a company's effectiveness in terms of respe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conventions.
Refinitiv ESG community score	The community score measures the company's commitment to being a good citizen,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respecting business ethics.
Refinitiv ESG product responsibility score	The product responsibility score reflects a company's capacity to produce quality goods and services, integrating the customer's health and safety, integrity and data privacy.
Refinitiv ESG management score	The management score measures a company's commitment and effectiveness towards following best practice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Refinitiv ESG shareholders score	The shareholders score measures a company's effectiveness towards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and the use of anti-takeover devices.
Refinitiv ESG CSR strategy score	The CSR strategy score reflects a company's practices to communicate that it integrates economic (financial),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into its day-to-day decision-making processes.

정혁, 한국 경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발전 전략: 상생과 공존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SESSION 01 | ESG와 지속가능한 사회

## ESG와 국가발전모델의 전환

김석호(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ESG와 국가사회발전 모델의 전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석호

### 목 차

1. 연구배경: ESG의 부상과 국가사회 발전 방향 재정립 필요성
2. ESG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ESG 주요 이슈
4. 국가사회발전 모델의 전환: 중첩모델
5. 결론

## 1. 연구배경: ESG의 부상과 국가사회발전 방향



- 2020년 매출액: 13조원(전년 대비 91% 증가)
- 2021년 3월 쿠팡 Inc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NYSE) 상장(CPNG), 시총 약 83조원
- 시장경쟁력: 로켓배송/당일배송

뉴스룸 | 혁신기사

삼성증권 "쿠팡 화재로 물류 기업·리츠 ESG 중요성 커질 것"

승고시간 | 2021-06-21 12:02

박진형 기자  
기사보기



쿠팡물류센터 화재 나흘째 진화 중...진화장의 계속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삼성증권(016360)은 쿠팡의 이천 억평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물류센터 관련 기업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21일 전망했다.

기사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지 수익률뿐이 아닌 시설물의 안정성 등 엄격한 ESG 준수 여부가 최근 부상하는 물류리츠에 요구되는 투자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

이어 리츠와 펀드 등 이미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이 같은 변화가 가속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ESR친달스퀘어리츠(365550)의 고양부천 물류센터가 친환경 인증, 군무자 업무환경 안전성 평가등급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

한국택신 신 '포함' 마련  
이 연구원은 "향후 기업과 리츠들은 보유한 자산들이나 경영 활동이 ESG 기준에 위배될 경우 존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투자자 역시 이를 중요한 투자기준으로 삼게 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기획

부천시 실종  
안에 찾아..."  
그는 "국내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빈번했고 물류센터는 타 부동산보다 화재 시 불신 피해 위험이 크다

기획

리시마서 실  
보험료는 추가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물류센터 수익률 하락 요인"이라고 전단했다.

기획

화현진은 대  
사전 아우야  
 다만 "장기적으로는 물류센터 인허가와 건설 기준(난연재 사용 의무화 등)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물류센터의 공급과잉 리스크는 점차 완화되고 물류센터 전문 디벨로퍼 중심으로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획

방에 크림자  
그는 쿠팡의 경우 초대형 물류센터인 해당 물류센터를 대체할 곳을 시장 내에서 찾아야 하나 쉽지 않아 보여 단기적으로 물류센터 임대료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2021. 6. 21. 기사

<https://www.ytn.co.kr/view/AKR20210621071400002?input=1195m>

## 1. 연구배경: ESG의 부상과 국가사회발전 방향

### 국가사회발전의 의미

- 국가사회발전이란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할 때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가치부하적인 개념
-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협의(狹義)의 발전 개념을 넘어 국민 삶의 질, 웰빙,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의 지속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 개념을 채택
- 기존 연구들은 “한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국민들의 웰빙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발전개념에 접근해 왔으며, 발전을 ‘경제, 사회, 환경 부문의 상호의존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으로 정의한 바 있음
- 국가사회발전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경제, 사회, 환경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까지 포함할 때 비로소 가능해짐 → 실제로 국민생활은 세 부문 중 둘 이상의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현실에서 발전은 경제 규모의 성장과 효율성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국가 정책 영역에서도 전통적인 발전 개념을 전제로 해 방향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국가발전(national progress)을 정의하는 데 있어 어떤 가치를 발전의 중심에 둘 것인지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1. 연구배경: ESG의 부상과 국가사회발전 방향

### 국가사회발전 연구의 흐름

- 국내총생산(GDP)을 바탕으로 한 국가사회발전의 측정
  - GDP는 1934년 쿠즈네츠(Kuznets)에 의해 만들어진 후, 경제활동을 재는 척도로서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웰빙의 척도로도 광범하게 사용되어 왔음
  - 그러나 GDP를 사회발전의 척도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 삶의 질을 바탕으로 한 국가사회발전의 측정
  - 어떻게 하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사회적 상태를 종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어 생활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측정함으로써 인간생활의 전반적인 복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
  - 사회적·개인적, 객관적·주관적 수준의 문제들을 모두 고려하고 나아가 환경적인 문제까지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개념으로 진화
- 지속가능한 발전을 바탕으로 한 국가사회발전의 측정
  - 이전까지의 삶의 질 연구가 사람과 사회의 질적인 발전을 강조하여 경제성장 측면보다 개인의 삶의 질 증진의 종합으로서의 사회발전 측면에 주목하였다면,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구는 경제 및 사회 발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간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거시적 차원의 국가발전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 ESG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and Governance(지배구조/의사결정구조)

ESG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전사적 활동과 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비재무적인 측면을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

### ESG 세부항목

① **Environment:**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대기 및 수질오염, 생물의 다양성, 물 부족, 폐기물 관리, 동식물 보호, 토지이용, 에너지사용(신재생에너지), 원자재 채굴, 환경 관련 법 규제 위험, 재활용 등 기업이 친환경적인 생산, 판매, 경영을 전개하는 전반에 관한 것

② **Social:** 고객만족, 데이터보호 및 프라이버시, 공급망관리, 성별 및 다양성, 인권, 노동기준을 준수하는 것 등을 포함하며 단순한 기부 활동이 아닌 기업이 활동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

③ **Governance:** 이사회 구성, 감사위원회 구조, 실적 악화로 직결되는 불상사의 회피, 뇌물 및 부패, 캠페인, 로비 및 정치기부금, 내부고발자 제도, 기업윤리 등 기업이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는 것

참고자료: <http://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1909>

## 2.ESG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의 ESG가 중요해지는 이유?

-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관련 요소들을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로 보고 **직접적인 비즈니스 리스크나 기회로 보지 않음**
  - 투자나 재무적인 가치로의 인식이 부재했음
  -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의식 미흡
-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기업들이 급속하게 ESG경영을 도입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전략적으로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사회적 책임투자 등 투자자들의 인식변화가 주 원인
  - 글로벌 투자기관/금융기관들이 ESG 순위를 발표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등 투자기관들이 SRI, ESG투자 등을 위주로 함
  -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인식변화: 윤리적, 사회적 책임 기업 제품 소비, 취직 희망 등 : 비윤리적, 사회적 책임이 없는 기업들을 비판, 불매운동 등을 통한 소비자 주권 행사

## 2.ESG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의 ESG가 중요해지는 이유?

-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 〈주주 자본주의〉
    - 1970년대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등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
    - 기업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활동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관점
    - 환경파괴, 소득 양극화, 비윤리적 경영 등의 부작용 초래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기업은 주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고객, 종업원, 공급업체, 지역사회 등의 니즈를 만족시키며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
    - 1990년대 후반 조세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에 의해 제안되고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기본 이념이 됨
    - 2019년 8월 미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 : BRT 회원사 중 181개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서명(단 1개 기업만이 이사회 안건 상정)
    - **ESG경영**을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념 계승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06/579929/>



## 2. ESG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직원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 및 사회전체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속적인 책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세계기업협의회, 1999)

“CSR은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법을 준수하며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비즈니스의 수행을 의미”

(“CSR involves the conduct of a business so that it is **economically profitable, law abiding, ethical and socially supportive**”)

Archie B. Carroll (1979)

- 사회에서 비즈니스의 역할은 이익극대화에서 기업과 사회 모두를 위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음



#### CSR 이슈 영역 (ISO26000분류)

- 기업지배구조(G),
- 인권(S), 노동관행(S), 공정운영관행(S), 소비자이슈(S),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S)
- 환경(E)

## 2. ESG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 ■ *Level 1. Social Obligation* (사회적 의무)

- 최소한의 규칙에 부합
  - 법에서 요구하는 것까지만 함
- ex) Comply with wage and working time laws, minimum benefits

#### ■ *Level 2.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 법에서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실천,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
  - 기업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키고자 시행
- ex) Provide added labour benefits

#### ■ *Level 3. Social Responsiveness* (사회적 대응/반응)

-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방식
  - 긍정적 변화를 촉진
- ex) Improve quality of work life

Source: Alex Villas, CSR:MRH Congress, 2007

### 3. ESG 주요 이슈

#### 1) 인권과 노동환경

인권(모든 인간이 부여 받은 기본권)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 인권 위험상황

: 정치불안, 자연재해, 부패 문화 등

##### 2) 상세검토/실사

##### 3) 차별과 취약그룹

: 취약그룹 – 여성과 여자 어린이, 장애인, 어린이, 이주자, 혈통이나 인종에 기초해서 차별 받는 사람들, 기타(고령층, 난민, 빈곤층, 문맹, HIV/AIDS환자, 소수집단, 종교그룹)

##### 4) 시민권과 정치권: 공권력이나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5) 경제권, 사회권과 문화권

: 안전할 권리, 언론과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정하고 호의적인 조건에서 일할 권리 등

##### 6) 근로에서의 원칙과 권리

: 국제사회에서 기본인권으로 여겨짐

Source: ISO26000

### 3. ESG 주요 이슈

#### 1) 인권과 노동환경

노동관행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하청근로를 포함해 조직 내에서, 조직에 의해, 또는 조직을 대신해 수행되는 근로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관행

##### 1) 고용과 고용관계

: 조직은 완전하고 보장된 고용과 제대로 된 근로를 통한 “생활수준 개선”에 기여해야 함

: 근로제공 관계형성단계 – 강제노동과 어린이노동, 채용차별 (인권)

근로제공 관계형성 이후 –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권, 승진/보수차별 등(노동권)

##### 2) 근로조건

: 근로조건 – 임금과 그 외의 보상,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가, 징계와 해고 관행, 모성보호와

안전한 식수, 위생시설, 식당, 의료 서비스 접근 등의 복지사항을 포함

→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 노동기준을 지키도록 권장

### 3. ESG 주요 이슈

#### 1) 인권과 노동환경

##### 노동관행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하청근로를 포함해 조직 내에서, 조직에 의해, 또는 조직을 대신해 수행되는 근로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관행

##### 3)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 : 근로자의 최상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행복의 촉진과 유지, 그리고 근로조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것
- : 스트레스와 질병을 유발하거나 일으키는 근무지에서의 **심리사회적 위험 제거 노력**
- : 모든 직원들에게 관련 사안에 대한 **직접한 훈련을 제공**하고 긴급상황 대처는 물론 직업상해, 질병과 사고 예방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를 포함한, **안전장비 제공**

##### 4) 근무지에서의 인간개발과 훈련

- : 조직은 근로 경험의 모든 단계에 있는(미숙련부터 숙련에 이르는) 모든 근로자에게, 평등하고 비차별적인 기초위에서, **기능개발, 훈련, 견습직 및 경력발전의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 된 근로자가 새로운 고용을 찾는데 대한 지원, 훈련 및 상담에 접근하는 것을 돋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좋음

### 3. ESG 주요 이슈

#### 2) 환경



-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
- H&M은 2019년에 43억달러 상당의 재고를 기록
  -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한 이후에도 총 판매량이 62% 감소
- H&M이 연간 제작하는 약 5억 벌의 옷들 중에서 오직 0.7%만 재활용된 재료
- business model의 수정 대신 가장 쉬운 방식인 섬유재활용을 내세워 지속가능성 홍보

Fast fashion business model

**“inexpensive, trendy clothing designed and priced to be bought, worn, then quickly discarded”**

Claudia Marsales, senior manager of waste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Markham, Ont.

<https://wellmadeclothes.com/articles/HM43BillionWorthOfUnsoldClothes/>  
<https://www.cbc.ca/news/business/clothes-recycling-marketplace-1.4493490>

<http://miminicampos.blogspot.com/2015/10/h-conscious-lets-close-loop.html>  
<https://wellmadeclothes.com/articles/BritonsSend235MillionItemsOfClothingToLandfill/>

### 3. ESG 주요 이슈

#### 2) 환경

환경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 오염 예방

- 대기로의 배출, 물로의 배출, 폐기물 관리, 독성물질, 위험 화학물질의 사용과 폐기 등

##### 2)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 에너지 효율, 물 보존/사용과 물에 대한 접근, 재료 이용상의 효율성, 제품의 최소화된 자원 요구

##### 3) 기후변화 완화와 적용

-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등

##### 4) 환경보호, 자연서식지 복구

- 자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의 가치 확인과 보호, 생태계 서비스의 가치 확인, 보호 및 복원 등

### 3. ESG 주요 이슈

#### 3) Triple Bottom Line 회계 프레임워크

Solutions

##### - 원인자부담원칙(A cost-by-cause principle)

: 비용발생의 책임이 있는 자가 지불하는 것

: 환경적 측면에서는 소위, 오염원인자비용부담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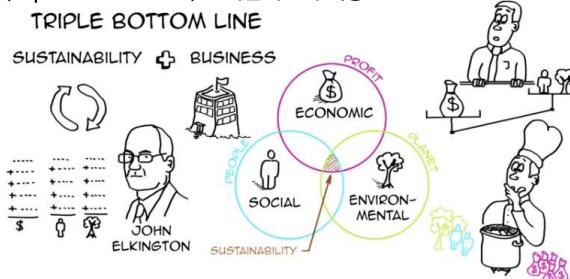
##### → ESG를 통한 비용의 내부화 노력 필요

-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 필요
- Triple bottom line 회계방식의 도입

### 3. ESG 주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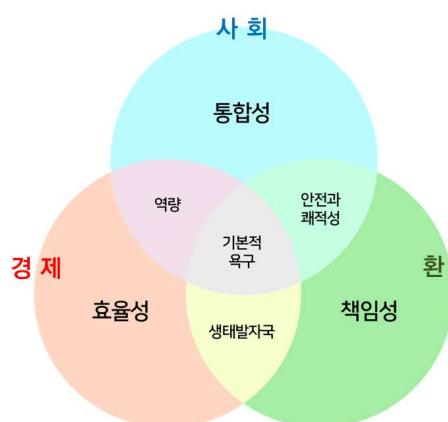
#### 3) Triple Bottom Line 회계 프레임워크

→ 트리플바텀라인(Triple Bottom Line) 프레임워크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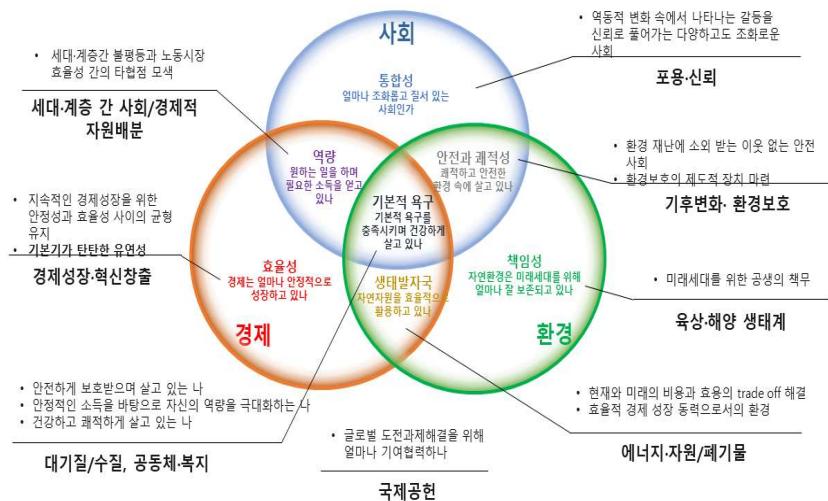
- 사회, 환경(또는 생태) 및 경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회계 프레임워크
  - TBL은 경제적 성과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통칭함
    - : TBL은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적인 가치창출에 있어서의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용어
  - 사회나 환경문제에서 기업이 야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사회나 환경적으로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계산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회계방식
- TBL은 전체비용회계('Full cost accounting')로서 응당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을 사회에 부당하게 이전하지 않으려는 CSR의 핵심개념임

### 4. 국가사회발전 모델의 전환: 중첩모델



- 종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축인 환경, 경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가치, 그리고 이들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발생되는 가치 중심의 모형을 제시
- 이 가치들이 얼마나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 인지를 판단함
  - 부문별 핵심가치 (7부문)
    - 사회 : 통합성, 경제 : 효율성, 환경 : 책임성
    - 사회-경제 : 역량, 경제-환경 : 생태발자국, 환경-사회 : 안전과 쾌적성
    - 사회-경제-환경 : 기본적 욕구

## 4. 국가사회발전 모델의 전환: 중첩모델



## 4. 국가사회발전 모델의 전환: 중첩모델

### 각 영역별 발전 개념의 수립과 중첩모델 구성: 사회영역

- 새로운 사회발전 개념의 수립과 방향설정
  - 새로운 사회발전 방향의 수립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은 관련 주체들 간의 상호인정
  - 오늘날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발전은 기존의 발전모델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그것이 담아내지 못했던 영역을 새로운 틀 안에 포함시키고 다원화된 영역 간에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
  - 새로운 사회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은 새로운 기존의 발전전략을 어떻게 개량(re-modeling)할 것인가에서 출발해야함



## 4. 국가사회발전 모델의 전환: 중첩모델

### 각 영역별 발전 개념의 수립과 중첩모델 구성: 사회영역

- 대안적 발전모델로서 중첩모델
  - 1) 사회 고유영역
    - 사회적 포용, 사회 안전망,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그리고 사회갈등 등
  - 2) 사회영역에서 바라본 경제부분과의 중첩영역
    - 교육
  - 3) 사회영역에서 바라본 환경부문과의 중첩영역
    - 자연재해, 환경 훼손
  - 4) 사회영역에서 바라본 사회/경제/환경 중첩영역
    - 구성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현재 사용 가능한 한정된 자원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의 문제를 논의하는 장

## 4. 국가사회발전 모델의 전환: 중첩모델

### 각 영역별 발전 개념의 수립과 중첩모델 구성: 경제영역

- 새로운 경제발전 개념의 수립과 방향설정
  - 지금까지의 발전개념과 지표는 현재의 상태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는 한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의 이동에 수반되는 비용, 현재와 미래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소득수준이 상승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하며,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중 어느 세대의 요구에 더 가중치를 주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 (투자 vs. 소비, 자원의 개발 vs. 보전, 세대 간 복지와 조세 문제 등) 등도 반영해야 함

## 4. 국가사회발전 모델의 전환: 중첩모델

### 각 영역별 발전 개념의 수립과 중첩모델 구성: 경제영역

- 대안적 발전모델로서 중첩모델
  - 1) 경제 고유영역
    - 안정적 경제성장, 효율적인 경제(최소의 이용으로 최대의 혁신창출)
  - 2) 경제영역에서 바라본 사회부문과의 중첩영역
    - 공정한 분배(원하는 일을 하며 필요한 소득을 얻고 있는가)
  - 3) 경제영역에서 바라본 환경부문과의 중첩영역
    - 폐기물의 최소화, 에너지 자원의 이용
  - 4) 경제영역에서 바라본 사회/경제/환경 중첩영역
    -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높은 수준의 삶의 질

## 4. 국가사회발전 모델의 전환: 중첩모델

### 각 영역별 발전 개념의 수립과 중첩모델 구성: 환경영역

- 새로운 경제발전 개념의 수립과 방향설정
  -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 요구됨
  - '세대간 형평성'의 개념으로 구체화 된 지속가능한 발전
  - 비가역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재생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적, 질적 상태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자연자원 및 환경을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
  - 경제 및 기타 개발정책을 입안할때도 반드시 환경적 고려를 거쳐서야 하며, 환경의무를 입법, 적용, 해석하는 과정에서도 경제 및 기타 사회개발의 필요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4. 국가사회발전 모델의 전환: 중첩모델

### 각 영역별 발전 개념의 수립과 중첩모델 구성: 환경영역

- 대안적 발전모델로서 중첩모델
  - 1) 환경 고유영역
    - 육상과 해양생태계, 수질/ 대기질
  - 2) 환경영역에서 바라본 경제부분과의 중첩영역
    - 폐기물, 에너지 · 자원
  - 3) 환경영역에서 바라본 사회부문과의 중첩영역
    - 기후변화
  - 4) 환경영역에서 바라본 사회/경제/환경 중첩영역
    -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개인과 관계 깊은 환경 지표
    - 대기질과 수질

## 4. 국가사회발전 모델의 전환: 중첩모델

### 각 영역별 발전 개념의 수립과 중첩모델 구성: 국제공헌영역

- 국가발전에서 국제공헌의 의미
  -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차원의 원조를 받는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
  - 개발원조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
  - 최근의 국제공헌 아젠다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할 수 있으며,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됨
  -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담고 있음
  - 기초적인 개발 수요 충족을 포함하여 사회, 경제, 환경을 아우르는 모든 분야의 균형적 발전에 초점
  - 포용성의 측면에서 SDGs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고(leave no one behind), 모든 지역 및 계층이 개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맞추고 있음

## 4. 국가사회발전 모델의 전환: 중첩모델

각 영역별 발전 개념의 수립과 중첩모델 구성: **국제공헌영역**

- 중첩모델의 각 영역(사회-경제-환경)과 국제공헌(협력)과의 관계
  - 1) 사회영역 측면에서의 국제공헌
    - 각종 협약의 참여
  - 2) 경제영역 측면에서의 국제공헌
    - 국제수준에서의 경제통합
  - 3) 환경영역 측면에서의 국제공헌
    -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노력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SESSION 01 | ESG와 지속가능한 사회

## ESG와 국제정치

이태동(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ESG와 국제정치와 기후적응

연세대학교 언더우드특훈교수 정치외교학과  
이태동 교수

2024.6.7

## 1. ESG 국제정치의 부상

- 1. ESG 국제정치의 부상
- 2. ESG 국제정치의 이슈와 쟁점
- 3. 국제 사회의 ESG 대응
- 4. ESG와 기후적응
- 5. 한국의 과제

###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

- SDGs와 ESG 활동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SDGs 달성을 위한 기업과 자본 시장에서의 노력이 상당 부분 ESG에 반영됨

SDGs	ESG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향	
기업 부문 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범세계적 경제의 지속가능성 논의 지향	지속가능성 개념을 기업이나 투자자 등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 집단에 초점

- 유엔 공식회의록 등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시행함. 빈도, 연관어 분석 등을 시계 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요 어젠다 동향을 과학적으로 파악함
- 2030 Agenda 제67조: → 사회의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활동 장려

*"Private business activity, investment and innovation are major drivers of productivity, inclusive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 1. ESG 국제정치의 부상

1. ESG 국제정치의 부상

2. ESG 국제정치의 이슈와 쟁점

3. 국제 사회의 ESG 대응

4. ESG와 기후적응

5. 한국의 과제

### ■민간 기업 역할의 중요성 증가

- ESG는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가치를 의미  
→ 기존의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업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 반영
- 국제사회에서의 기업 역할 논의 흐름
  -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세계경제포럼(1999)에서 UN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기업에 사회적 책임 이행 참여 요청
  -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2005)은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의 ESG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활동을 중요 고려 사항으로 둘으로써 재무 성과 고착화를 완화하고 ESG 활동을 촉진시키겠다는 구상임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CEO 래리 핑크가 2020년 투자자에게 보낸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내용의 연례 서한으로 ESG 개념이 급확산됨

## 1. ESG 국제정치의 부상

1. ESG 국제정치의 부상

2. ESG 국제정치의 이슈와 쟁점

3. 국제 사회의 ESG 대응

4. ESG와 기후적응

5. 한국의 과제

### ■ESG의 국제적 확산

-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해 투자자침이나 기업경영 이념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차원에서도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대한 배경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한계, 국가와 시장의 역할분담 관계 재설정의 필요성에서 나옴
- 유럽 국가, 미국, 일본, 중국, 인도,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기업의 ESG 활동을 촉진시키거나 ESG의 방향을 고려한 다방면의 정책을 계획하고 이행하고 있음
- 여러 국가들의 조치는 국제 교류, 무역 등을 통해 국제관계에서도 영향을 줌
- 국제 무역 계약에서 ESG를 포함시켜 리스크 완화 전략으로 활용하는 국가 증가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유럽 연합과 중국은 국제 무역 규칙 위반에 대한 우려 표명
- 국가 간 분쟁과 에너지 상호의존관계에 따른 에너지 취약성 문제



## 2. ESG 국제정치의 이슈와 쟁점

1. ESG 국제정치의 부상

2. ESG 국제정치의 이슈와 쟁점

3. 국제사회의 ESG 대응

4. ESG와 기후적응

5. 한국의 과제

### ■ 국제정치와 ESG

- 미중 관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제적-군사적 분쟁은 세계화에 엮인 비즈니스 모델을 특히 적대적인 지정학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게 함 → 기술, 금융 서비스, 주요 산업 부문의 무역 전쟁 및 금융 및 지정학적 조치의 표면화
- 지정학적 요소가 ESG 확산을 저지시키기도 함
  - 녹색 기술에 필요한 희토류 같은 자원의 수요 증가는 지정학적 마찰의 대상이 되기도 함.
  - 글로벌 공급망의 정치경제 (미중 경쟁과 경제안보)
  - 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은 녹색 경제를 이행하기 어려운 국가에게 보호 무역주의로 간주되기도 함



## 3. 국제사회의 ESG 대응

1. ESG 국제정치의 부상

2. ESG 국제정치의 이슈와 쟁점

3. 국제사회의 ESG 대응

4. ESG와 기후적응

5. 한국의 과제

### ■ ESG 국제 표준화: TCFD

-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는 기업과 금융 기관이 투자자, 주주, 대중에게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더 잘 알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장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조직임
- TCFD 권고사항은 자발적 공개 가이드라인으로 시작되었지만 유럽연합,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많은 관할권에서 빠르게 의무 규제 프레임워크가 되고 있음

국가	TCFD 단계	시기	담당부서
호주	의무화	2023년 6월	호주 정부 재무부
캐나다	의무화	2022년 10월	캐나다 증권관리국(CSA)
EU	의무화	2022년 12월	EU 의회와 이사회
홍콩	권고화	2023년 8월	홍콩 금융관리국
일본	의무화	2023년 1월	일본 금융청
뉴질랜드	의무화	2022년 11월	기업혁신고용부, 환경부
싱가포르	의무화	2023년 7월	회계 및 기업 규제 당국과 싱가포르 거래소 규제 당국
스위스	의무화, 조례확정	2022년 11월	스위스 연방 평의회
태국	의무화	2023년 2월	태국은행

TCFD 4대 영역별 세부 공시 항목

영역	세부 공시 항목
거버넌스	a)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b)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영진의 역할
전략	a) 기업이 지향하는 단·중·장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 b)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와 기회가 기업의 사업과 전략적 계획에 미치는 영향 c) 2°C 시나리오를 포함해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기업 전략의 회복탄력성
리스크 관리	a)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 b)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 c) 기후변화 리스크 식별 평가·관리 절차가 기업의 전자 리스크 관리에 통합되는 방식
지표·목표	a) 기업의 전략과 리스크 관리 절차에 따라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평가에 사용한 지표 b)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가능 시 3까지) 및 관련 리스크 c) 기후변화 리스크와 기회,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설정한 목표

### 3. 국제사회의 ESG 대응

1. ESG 국제정치의 부상

2. ESG 국제정치의 이슈와 쟁점

3. 국제 사회의 ESG 대응

4. ESG와 기후적응

5. 한국의 과제

#### ■ 'E'SG

- 137개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파리협약에 근거하여 탄소중립선언에 동참하였으며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세 등의 시장기반 정책과 더불어 직접규제 등의 비시장 정책을 활용
-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Regulation)
  - EU에서 2020년 7월에 발효되었으며, 환경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고 판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세계 최초로 제정
  - 이를 통해 구체적인 지속가능성 정책 수립 가능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탄소중립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
  - 느슨한 환경 규제의 개도국으로 기업들이 생산기반을 옮겨 규제를 회피하는 탄소 누출 현상 예방
  - 탄소배출 무역 산업과 국가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

### 3. 국제사회의 ESG 대응

1. ESG 국제정치의 부상

2. ESG 국제정치의 이슈와 쟁점

3. 국제 사회의 ESG 대응

4. ESG와 기후적응

5. 한국의 과제

#### ■ E'S'G

- 사회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과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중시
- [미국] 지역사회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 저소득 지역민, 소상공인, 소기업을 위한 주택 건설에 자금 지원
- [일본] Diversity 2.0 행동지침
- 다양성 경영: 서로 다른 감성, 능력, 가치관, 경험 등을 가진 다양한 인재 확보해 혁신 촉진, 기업 가치 창출

#### ■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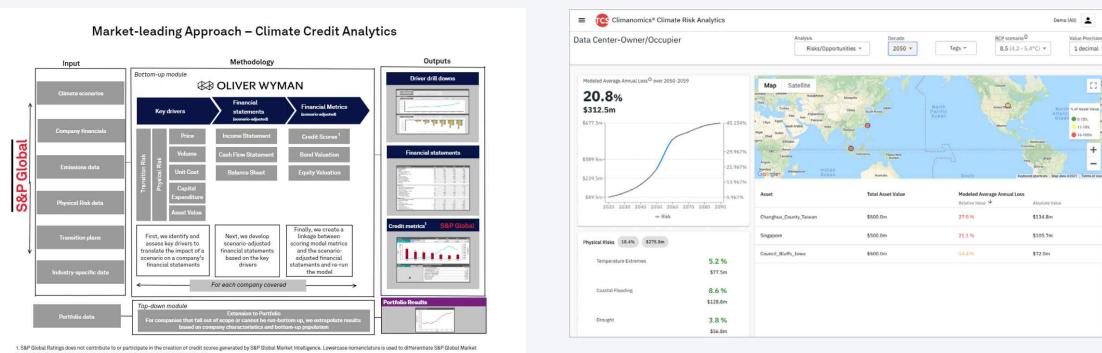
- [일본] 기업지배구조코드 공표
  - 기본 원칙: 주주의 권리, 평등성의 확보, 주주 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적절한 정보공시 및 투명성 확보, 이사회 등의 책무, 주주와의 대화
  - 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경제부흥 전략으로 채택함으로써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 4. ESG와 기후적응

1. ESG 국제정치의 부상
2. ESG 국제정치의 이슈와 쟁점
3. 국제사회의 ESG 대응
- 4. ESG와 기후적응**
5. 한국의 과제

### ■ 기업 기후적응 리스크 분석 방법론

- 글로벌 기후변화로 재해 및 피해가 확산되면서 기후변화 복원력 및 적응 필요성 대두화
- Climate Credit Analytics (기후 신용 분석):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의 신용 분석 위험 모델 및 산업별 데이터 세트와 Oliver Wyman의 기후 시나리오 및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기후 시나리오가 반영된 기업 신용점수와 재무 제표를 산출하는 과정 진행



## 4. ESG와 기후적응

1. ESG 국제정치의 부상
2. ESG 국제정치의 이슈와 쟁점
3. 국제사회의 ESG 대응
- 4. ESG와 기후적응**
5. 한국의 과제

### ■ 기업 기후적응 리스크 분석 방법론

- Climanomics Climate risk analytics platform
- 물리적 자산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후 위험의 재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포트폴리오 수준까지 집계하는 기후 위험 분석 플랫폼임
- 분석은 2100년까지의 시간 범위 내에서 4가지 배출 시나리오에 걸쳐 이뤄지며 지구상 모든 위치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위험 관리,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적 의사결정, 규정 준수 및 보고 등의 업무를 도움Climate Credit Analytics (기후 신용 분석)
- 기후적응 리빙랩R&D
- SK, 포스코, LG화학 등과 함께 기업의 기후 적응 솔루션 공동창조
- 물부족, 홍수, 폭설, 폭염 대비
- 기업 기후적응 시장 가치 창출



### 5. 한국의 과제

1. ESG 국제정책  
치의 부상

2. ESG 국제정  
치의 이슈와 쟁점

3. 국제 사회의  
ESG 대응

4. ESG와 기후  
적응

5. 한국의 과제

#### ■ 한국 기업의 ESG 활동 평가

- 한국 기업들은 ESG 활동과 관심이 증가시키고 있으나, 대외적 요인에 반응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ESG 활동을 진행해옴 → 한국 기업이 글로벌적 ESG 강화 추세 속에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E) 탄소배출 저감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기후적응 고려 필요
- 현재까지 3차년도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 구축 및 추진되어 왔으나, 기후변화 적응은 완화와 달리 정량적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적응목표는 일종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응노력의 도달점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기에 그간의 성과를 수치로써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만, K-ESG 가이드라인에 기후적응 내용 미포함된 것을 고려했을 때 기후적응 정책과 감축 정책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 한국 정부의 역할

- ESG 정책 가운데 일부는 중복적이거나 상충적인 면이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이나 정책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 → 한국적 현실 반영: 국가/외교적 차원에서 대응, 기후 금융 위험 규제 및 감독, 취약한 지역 불균형 및 중소기업 고려
- ESG 공시 중 기후 적응 공시 항목 추가 개발

### 참고자료

정부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한상범 권세훈 임상균,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ODA 정책연구 21-01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publication>.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23/740087/IPOL\\_IDA%282023%29740087\\_EN.pdf](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IDAN/2023/740087/IPOL_IDA%282023%29740087_EN.pdf)

<https://www.chinadaily.com.cn/a/202403/28/WS66056b0da31082fc043bf434.html>

<https://assets.kpmg.com/content/dam/kpmg/uk/pdf/2021/12/geopolitical-risk.pdf>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TheClimateService now a part of S&P Global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SESSION 02 | 한국 사회의 ESG 대응과 과제

## 한국형 ESG 공시기준과 주요 이슈

한승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한국형 ESG 공시기준과 주요 이슈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움

한승수(고려대)

## 글로벌 ESG 공시의 전개상황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통합보고(Integrated Reporting) 시스템 등장
  -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로부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이행됨에 따라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Value) 혹은 복리(Welfare) 증대를 도모
  - 재무제표만으로 기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가치 증대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
  - 재무적인 성과와 비재무적인 ESG성과를 포함한 통합보고(Integrated Reporting)가 주요한 의제로 등장

## 자율공시 vs. 의무공시

- 자율공시 정보의 장점 및 한계점
  - 자율공시 정보는 공시량 및 공시 범위에 있어서 장점이 있음
  - 하지만 정보의 중립성(Neutrality),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 비교 가능성(Comparability), 일관성(Consistency) 등에서 문제점을 노정
- 의무공시 제도의 도입 추진
  - 기업 공시정보 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시정보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화
  - 기존 난립되어 있는 다수의 기준 제정 기관들(예: GRI, SASB, IIRC, TCFD, CDSB 등)을 통합, 정리하여 표준화된 국제 공시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

2

## ESG 공시기준 제정기구의 형성

- IFRS 재단은 2021년 11월 3일 COP26에서 국제표준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위한 국제지속가능성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을 발표
  - 초대 ISSB 위원장으로 엠마뉴엘 파베르(다농 전 대표이사) 선임
  - IFRS재단은 기존의 기후관련 공시기준 제정기구인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 Board)와 VRF(Value Reporting Foundation: SASB+IIRC)와의 합병을 통해 각 기구의 핵심역량을 사용
  - IFRS재단은 기존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협력약정을 체결

3



## 공시기준 제정기구 및 지배구조



4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 IFRS 재단은 TRWG(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가 개발한 기후 및 일반요구사항 기준시안(Prototype)을 토대로 최초의 기준서 S1과 S2 발표 (2023 6월)
  - **IFRS S1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기업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전반적인 요구사항 제시
  - **IFRS S2 기후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 기업이 기후관련 정보를 식별(Identification), 측정(Measurement), 공시(Disclosure)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

5

## IFRS S1 일반 요구사항

- 지속가능성관련 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 제시
- 기업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risk)과 기회(opportunities)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
  - **핵심 요소:**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 **보고 실체:** 재무보고의 보고 실체와 동일(연결실체 기준)
  - **연계성:** 다양한 지속가능성 정보간, 재무제표 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 간의 연계성에 대한 정보 공시
  - **보고 빈도:** 원칙적으로 재무보고와 동시에 동일한 기간 단위로 동일한 체계 내에서 보고 (1년 유예기간 허용)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최초의 회계연도부터 적용

6

## IFRS S2 기후관련 공시

- 기후관련 기회(opportunities)-위험(risks)에 대하여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사용자에게 유용한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핵심 요소:** 기후관련 위험-기회와 관련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산업전반 지표, 산업기반 지표, 기타 성과지표, 기후관련 목표 등)
  - **산업전반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관련 기회, 자본배치, 내부 탄소가격 등(Scope 3 공시 시행일 1년 유예)
  - **산업기반 지표:** 특정 산업별 세부 지표

7



## ISSB 공시기준

- IASB의 IFRS 회계기준과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으로 구성
-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투자자 중심**의 정보공시 목적
- 공시기준(Disclosure Standards)라는 명칭을 통해 기존의 다중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속가능성보고(Sustainability Report) 기준과 명확히 구분됨을 알 수 있음
- TRWG에서 4가지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
  1. 투자자 중심(Investor focus): Outside-In View
  2. 환경-기후에 집중(Sustainability scope, prioritizing climate)
  3. 국제기준선 접근법(Global baseline)
  4. 기존 프레임워크를 활용(Build on existing frameworks)

8

## ISSB 공시기준의 대상 및 성격

- ISSB 공시기준은
  - 1)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 2)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임

주요 정보이용자	기준의 성격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	지속가능성 보고
	투자자		
다중 이해관계자		ISSB 기준	현행 지속가능성보고서

출처: 전규안, 정준희. 2022. 국내지속가능성 공시기준제정을 위한 정책제언

9

## ISSB 공시기준의 대상 및 보고 체계



출처: 이웅희, 윤나영. 2021. 지속가능성보고의 현황: 국제표준화를 앞두고

10

## 핵심적 특징 및 요소

-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일부로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의 현금흐름이나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
- 보고기업의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는 네 가지 핵심요소에 따라 공시
  - **거버넌스**: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통제 및 절차
  - **전략**: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법
  - **위험관리**: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및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프로세스
  - **지표 및 목표**: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기업의 성과

11



## ISSB의 중요성(Materiality) 평가

- GRI의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평가 중 재무적 중요성인 Outside-In View 중심의 공시

### THE OUTSIDE-IN VIEW

#### FINANCIAL MATERIALITY

To the extent necessary for an understanding of the company's development, performance and position...



Primary audience:  
INVESTORS

RECOMMENDATIONS OF THE TCFD

### THE INSIDE-OUT VIEW

#### ENVIRONMENTAL & SOCIAL MATERIALITY

...and impact of its activities



Primary audience:  
CONSUMERS, CIVIL SOCIETY, EMPLOYEES,  
INVESTORS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12

## 글로벌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동향

국가	제정기구	보고기준	기준발표	공시채널	적용대상	보고시기	인증
EU	EFRAG	ESRS	1 <sup>st</sup> Set 채택 23. 7	법정공시	EU 대기업, 상장 SME 비 EU 기업	FY24	제한적 인증
미국	SEC	최종안 승인	24. 3	법정공시	모든 상장기업	FY25	제한적 인증
영국	DBT	UK SDS	24. 7	법정공시	-	FY25	-
캐나다	CSSB	ISSB(ED)	24. 4Q	법정공시	증권 발행자	FY25	-
호주	AASB	ISSB(ED)	24. 6	법정공시	연차보고서 제출기업	FY25	제한적 인증
일본	SSBJ	ISSB(ED)	25. 3	법정공시	모든 프라임 상장기업	FY26	인증
중국	본토 거래소	ED	미정	거래소 공시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	FY25	선택
싱가포르	SGX	ISSB(ED)	미정	거래소 공시	상장기업 대형 비상장사	FY25	제한적 인증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www.kash.or.kr](http://www.kash.or.kr)

## 글로벌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동향(계속)

국가	주제	보고기업	보고시기	중요성 판단	SCOPE 3 배출량	산업기반 공시	기간범위
EU	ESG	재무제표 보고기업	재무제표 동시보고	이중 중요성	요구 (<750명 첫해 면제)	요구	단기 < 1년 장기 > 5년
미국	E			재무적 중요성	요구 X	요구 X	단기 < 1년 장기 > 1년
영국	E			-	-	-	-
캐나다	ESG			재무적 중요성	요구 (2년까지 면제)	요구	미제시
호주	E			재무적 중요성	요구 (첫해 면제)	요구 X	미제시
일본	ESG			재무적 중요성	요구 (첫해 면제)	요구	미제시
중국	ESG			이중 중요성	선택	선택	미제시
싱가포르	E			재무적 중요성	요구 (첫해 면제)	요구	미제시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www.kash.or.kr](http://www.kash.or.kr)

## 글로벌 공시제도 및 기준제정 동향(계속)

-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
- 대형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의무공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 대부분의 국가들이 FY25년을 최초 보고시기로 공표
- EU, 미국, 중국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가 IASS 기준을 토대로 기준을 제정 중이며 24년 말 혹은 25년 초 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FY25를 최초 보고시기로 공표
- 공개초안 발표국가들 대부분 연결실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와 동시에 연차보고서 내에 함께 공시하도록 요구 (단 중국과 싱가포르는 동시 보고하되 별도 보고서로 공시)
- 미국 제외한 모든 국가가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 (첫해 경과규정 제공, 중국의 경우 의무 아닌 선택 규정)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www.kash.or.kr](http://www.kash.or.kr)



## KSSB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ED)

- 우리나라가 금년 4월 30일 공개초안(ED) 발표
-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투자자의 정보요구가 증대하여 **투자 의사 결정에 유용한** 비교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공시기준이 필요
- ISSB가 제정한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 S2)를 기준선으로 하되 **국제정합성** 및 국내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
- 공시기준의 구조: 의무공시 사항(제1호, 제2호)과 선택공시 사항(제101호)으로 구성
  - 제1호(일반사항)와 제2호(기후관련 공시사항)는 S1과 S2를 기초로 제정
  - 제101호는 정책목표를 고려한 추가공시 사항으로 선택공시 사항임

16

## KSSB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ED) (계속)

- 기후관련 주제는 의무 공시하되 기후 외 다른 주제들에 대하여는 기업이 선택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
-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연결기준으로 지배기업 뿐 아니라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
- Scope 1, 2, 3 온실가스 절대 총 배출량은 Scope 1, 2, 3 분리공시. 단 Scope 3의 경우 공시의 의무화 여부와 의무화 시기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
- 공시기준 공개초안(ED)인 만큼 4개월의 의견조회 기간(2024년 5.1-8.31)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반영될 예정

17

## KSSB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원칙

1. **정보유용성:**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에게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높은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제공
2. **국제적합성:** 세계 각국의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한 IASSB 기준을 시작점으로 공시기준을 제정함으로써,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수출 기업들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
3. **기업의 수용가능성:**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 및 준비 상황을 감안하여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18

## KSSB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ED) 주요 내용

- **기후의무 공시(제1호):**
  - 기후관련 위험과 기회를 공시
  - 기후관련 사항은 기업의 재무보고에 직접적 영향
  -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보다 정량화 용이하며 공시부담이 적음
  - 기후 이외의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은 선택하여 공시
- **보고기업(제1호):**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한 연결실체
- **온실가스배출량(제2호):** 온실가스 측정의 어려움을 감안, 국제기준인 GHG 프로토콜 뿐 아니라 국내에서 요구하는 다른 측정방법도 허용(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여부, 시기 등은 추후 결정)
- **산업기반지표(제2호):** 공통적으로 적용할 산업별 기준이 없어 공시여부를 기업이 선택
- **추가 공시사항(제101호):** 정책목표를 고려한 추가공시(선택)

19



## KSSB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ED) 주요 내용

- 기후관련 시나리오 분석: 기업들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 요인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해야 함
- 시나리오 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 수치로 공시
-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구분하여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기후관련 전략 및 목표 수립: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기업의 사업모형과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업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립, 관리, 공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0

## 공시관련 주요 이슈 1: 종속기업 정보공시

- 지속가능성관련 재무공시는 재무제표 보고 기업과 동일한 **연결실체** 기준으로 공시
  - 재무제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보고 실체가 동일한 경우 정보 유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 보고 범위가 제한될 경우 정보공시 회피로 기회주의적 행동(Washing)이 발생할 우려
- 하지만 종속기업이 많은 경우 지속가능성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많은 자원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종속기업 정보가 **재무적 중요성** 기준을 충족 못시키는 경우 공시정보에 포함시키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동일한 **연결실체** 기준으로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초기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요성의 기준을 활용하여 공시 초기에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21

## 공시관련 주요 이슈 2: 공시 범위의 모호성

- 지속가능성관련 재무공시는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 및 미래 예상 영향을 공시해야 함
- 기준서에서 가치사슬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 기준서 정의(부록 A. 용어의 정의):

### 가치사슬

보고기업의 사업모형 및 보고기업이 운영되는 외부환경과 관련된 상호작용, 자원 및 관계의 전체 범위

- 보고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직접 측정 방법과 추정방법이 허용
-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과도한 원거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가치사슬의 범위를 결정할 것을 권고

22

## 공시관련 주요 이슈 2: 공시 범위의 모호성(계속)

- 동일 산업의 유사한 사업모형을 가진 기업들도 가치사슬 범위에 대한 상이한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어 공시정보의 유용성(신뢰성,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
- 기업의 입장에서 공시 범위가 매 보고기간 변동될 수 있어 공시부서의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관련 기관에서 산업기반의 공시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표준화된 지표들의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수용가능성과 정보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음

23



## 공시관련 주요 이슈 3: 정보 획득 및 측정 인프라 부족

- 연결실체 수준에서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한 공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속기업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 정보를 지배기업의 공시정보 시스템과 연동시켜야 함
-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여러 클라이언트들의 요청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시스템 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가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
- 해외에서는 탄소배출 데이터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예: Climatiq, Persefoni, Planetly, Carbon Analytics 등)
- 국내에도 공시정보 생산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낮은 비용으로 획득하고 이를 공시에 요구되는 측정치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24

## 공시관련 주요 이슈 4: 정보 공시 시점

- 연결실체 기준으로 공시하는 경우:
  -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할 경우 재무제표 감사와 더불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검증도 1분기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탄소배출량을 포함한 여러 지속가능성관련 정보들은 3월말 공시전까지 확정, 검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Scope 3 까지 보고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받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생산 및 검증 시스템의 타임라인에 구조적 변경이 필요
- 현재 평균적인 한국 기업 공시담당부서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력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공시품질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음

25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SESSION 02 | 한국 사회의 ESG 대응과 과제

##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부의 EGS경영

채원호(카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부의 ESG경영<sup>1)</sup>

채원호(가톨릭대학교)

### I. 머리말

2004년 유엔글로벌컴팩트가 'ESG'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국내외에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자본시장에서 ESG가 화두가 되고 있다. ESG 경영이 글로벌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ESG 관련 위원회를 속속 설치하고 있다. 정부(기획재정부)도 ESG, 사회적 가치 등 민간과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2021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sup>2)</sup>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기재부는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판단과 평가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공공기관 정보가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오를 통해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ESG 경영이 세계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유가증권)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이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코스피 상장사 8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SG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15%(123곳)로 조사됐다. 이 중 대부분(93곳)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다. 이는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69곳 중 55% 수준으로, 아직 기업 규모별로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차가 커다. 이들 기업의 83.9%(78곳)가 올해 위원회를 신설·개편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23곳, 2분기 36곳, 3분기 19곳이다. 신규 설치한 기업은 71곳, 기존 위원회를 ESG에 맞게 개편한 기업은 22곳으로 조사됐다(뉴시스 2021. 10. 20. 10:23 기사). 기업 외에 지자체에도 ESG경영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 민간 연구소는 2021년 15개 광역 지자체(제주, 세종 제외)와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45개 지표에 걸쳐 처음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도 했다(ESG행복경제연구소 홈페이지).

ESG 경영은 후술하듯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진화한 개념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전지구적이고 총체적인 사회발전에 관한 문제의식이자 담론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하며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발전을 지향한다.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을 낭비하거나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실천 패러다임이 ESG로 진화한 개념적 발전경로를 살펴보고,

- 1) 이 글은 필자의 논문 채원호(2022) 지방자치단체 ESG경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시 자치구 ESG 적용 전략 간 우선순위 분석. 「한국도시행정학보」, 35(4):1-18.을 보완한 것임.
- 2) 2007년부터 공운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영공시는 경영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All Public Information In-One)을 통해 대국민 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2월 7일 기재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시항목은 지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07년 27개 → '09년 33개 → '11년 34개 → '14년 37개 → '16년 39개 → '21년 41개

사회적, 환경적 책무 이행기제로서 거버넌스의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지자체(서울시 자치구)의 ESG경영에 대한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AHP 방법론을 활용해 지자체의 ESG 적용 전략 간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지속가능발전과 ESG 경영

###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속가능발전이란 본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공통이념으로 등장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이는 환경과 발전을 양립시키는 것으로 환경보전을 고려한 발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입각한 것이다. 즉, 인구증가와 경제의 글로벌화에 수반되는 전 지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1987년 UN에 의해 구성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우리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발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으로 2개의 선언, 1개의 성명, 그리고 2개의 협약을 채택하였고, 보다 더 효과적인 지구환경보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적인 내용의 '리우선언'과 리우선언 이행을 위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 강령으로 정책목표와 지침을 제시한 '의제21'(Agenda 21)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6년 '의제 21'을 국가실천계획으로 수립하여 UN에 제출하였고, 관계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수행할 범정부적 기구로서 2000년 9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 '의제21'의 국가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5년 9월 25일 유엔은 향후 15년 간의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침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2015년까지의 밀레니엄 발전목표(MDGs)를 계승·발전시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포함되어 있다. SDGs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과제를 폭넓게 망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와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경제) 등 17가지 주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다.

&lt;그림2-1&gt;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UN SDGs)



169개 세부목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193개국이 모두 참여한 것이라 17개 목표별로 각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세부목표가 서로 다를 수 있다. 17개 목표는 크게 5P(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로 분류되며, 230여 개의 평가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 2. ESG의 등장 배경 및 개념

본래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환경과 발전의 양립에서 비롯되었지만,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보듯이 사회적 책임 의제까지를 망라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일본의 나카소네 정권 등 신보수주의 등장 이후 1980년대에 등장한 신자유주의 흐름은 정부를 위시한 공공부문에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 패러다임을 등장시켰다. 시장원리와 효율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흐름과 더불어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국적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사회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한 국가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던 기업 활동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실체로서 기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특히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공공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기업에 일정 부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였다(채원호, 2011). 공공부문에

서 시장원리와 효율성이 강조되는 흐름과는 다르게 민간부문에는 기업의 공공성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필요한 경우 CSR)과 윤리경영이 부각되었다. UN, OECD, ISO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조약·가이드라인·규범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기업 내부에서도 지속가능 발전이 기업경영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기업들은 스스로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도 경영 환경의 변화로 이윤극대화만을 표방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기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며, 적정 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최근 기업의 환경적 책임이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업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사회성(社會性)은 수익성이나 안전성과 더불어 기업을 평가하는 척도로 이미 활용되어 온 개념이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시장질서와 법·제도의 준수는 물론이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요구되는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부에서는 종업원·소비자의 권리 보호, 지배구조개선, 주주권한의 보장, 회계 및 감사의 투명성 확보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압력을 받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법·제도준수,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공헌활동, 인권보장, 반부패 활동 등 시민사회의 압력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에는 내·외부적으로 이해관계자나 시민사회를 통해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들을 무시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에게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엔론, 나이키를 비롯한 많은 사례들에서 그러한 압력들은 노조파업, 주주집단소송, 사회적 책임 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불매운동 등 구체화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經濟同友會, 2003).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은 환경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실천을 위한 이행기제로서 거버넌스가 함께 강조되면서 ESG경영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이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은 단기적·정량적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던 데 반해, 전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한 최근에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ESG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용어인 ‘지속가능성’에 나타나 있듯이, ESG는 기업가치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보다 덜하다고 볼 수는 없다. 환경,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전환 하에서, ESG는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는 핵심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및 이해관계자 요구 강화로 기업은 기존의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 추진 및 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한 가치 창출을 넘어 기업의 운영과 사업 활동 전반에 ESG 요소를 광범위하게 통합하는 가장 고도화된 지속가능성 통합 경영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백인규, 2022). 다음의 그림은 ESG 경영 패러다임이 등장하기까지의 진화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lt;그림2-2&gt; ESG 경영 패러다임의 등장



자료: 백인규(2022: 8)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 기업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과 법령준수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면 기업의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이하 필요한 경우 CSV)은 기업과 사회의 공유가치 창출을 의미한다. 공유가치창출(CSV)은 기업이 당면한 사회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수익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전략을 말한다.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교수가 2011년 1월 하버드 비즈니스리뷰(HBR)에서 "자본주의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How to Fix Capitalism)"란 논문을 발표하며 주창한 개념이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소극적 가치 창출 형태의 CSR과 달리, CSV는 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기업 본연의 책무로 설정한다. 현대 소비자들은 제품의 기능적 속성뿐만 아니라 제품이 담고 있는 가치와 의미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공익적·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은 그 기업의 월등한 경쟁력이 된다. 기업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전략이다.

&lt;표 2-1&gt; 공유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교

CSR	CSV
가치: 선행(doing good)	가치: 투입비용 대비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시민의식, 자선활동, 지속가능성	기업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가치 창출
자유재량, 혹은 외부 압력에 대한 반응	경쟁의 필수 요소
이윤 극대화와 관계없는 활동이 이루어짐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필수 요소
외부 요구나 개인적 취향에 따라 활동내용이 정해짐	기업별 상황과 내부 요인에 따라 활동내용이 정해짐
다른 기업 활동이나 CSR 예산 문제로 영향력이 제한됨	CSV를 위해 기업 전체 예산 재편성
사례: 공정 구매	사례: 조달 시스템 자체를 혁신해서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량 증대

주: 양측 모두 관련 법규와 윤리 기준을 준수하고 기업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줄인다는 원칙을 따른다고 가정함.

자료: 김태영(2022).

비재무적 정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임옥빈, 2019)에 따르면, ESG 가운데 환경등급(E)은 당기 및 차기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등급(S), 지배구조등급(G)은 당기 및 차기의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ESG 합산 점수에서도 당기 및 차기의 기업가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동 연구는 환경등급(E)을 제외하고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유용한 정보임을 시사한다.

### 3. ESG의 규범화 진전과 공시 의무화

기업 입장에서 ESG 대응은 크게 두 가지 경영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ESG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ESG 성과를 시장에 공시하는 것이다.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ESG 요소가 기업의 투자수익이나 위험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가치 및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의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들 흐름을 배경으로 ESG 공시에 관한 논의도 촉발되었는데, EU는 2003년 회계현대화 지침(EU Account Modernization Directive 2003/51/EC)에서 연차보고서상 회사의 사업과 성과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경, 고용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공시하도록 하였다. 영국 역시 2000년대 초반 연기금에 ESG 정보공시를 처음 도입하였다. 특히, 2006년 UNPRI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련 6대원칙 등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가 추진된 바 있다.

2018년 EU는 ‘지속가능성장 재원조달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지속가능금융관련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ESG공시 규정, 분류체계 규정, 저탄소 벤치마크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한 영국에서는 표준화된 기후변화 관련 공시체계 도입을 위해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가 제안한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탄소배출량 측정 및 목표 설정에 관한 권고사항을 평가하고, 재무보고서 등에 공개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들은 20개국으로, 유럽은 2021년 3월부터 연기금을 시작으로 은행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공시 의무를 확대하도록 했고, 영국은 모든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국은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 정보를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정하였다. 더불어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에서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크게 3단계 접근으로 1단계(현재~2025년)는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단계(2025~2030년)는 일정 규모 이상(예: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게 ESG 공시를 의무화하였으며, 3단계(2030년 이후)에서는 전 코스피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였다.

ESG 요소 중 글로벌 차원의 주요 고려 사항인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마련을 위해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sup>3)</sup>에 기후변화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FSB는 2015년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를 위한 협의체)를 설립했다. TCFD는 금융기업·비금융기업들로 하여금 환경 관련 일관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 및 이해관계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에게 지배구조, 투자전략, 위험관리, 탄소배출량 측정 및 목표 설정의 4개 부문을 보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후위험공시를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2021년 1월 기준 총 77개 국, 약 1,700 여개 기업·기관에서 TCFD에 대한 지지선언(Supporter)을 한 바 있다. 유럽의 가입 기관 수가 664개로 가장 많으며, 아시아의 경우 447개 기관이 가입했다.

#### 4. 지속가능발전과 책임윤리·담론윤리

과학 기술의 발달, 산업화 등은 인류에게 이제껏 불가능하였던 것을 실현하는 힘과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세계 대전, 핵전쟁의 위협, 생태계의 위기 등과 같은 인류 생존의 위기도 가져왔다. 그래서 인류는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되었다. 이제 인류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나 물질적 풍요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런 도덕적 숙고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행위와 그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즉, 오늘날 책임 윤리는 행위자의 자유, 권리와 의무의 대칭성<sup>4)</sup>에 근거한 책임 개념을 넘어서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미래 세대, 인간 이외의 존재 등으로 넓히고 있다(다음 백과).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3) FSB는 1999년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국제적 수준의 금융 감독을 위해 설립된 FSF(Financial Stability Forum, 금융안정포럼)가 확대·개편된 조직이다. 현재 25개국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및 감독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4) 권리와 의무의 대칭성 개념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의무를 수용해야 하며, 의무의 이행 정도에 따라 권리의 범위가 규정된다고 보는 견해다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을 낭비하거나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윤리 문제는 많은 경우 관련 당사자 간의 이익 관심이나 이해관계로 말미암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데, 전술한 지속가능성 개념은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생태윤리학자로 알려진 한스 요나스(H. Jonas)의 책임윤리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시사를 준다. 현대 과학기술이 철학적 성찰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홀히 되면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가 대두하게 된 것으로 본다면,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체의 존속에 대한 책임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나스의 책임윤리가 존재와 당위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형이상학을 요구하는 점은 성리학의 소이연(所以然), 소당연(所當然) 개념과도 닮아 있다. 주희는 리(理)를 사실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원리의 측면과 사회규범의 원리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사물물 모두 리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면 결국 세계에 작용하는 자연법칙에도 당위의 리가 있다는 의미이다. 요나스의 기본적인 입장은 약한 인간중심주의라 볼 수 있는데, 그는 전통적인 윤리관이 인간중심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자연과의 공존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환경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김은철·송성수, 2012). 이러한 의미에서 약한 인간중심주의는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주의가 가진 실천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러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함께 대화를 통하여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현대 과학 문명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철학과 과학이 분리되고 과학이 성도 영역별로 분절화하면서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학법칙과 도덕법칙의 통합이 필요한 것을 책임윤리로 본다면, 분절화된 합리성, 과학이성 간 통합이나 통섭이 필요한 것은 담론윤리로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담론윤리의 대표자인 하버마스에 따르면 도덕은 이성적인 존재들 사이의 상호 작용에 관한 규범의 체계이고, 이러한 규범은 이성적 존재들 간에 합의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공론장 담론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며 공공철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근래에 강조되고 있는 거버넌스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성적 대화와 합리적 설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로 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III. 책무 이행기제로서의 거버넌스

#### 1.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거버넌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5년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이다.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의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쓰고,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SDGs 이행상황을 총괄하는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SDGs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진보로 나아가고 있지만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차별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성별, 계층별, 지역별 격차와 특정 집단의 빈곤문제는 여전하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의 보존에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2022, 10).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기업들이 SDGs를 기반으로 투자, 솔루션 개발, 기업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SDGs를 기업 전략 및 활동에 연계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SDGs의 성공적인 달성을 기여할 수 있다.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은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보존을 담보하는 이행기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표 3-1> SDGs 목표의 주제별 분류

일반적 목표	빈곤과 기아 종식(1,2)과 불평등(10)		
영역별 목표 내용	사회발전 (3,4,5,11)	경제개발 (8,9,10,12)	환경 (6,7,13,14,15)
이행기제	책무성과 거버넌스(16)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17)	

오늘날 거버넌스의 개념의 등장은 현대 행정학이나 정부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20세기에 지속된 행정국가화의 경향이 약화하면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국가의 독점력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지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한 거버넌스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서 야기되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주인-대리인 사이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과 대리인이 주인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hidden knowledge) 발생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현상 등의 문제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과제로 대두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보면 각종 시민단체의 참여확대와 숙의제도가 발전하게 되었으며, 정책집행과정에서도 신공공관리론의 영향으로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외부위탁이나 시장주의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 발전과 함께 등장한 보이스(Voice)형 NGO는 대의민주주의를 교정·보완하는 기제로 주목받았으며, 서비스전달(Service Delivery)형 NGO는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기제로 주목받았다(채원호, 2022). 전술했듯이 유엔도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기제로서 책무성과 거버넌스,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시장(기업), 시민사회가 접촉면을 늘려가며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증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 2. ESG 경영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

기업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ESG를 적용하고 실천하는 구축전략에서 거버넌스 이슈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기업이나 기관별로 다를 것이다. 그러나 거버넌스가 환경적, 사

회적 책무를 담보하는 기제로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ESG 활동의 주요 과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과제 순위는 <표 3-2>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ESG 활동 가운데 주요한 과제 순위는 ① 기업지배구조(71.7%) ② 기후변화(63.6%) ③ 다양성(43.2%)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구조(G), 환경(E), 사회(S) 부문의 대표적 이슈 가운데 전년보다 응답 비율이 크게 상승한 과제는 기후변화(+9.7%), 건강과 안전(+8.0%)으로, 기후변화 관련과 코로나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위 이내에 든 주요 과제들 가운데 기업지배구조 외에 다양성(diversity)이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의 과제도 포함되어 있어 거버넌스 관련 과제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일본 기업의 ESG 활동에서의 상위 10대 과제(총 25개 항목)

2020년 순위	2019년 순위	주요 과제	2020년	2019년	증감
1	1	기업지배구조	71.7%	70.8%	+0.9
2	2	기후변화	63.6%	53.9%	+9.7
3	3	다양성(diversity)	43.2%	44.6%	-0.8
4	5	건강과 안전	40.6%	32.6%	+8.0
5	4	인권과 지역사회	37.0%	34.7%	+2.3
6	6	제품서비스의 안전	30.7%	30.8%	-0.1
7	7	위험관리	28.6%	29.8%	-1.2
8	9	공급망	23.5%	20.2%	+3.3
9	8	정보 공시	20.4%	23.3%	-2.9
10	10	이사회 구성·평가	17.1%	16.2%	+0.9

주: 표의 증감에서 빨간색은 전년대비 ‘상승’한 항목임.

자료: GPIF. 2021. 「第6回 機関投資家のステュワードシップ活動に関する上場企業向けアンケート集計結果」, 코트라(2021, 64)에서 재인용.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UN, G20 및 EU 등에서의 ESG 대응 중시 및 ESG투자 확대라는 국제 사회 흐름의 국내 적용, 글로벌 ESG투자의 유치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첫째, 「일본부흥전략」과 같은 국가 성장전략을 통해 ESG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을 비롯한 각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부문별 가이드라인은 유럽과 같은 의무화가 아닌 기업이 참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명칭이 가이드라인, 가이던스, 실무지침 등의 형태이다. 셋째, ESG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주로 G 및 E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 및 사회에의 대응(ES through G)을 중시하는 한편, 세계적인 조류로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E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거버넌스(G) 측면에서 유럽과 미국은 리스크 억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일본은 경영자원의 집약을 통한 자본생산성(ROE)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코트라, 2021). 이처럼 일본의 경우 유럽과 다소 다른 맥락이긴 하나 거버넌스 이슈를 중요시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술했듯이 환경적, 사회적 책무의 이행기제로서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 IV. 지자체 ESG 진단 및 적용전략 분석

### 1. 조사설계

전술한 이론적 논의 등을 토대로 여기서는 지자체의 ESG 경영에 대한 인식에 및 ESG 적용 전략 간 우선순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 자치구가 인식하는 ESG 적용 전략방안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AHP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구 청장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e-mail을 통해 했으며, 조사시점은 2021년 10월 한 달 동안이다.

설문은 개인 수준의 인식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의 입장에서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자치구 당 1개의 설문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응답은 유관부서에서 토의를 거쳐 응답하도록 하였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에서 설문에 응답하였다. 회수된 21개 자치구의 설문지 21부를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은 AHP를 통한 적용전략 분석 외에 ESG 추진 항목에 대한 일반 설문도 병행하여 조사했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은 Saaty(1982, 198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문제 해결형 합의형성 모델로 불확실성이 높거나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요구할 때 쓰는 의사결정 기법이다. AHP 분석절차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계층구조 설정(structuring), 가중치 산정 및 일관성 검증, 평점(Measurement) 및 환류과정을 거치게 된다. 계층구조는 최상위의 최종목표, 최종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기준(제1수준), 평가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평가기준(제2수준)으로 계층을 구성한다. 가중치 산정 및 일관성 검증 단계에서는 제1수준인 평가기준 간의 상대적 중요도와 제2수준인 세부 평가기준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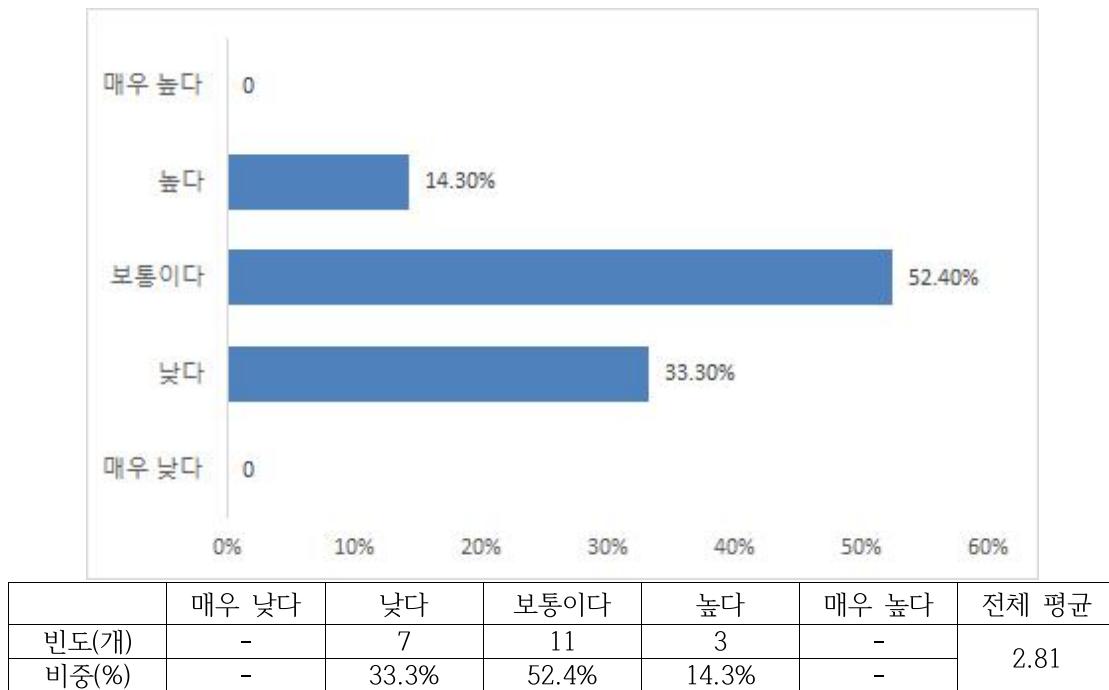
### 2 . ESG 추진 항목별 진단

#### 1) 지자체의 ESG에 대한 이해도

지자체 ESG 추진 항목별 진단에 앞서, 서울시 자치구의 ESG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ESG에 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 분석결과, ‘낮다’고 응답한 자치구가 7개(33.3%), ‘보통’이라고 응답한 자치구가 11개(52.4%), ‘높다’고 응답한 자치구가 3개(14.3%)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ESG에 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보기 어려우며, 전체 평균 2.81점으로 보통 수준(3점)보다 약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lt;그림 3-1&gt; 서울시 자치구의 ESG 이해도

&lt;그림 3-1&gt; 지자체의 ESG 이해도



## 2)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영역별 우선순위

서울시 자치구가 인식하는 ESG 영역별 우선순위를 분석함.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3 가지 영역별 1~3순위를 각각 응답하도록 한 결과, 설문 결과는 다음의 <표 3-1>과 같았다.

환경(E) 영역은 1순위 빈도가 14개 자치구로 가장 많은 자치구에서 ESG 영역 중 지자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영역이라고 응답했다. 사회(S) 영역은 1순위라고 응답 한 자치구는 없었으며, 2순위에서 11개 자치구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순위는 9개 자치구 가 응답했다. 거버넌스(G) 영역은 1순위라고 응답한 자치구가 6개였고, 2순위 6개, 3순위 8개 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1~3순위에 3~1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환산한 합계 점수는 환경(E) 영역이 52점으로 자치구 입장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높게 두어야 할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거버넌스(G) 영역이 38점으로 나왔고, 사회(S) 영역은 가장 낮은 31점으로 나타났다.

&lt;표 3-1&gt; ESG 영역별 우선순위 인식

ESG 영역별	1순위 빈도(비중)	2순위 빈도(비중)	3순위 빈도(비중)	점수 환산
환경(E)	14 (70.0%)	4 (20.0%)	2 (10.0%)	52 (100%)
사회(S)	-	11 (55.0%)	9 (45.0%)	31 (100%)
거버넌스(G)	6 (30.0%)	6 (30.0%)	8 (40.0%)	38 (100%)

주1 : 점수는 1순위 3점, 2순위 2점, 3순위 1점을 기준으로 빈도 수에 곱하여 합산함

주2 : 빈도 수 합계가 21건이 아닌 이유는 1개 자치구가 전체 무응답하였고, 다른 1개 자치구가 2순위 2개를 부여하였기 때문임

### 3) ESG 추진 항목별 중요도 분석

ESG 추진 항목별 중요도 분석을 위해 국내·외 ESG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ESG 영역별 추진항목을 도출하였다. 추진 항목은 총 13개로 환경(E) 영역에 3개 항목, 사회(S) 영역에 6개 항목, 거버넌스(G) 영역에 4개 항목을 추출했다.

서울시 자치구가 인식하는 13개 추진 항목별 중요도 분석결과, 먼저 13개 전체 추진 항목의 평균은 4.254점으로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E) 영역은 4.270점, 사회(S) 영역은 4.281점, 거버넌스(G) 영역은 4.202점으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 영역에서는 ①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온실가스) 항목이 4.476점으로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②쓰레기·폐기물 항목이 4.381점, ③상하수도·폐수 등 물관리 항목이 3.952점으로 나타났다.

사회 영역에서는 ⑥주민의 안전 및 보건 항목이 평균 4.476점으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⑦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이 중요도 4.400점, ④인권 항목과 ⑧고용 항목이 각각 4.286점, ⑤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항목이 4.190점으로 나타났다. 사회 영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항목은 ⑨양성평등·문화다양성 항목이 4.048점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⑩거버넌스 투명성 및 윤리경영 항목이 중요도 4.238점으로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⑪리더십과 행정혁신, ⑫참여 확대, ⑬공정경쟁·계약 항목은 모두 중요도가 4.190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13개 항목 전체를 비교해보면,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①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온실가스)과 ⑥주민의 안전 및 보건이 각각 평균 4.476점으로 나타났다. 최근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행정 및 거리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가지 항목의 중요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⑦상생·협력 및 지역발

전 항목이 평균 4.400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②쓰레기·폐기물 항목은 4.381점을 세 번째로 중요도가 높았으며, ④인권과 ⑧고용 항목이 평균 4.286점으로 공동 5위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 항목은 ③상하수도·폐수 등 물관리 항목이 평균 3.952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⑨양성평등·문화다양성 항목이 평균 4.048점으로 12위로 나타났다.

&lt;표 3-2&gt; ESG 추진 항목별 중요도

영역별	추진항목	중요도		전체 항목 간 순위	영역 전체 평균
		평균	표준편차		
환경 (E)	1.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온실가스)	4.476	0.512	1	4.270
	2. 쓰레기·폐기물	4.381	0.498	4	
	3. 상하수도·폐수 등 물관리	3.952	0.669	13	
사회 (S)	4. 인권	4.286	0.561	5	4.281
	5.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4.190	0.680	8	
	6. 주민의 안전 및 보건	4.476	0.512	1	
	7.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4.400	0.503	3	
	8. 고용	4.286	0.463	5	
	9. 양성평등·문화다양성	4.048	0.590	12	
거버넌스 (G)	10. 거버넌스 투명성 및 윤리경영	4.238	0.625	7	4.202
	11. 리더십과 행정혁신	4.190	0.680	8	
	12. 참여 확대	4.190	0.680	8	
	13. 공정경쟁·계약	4.190	0.873	8	
전체 평균		4.254			

#### 4) ESG 추진 항목별 적용 용이성 분석

앞서 13개의 ESG 추진 항목을 적용 용이성을 기준으로도 분석해 보았다. 추진 항목은 중요도 분석과 동일한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서울시 자치구가 인식하는 13개 추진 항목별 적용 용이성 분석 결과, 전체 13개 추진 항목의 평균은 2.868점으로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ESG 경영에 대한 규범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음에도 지자체에서 ESG경영을 당장 적용하는 것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임을 알 수 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E) 영역은 2.841점, 사회(S) 영역은 2.770점, 거버넌스(G) 영역은 3.036점으로 나타남. 서울시 자치구는 거버넌스(G) 영역의 적용이 가장 용이하다고 평가하였고, 환경(S), 사회(S) 순으로 적용 용이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 영역에서는 ②쓰레기·폐기물 항목이 3.143점으로 적용 용이성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③상하수도·폐수 등 물관리 항목이 2.952점, ①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온실가스) 항목이 2.429점으로 나타났다. 사회 영역에서는 ⑥주민의 안전 및 보건 항목과 ⑨양성평등·문화다양성 항목이 평균 3.048점으로 가장 적용 용이성이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④인권 항목이 2.810점이었고, ⑦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이 2.762점, ⑤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항목이 2.524점으로 나타났다. ⑧고용 항목은 2.429점으로 사회 영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용 용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⑬공정경쟁·계약 항목 3.333점으로 가장 적용 용이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⑩거버넌스 투명성 및 윤리경영 항목이 3.000점, ⑪리더십과 행정혁신이 2.952점, ⑫참여 확대가 2.857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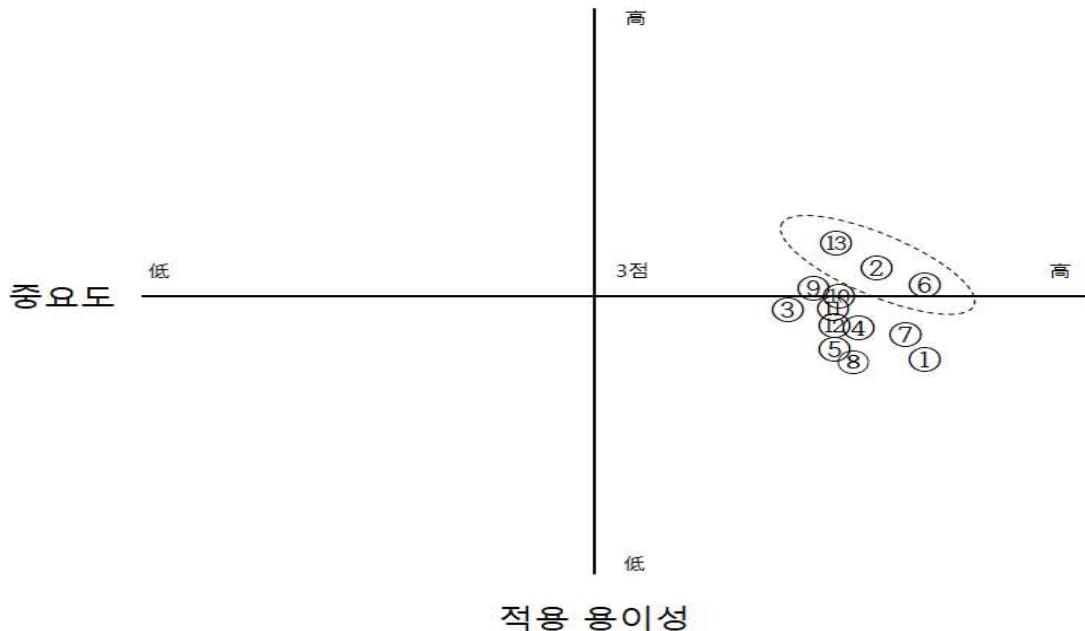
13개 항목 전체를 비교해보면,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은 ⑬공정경쟁·계약 항목으로 적용 용이성 평균이 3.333점으로 나타남. 지자체의 공공조달이나, 사업·용역 계약에서 공정한 경쟁과 계약을 위해 ESG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행 방안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②쓰레기·폐기물 항목이 평균 3.143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⑥주민의 안전 및 보건과 ⑨양성평등·문화다양성 항목은 평균 3.048점으로 세 번째로 적용 용이성이 높았으며, ⑩거버넌스 투명성 및 윤리경영 항목이 평균 3.000점으로 5위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평가된 항목은 ①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온실가스) 와 ⑧고용 항목으로 평균 2.429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음. 다음으로 ⑤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항목이 평균 2.524점으로 11위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은 지자체 자체의 노력 외에도 중앙정부의 관계법규 제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부분도 있어, 적용 용이성이 낮은 것으로 짐작된다.

&lt;표 3-3&gt; ESG 추진 항목별 적용 용이성

영역별	추진항목	적용 용이성		전체 항목 간 순위	영역 전체 평균
		평균	표준편차		
환경 (E)	1.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온실가스)	2.429	0.676	12	2.841
	2. 쓰레기 · 폐기물	3.143	0.793	2	
	3. 상하수도 · 폐수 등 물관리	2.952	0.740	6	
사회 (S)	4. 인권	2.810	0.680	9	2.770
	5.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2.524	0.814	11	
	6. 주민의 안전 및 보건	3.048	0.865	3	
	7. 상생 · 협력 및 지역발전	2.762	0.768	10	
	8. 고용	2.429	0.746	12	
	9. 양성평등 · 문화다양성	3.048	0.669	3	
거버넌스 (G)	10. 거버넌스 투명성 및 윤리경영	3.000	0.775	5	3.036
	11. 리더십과 행정혁신	2.952	0.669	6	
	12. 참여 확대	2.857	0.793	8	
	13. 공정경쟁 · 계약	3.333	0.856	1	
전체 평균		2.868			

앞서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설문을 통해 13개 ESG 추진 항목별 중요도와 적용 용이성 결과를 가지고 매트릭스를 구성해 보면 <그림 4-2>과 같다. 이를 근거로 ESG 추진 항목 가운데 중요도가 높으면서, 지자체 정책에 적용이 용이한 항목을 살펴보면 환경(E) 영역의 ②쓰레기 · 폐기물, 사회(S) 영역의 ⑥주민의 안전 및 보건, 거버넌스(G) 영역의 ⑬공정경쟁 · 계약 항목이 중요도도 높으면서 적용이 용이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적으로는 이 3가지 추진 항목과 관련된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 및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lt;그림 3-2&gt; ESG 추진 항목별 진단 매트릭스



#### 4. 지자체의 ESG 적용 전략 간 우선순위 분석

##### 1) 지자체 ESG 적용 전략방안 도출

이하에서는 지자체의 ESG 적용 전략 우선순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앞서 이론적 검토 및 국내·외 ESG 적용사례와 기초지자체의 ESG 관련 현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ESG 적용 전략으로 9가지 방안을 도출하였다. 9가지 전략방안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상·하위 수준으로 계층적 구조도를 설계하였으며, 상위수준을 기준으로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표 3-4>에서 보듯이 지자체 ESG 적용 전략방안은 상위 수준에서 지자체 장의 리더십 및 조직, 규범화 및 정보공시, PR(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으로 설정하였으며, 하위 수준의 방안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가지로 구성했다.

&lt;표 3-4&gt; 지자체 ESG 적용 전략방안 및 주요내용

상위수준	하위수준	주요내용
지자체장의 리더십 및 조직	지자체장의 관심 및 의지	지자체 운영과정에 ESG 적용을 위한 지자체장의 의지 표명과 리더십 발휘
	공무원의 인식 제고 및 교육	지자체 직원들에 대한 ESG 관심도 제고 및 교육 추진
	관련 조직 신설 (ESG위원회, ESG태스크포스 등)	ESG 적용을 위한 관련 조직의 신설 추진
규범화 및 정보공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노력	관련 법률을 제·개정을 통한 지자체 ESG 적용 근거 마련
	조례 등 자치규범 정비	조례 등 자치규범 정비를 통한 지자체의 제도 및 근거 마련
	정보공시 강화	ESG 관련 정보공시 활동 강화
PR(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	홍보	내내·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ESG 관련 홍보 활동 강화
	주민참여 및 협력	지자체 ESG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협력 강화
	관련기관(사업기관 등) 협력	지자체 ESG 적용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2) 지자체 ESG 적용 전략방안 상위수준 우선순위 분석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ESG 적용 전략방안 간 AHP 설문 분석결과, 상위수준에서는 <지자체장의 리더십 및 조직>이 중요도 0.5707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규범화 및 정보공시>가 중요도 0.2314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PR(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은 중요도 0.1979로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보였다.

&lt;표 3-5&gt; 상위수준 우선순위 분석결과

구분	지자체장의 리더십 및 조직	규범화 및 정보공시	PR(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	일관성 비율
중요도	0.5707	0.2314	0.1979	0.000
순위	1	2	3	

다음으로 지자체 ESG 적용 전략방안 하위수준 우선순위의 분석 결과는 <표 3-6>과 같다. 지자체 ESG 적용 전략방안 하위수준의 AHP 분석결과, 지자체장의 리더십 및 조직의 하위영역에서는 <지자체장의 관심 및 의지>가 중요도 0.5004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공무원의 인식 제고 및 교육>이 중요도 0.2656으로 나타났고, 3순위는 <관련 조직

신설(ESG위원회, ESG태스크포스 등)>이 중요도 0.2340으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규범화 및 정보공시의 하위영역에서는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노력>의 중요도가 0.5407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조례 등 자치규범 정비>의 중요도가 0.2712로 나타났고, 3순위는 <정보공시 강화>의 중요도가 0.1881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PR(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의 하위영역에서는 <주민참여 및 협력>의 중요도가 0.4130으로 가장 높았다. 2순위는 <관계기관(사업기관 등) 협력>의 중요도가 0.3703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홍보>의 중요도가 0.2167로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6> 하위수준 우선순위 분석결과

구분	전체		일관성 비율
	중요도	순위	
지자체장의 리더십 및 조직	지자체장의 관심 및 의지	0.5004	1
	공무원의 인식 제고 및 교육	0.2656	2
	관련 조직 신설 (ESG위원회, ESG태스크포스 등)	0.2340	3
규범화 및 정보공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노력	0.5407	1
	조례 등 자치규범 정비	0.2712	2
	정보공시 강화	0.1881	3
PR(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	홍보	0.2167	3
	주민참여 및 협력	0.4130	1
	관련기관(사업기관 등) 협력	0.3703	2

### 3) 지자체 ESG 적용 전략방안 종합중요도

지자체 ESG 적용 전략방안 상·하위수준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9가지 전략방안의 종합중요도 및 상대적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3-7>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지자체장의 관심 및 의지>로서 중요도 0.2956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ESG 적용이 구체적인 사례가 전무하고, 지자체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하는 시점이므로 지자체장의 관심도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장이 ESG 적용에 대한 관심과 의지에 따라 적용되는 사업영역이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순위는 <공무원의 인식 제고 및 교육>이 중요도 0.1516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스스로 ESG경영에 대한 인식제고나 교육이 필요함을 자각하고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3순위는 <관련 조직 신설(ESG위원회, ESG태스크포스 등)>이 중요도 0.1335로 나타났다. 지자체 ESG 적용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주관 부서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순위는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노력>이 중요도 0.1251로 나타났다. 향후 지자체가 ESG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에서부터 제도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으로는 9순위로 <홍보>가 중요도 0.0429, 8순위로 <정보공시 강화>가 중요도 0.0435로 나타남. 지자체의 ESG 적용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홍보와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지자체 ESG 적용 전략방안 종합중요도 분석결과

구분	전체		
	중요도	순위	
지자체장의 리더십 및 조직	지자체장의 관심 및 의지	0.2856	1
	공무원의 인식 제고 및 교육	0.1516	2
	관련 조직 신설 (ESG위원회, ESG태스크포스 등)	0.1335	3
규범화 및 정보공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노력	0.1251	4
	조례 등 자치규범 정비	0.0627	7
	정보공시 강화	0.0435	8
PR(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	홍보	0.0429	9
	주민참여 및 협력	0.0818	5
	관련기관(사업기관 등) 협력	0.0733	6

## V. 맺음말

지자체에서 ESG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 행정이 어떤 수준의 ESG 경영을 수행하고 있는지 항목별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또한 왜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어디에 중점을 두고 ESG 전략을 전개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SG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ESG 진단을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ESG 진단 및 평지표 및 평가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는 30여 개 세부 ESG 항목을 기반으로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이나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ESG 수준을 판단할 때 MSCI



ESG 평가와 같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이효정 외, 2021).

한국의 경우에는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한 주요 Code(기준)을 제·개정하고 ESG평가, 의안 분석서비스, 정책연구 등을 제공하는 공익 추구 기관으로 한국ESG기준원이 있다. 동 기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지배구조 및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해 국내 기업들이 대내 외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E·S·G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한국ESG기준원 홈페이지). ESG 모범규준 가운데 환경영영모범규준은 글로벌 기후변화와 다양한 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적 환경영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10월 제정이후 2021년 8월 개정을 거쳤다. 사회책임경영모범규준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포괄하는 비재무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0년 12월 제정이후 2021년 8월 개정을 하였다.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은 주주의 이익을 넘어서 이해관계자 이익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지배구조 방향을 제시하였다. 1999년 9월 제정 이후 2021년 3차 개정을 거쳐 발표됐다.

본문에서의 분석결과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ESG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없다. ESG 추진 항목 가운데 중요도가 높으면서, 지자체 정책에 적용이 용이한 항목은 환경(E) 영역의 ②쓰레기·폐기물, 사회(S) 영역의 ⑥주민의 안전 및 보건, 거버넌스(G) 영역의 ⑬공정경쟁·계약 항목이 중요도도 높으면서 적용이 용이한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 했듯이 단기적으로는 이 3가지 추진 항목과 관련된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 및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자체 ESG 적용 전략방안 간 우선순위 분석에서는 <지자체장의 관심 및 의지>, <공무원의 인식 제고 및 교육>, <관련 조직 신설(ESG위원회, ESG태스크포스 등)>이 우선순위가 높았다. 이는 지자체 장의 관심과 리더십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고 ESG경영을 추동할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을 반증한다. 한국ESG기준원에서 발표한 'ESG 모범규준'에도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기적 재무적 성과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ESG 경영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은 최고경영진의 몫이기 때문이다. 즉, 환경적 책임(E)와 사회적 책임(S)를 담보하는 이행기제로서 거버넌스(G)를 구축하고 내재화하는 것은 최고 경영진의 의지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최근 ESG경영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지만, ESG경영을 전략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구두 선에 불과하다. 많은 기업들이 ESG 위원회를 만들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지자체에도 ESG 경영이 도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ESG 경영 수준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Kang, 2022).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성립했음에도 어처구니 없는 산업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2022년 초 HDC 아파트 붕괴사고, 2022년 10월 말 이태원 참사가 문제를 응변하고 있다. ESG 경영은 지구환경, 노동인권, 사회기여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가져야 하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구이다. ESG경영이 전략에 그치지 않고 실천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것이다.

## 참고문헌

Kang, S. W. 2022. 한국기업 ESG 경영 평가 수준, 글로벌 평균 이하. (<http://www.gaonpartners.com>)

- 김태영. 2022.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전략(CSR/CSV)과 감사위원회. 「AFC감사위원회포럼 자료집」.
- 백인규. 2022. 감사위원회의 ESG 대응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시사점. 「AFC감사위원회포럼 자료집」.
- 유지인 · 홍순옥. 2019.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익조정.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기술논문집」, 8(1).
- 이용재 · 엄소용. 2018. 사회적기업의 공유가치창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4).
- 이준희. 2020. 한국기업들의 ESG 경영을 위한 변화 I : ESG 경영의 개념과 접근 방법. 「Deloitte Insights」, No. 16.
- 이효정 외. 2021. ESG의 부상,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Samjong INSIGHT」, Vol. 74.
- 임옥빈. 2019. 비재무적 정보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ESG점수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86.
- 장승욱·김용현, “기업의 ESG와 재무성과”, 「재무관리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재무관리학회, 2013.
- 채원호. 2011. 한국 공기업의 윤리경영 강화방안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21(1).
- 통계청 통계개발원. 200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 한국거래소. 2020.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
- 한국금융투자협회. 2020.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0. 「ESG 평가 샘플보고서」.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a. 「한국지배구조원 ESG 평가안내」.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21b. 「ESG 모범규준」.
- 한국ESG기준원 홈페이지.
- 뉴시스 2021. 10. 20. 10:23 기사.
- ESG행복경제연구소 홈페이지.
-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2019).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 經濟同友會. (2003). 「<市場の進化>と社会的責任経営: 企業の信頼構築と持続的な価値創造に向けて」(第15回企業白書).
- 後藤敏彦. 2020. SDGs と TCFD: 不確実性時代の企業・自治体の中長期ビジョン. 「共生科学」, 11.
- 内山和紀. (2021). SDGs時代のガバナンス: 共同体ガバナンスの可能性 考察. 「大和総研コンサルタントレポート」.
-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 (2021). 「第6回 機関投資家のスチュワードシップ活動に関する上場企業向けアンケート集計結果」.
- 藤原靜郎. (1994). 所以然と所当然：朱子学における理の性格をめぐって. 「中国哲学論集」, 20: 16-31.
- 山田正行訳. (1994).「公共性の構造転換」第2版. 未来社.
- ユルゲン・ハーバーマス. (1994). 「公共性の構造転換—市民社会のカテゴリーについての探求」. 未来社.



- Habermas, Jurgen. (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2nd ed.). 細谷貞雄、
- Jonas, H. (1979).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technologische Zivilisation*, Frankfurt am Main: Insel Verlag. 이진우 역. (1994).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 Jonas, H. (1987). *Technik, Medizin und Ethik: Praxis des Prinzips Verantwort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이유택 역. (2005). 「기술 의학 윤리: 책임원칙의 실천」. 솔.
- Olson, Mancur.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依田博、森脇俊雅訳. (1983). 「集合行為論」. ミネルヴァ書房
- Saaty, Thomas. L. & Kearns, Kevin. P. (1985). *Analytical Planning: The Organization of Systems*. New York: Pergamon Press, Inc.
- Saaty, Thomas. L. (1982), *Decision Making For Leader: The AHP for Decisions in a Complex World*. CA: Wadsworth.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SESSION 03 | ESG경영의 사례

## 포스코 ESG 경영매커니즘과 향후 과제

김용근(포스코 기업시민실 기업시민전략그룹장)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posco

## 포스코 ESG경영 매커니즘과 향후 과제

2024. 6. 7

김 용 근(Ph.D)

포스코 기업시민실 전략그룹장  
포스텍 기업시민연구소 부소장  
인문사회학부 겸임교수

### 혹시, 포항 환호공원 Space Walk에 가보셨나요?



#### 포항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Space Walk)



- '21.11월 포항 환호공원에 포스코가 설치·기증한 국내 최대 체험형 예술작품
- 독일 부부작가 하이케무터 & 울리히겐츠 작품 전장길이만 330m



- 개장(21.11) 11개월만에 100만명이 방문하며 포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에도 선정되며 전국의 명소로 확대 중!

\* 광양 Park1538 착공(23.5월), 광양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 착공(23년中)

지역에 공공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모범사례, Space Walk!  
포스코는 왜 지역 명소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일까?

## 기업 생존의 Rule 변화

기업경영에 대한 사회와 시장의 기대가 변화 중 ...

과거 양적 성장을 위해 경쟁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생존의 열쇠**



세계 최고 권위 경제지 포춘에서도, 2015년부터 **사회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최우선으로 기업의 가치를 판단**

**FORTUNE**

포춘(Fortune)지 글로벌 TOP 기업  
선정 기준별 1위 회사 비교 (22년)



2

## 왜 기업의 역할과 목적이 변했을까?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두, 동시에 **기업의 영향력과 책임은 확대**



3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

기업경영의 목적이 이윤 창출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공생**으로 변화



181명의 미국 대표기업 CEO들,  
모든 이해관계자에 가치를 제공하는  
현시대 새로운 기업 목적에 서명!



“자본주의는 지난 50년 간 빙곤퇴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 건전성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함께 나눠야”



“2020년 주제는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로 주주를 넘어, 고객,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발전 추구를 위해 토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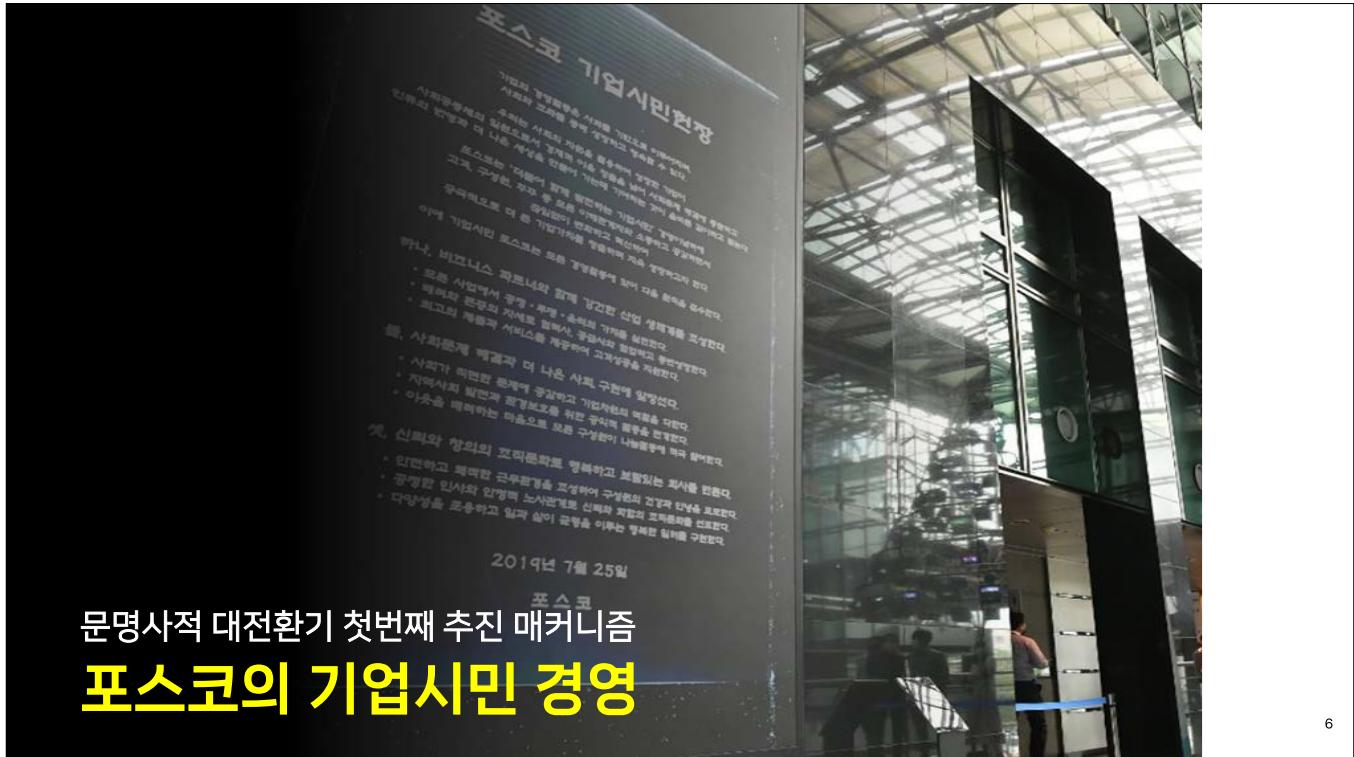
최근 수년간의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문명사적 대전환기”**

첫째, 수천년 인류의 발전을 이끌었던 탄소가  
이제는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주목,  
저탄소·친환경으로 산업생태계 급전환

둘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가  
기업 경영의 내부로 들어와  
의사결정에 투영되기 시작

5



## COVID19, ESG가 급부상하기 전인 2018년

포스코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100년 영속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새로운 경영이념 선포

포스코그룹 스스로가 사회의 일원이 되어,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시민**이 되겠다는 의미





## 존경받는 100년 기업을 향한 진화 '기업시민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은 포스코 임직원의 사회공동체를 위해 기여해온 DNA가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진화·발전된 것으로, ESG와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는 현 시점보다 앞서 선포된 선도적인 변화



포스코 기업시민 및 기업경영 변화 추세

'18.7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

국내개별기업 최초로  
기업시민 이념 선포

'19.7

포스코  
기업시민현장

실천의지와 원칙을  
담은 현장 선포

'19.8

美 BRT\* 선언,  
세계경제포럼

주주자본주의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변화 선포

'20.7

기업시민 실천가이드  
CCMS 발표

기업시민현장  
실천을 위한  
업무 실천가이드

'20.末~

ESG 급부상으로  
많은 기업 동참

금융권, 제조업 등  
구분없이 ESG, 이해관계자  
종시 경영 선언

'22.5

대한상의,  
新기업가정신 선언

지속 가능한 공동체 위한  
새로운 기업가정신  
실천명제 발표

\* Business Round Table : 美 주요 CEO(구글, 아마존 등) 180 여명 구성, 기존 기업의 목적(주주가치 창출)을 넘어선 개념을 선언

8

## 그래서 기업시민이란?

기업시민은 기업에 시민이라는 인격을 부여한 개념으로  
경제주체 역할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

포스코 기업시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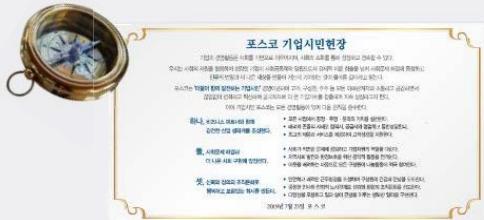
산업화 초기 포스코를 이끌어온 경영철학인 제철보국을 넘어,  
향후 사회와 함께 더불어 발전하여 영속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

기업의 본연의 활동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가치와 브랜드 가치를  
지속 향상시킴으로써 "함께 거래하고, 성장하고, 환경을 지키면서,  
미래를 만들어 지역과 함께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것

한발 앞서 선포한 기업시민,  
글로벌 트랜드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결과로 자리매김

## 기업시민현장과 CCMS를 제정하며 기업시민 경영 체계화

▶▶▶ 현장과 CCMS에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미래경영의 길이 담겨있어...



### 포스코 기업시민현장 선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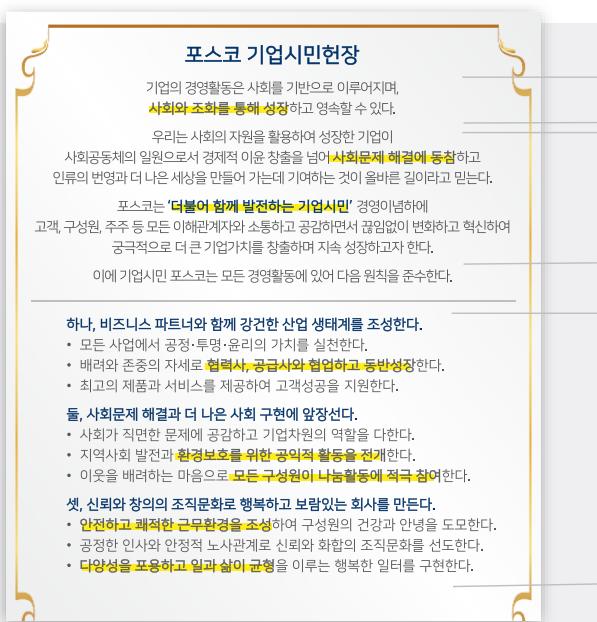
- 기업시민 포스코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 기업시민의 개념, 지향점 및 Business, Society, People 영역 실천원칙 등으로 구성

### CCMS\* 제정 (2020)

- 기업시민이라는 목적지로 안내할 구체적인 지도
  - \* 현장의 구체적인 해설서 (Ex : 훈민정음 해례본)
- 회사 주요업무를 13개 모듈로 구분하여 업무별 비전과 기업시민 실천가이드 제공

\* Corporate Citizenship Management Standards 10

## 기업시민현장을 준수하면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 및 ESG 성과 도출도 가능



###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

- ▶ 주주 자본주의를 넘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지향**  
 \* 이해관계자 정의 : 고객, 구성원, 주주 등(지역사회 포함)
- ▶ 재무가치 외 **ESG(非재무가치)까지 포함하여 기업가치를 창출**

### ▶ Business, Society, People 영역별 실천지침을 체계적으로 이행

<b>Environmental</b>	환경보호, 사회환경문제에 공감 및 대응
<b>Social</b>	공급망 관리, 안전, 노사관계, 공정한 인사, 지역사회 발전
<b>Governance</b>	공정, 투명, 윤리의 가치 실천, 배려와 존중, 다양성 등

**▶ 전임직원이 기업시민현장을 실천하며 자연스럽게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과 ESG 성과를 창출하는 체계 운영**

11

## 지난 5년간 다양한 기업시민 실천성과 창출하였고, 5대 브랜드로 연계

기업시민 실천성과의 효과적 소통을 위한 「기업시민 5대 브랜드」와 주요 활동 실적



함께 거래하고 싶은 회사



- 그룹 ESG구매체계 구축
- Biz 파트너사 동반성장
- 중소 수출자문 및 물류 협력 상생형 해상운송



함께 성장하고 싶은 회사



- 포스코 벤처플랫폼 구축, 사회문제 해결형 벤처육성
- 사내벤처기업 포벤처스
- 체인지업 그리운드 개관



함께 환경을 지키는 회사



- 2050 탄소중립 선언·이행
- 친환경제품 브랜드화
- 부산물 활용 바다숲 조성, 폐파각 재활공정 활용



함께 미래를 만드는 회사



- 저출산 문제 해결 선도
- 협력사 근로조건 개선
- 기업시민 정규 과목 운영
- 청년대상 취·창업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회사



- 지역사회 소통 강화 및 문화예술 Infra 확충
- 임직원 재능봉사 나눔
- 1% 나눔재단 사업

12

## 뿐만 아니라 사내 직원들의 기업시민 실천 개념의 이해와 소통

기업시민 실천의 **Go the Extra Mile**의 개념을 이해하여 고민해보고,

기업시민 실천이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택시 기사와  
Go the Extra Mile?



기업시민의 실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임직원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기업시민 Brief'**  
100회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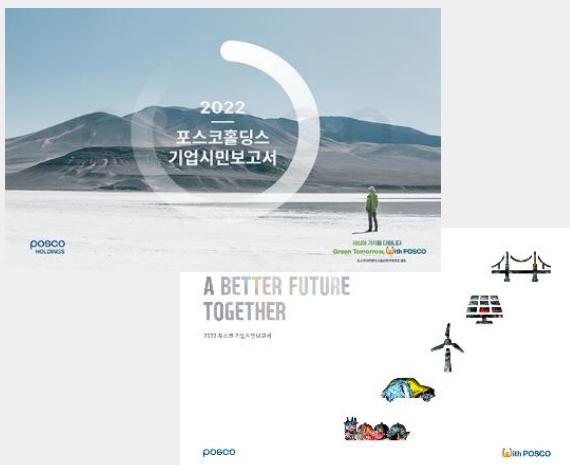
기업시민 관련  
모든 자료는  
**'Click! 기업시민'**  
App에서 제공

\* 기업시민 웹툰, 속편으로  
업그레이드(23.8월~)

13

## 회사의 ESG경영활동에 대하여 변화관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회사의 ESG성과가 모이면, 일목요연하게 스토리를 구성하여 대외 대상 공식 보고서로 공시



- 포스코는 2004년부터 선제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 2019년에 발간된 2018 보고서부터 기업시민보고서로 명칭 변경

### 기업시민보고서의 특징

- ✓ 직원들이 직접 쓰는 보고서!  
회사 추진 방향과 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 기반 작성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나, 회사 전체의 역량 향상 가능
- ✓ 보고서는 임직원 변화관리 Tool!  
전신입사원 숙지, 계층별 직책자들이 활용  
타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성과 데이터를 통해 개선점 발굴

14

## 외부에서도 기업시민을 인정, 임직원의 긍지와 자부심으로도 연결

**기업시민 도서 발간**

▶ 기업시민 실천의 의미와 주요 사례들을 학계 명사들과 협업하여 **도서로 시리즈** 발간, 대외 확산 中  
\* 기업시민 미래경영을 그리다(20, 이론서)  
기업시민 미래경영의 길이 되다(21, 실천성과 사례집)

**스탠퍼드大 Case화**

▶ 기업시민 경영과 리더십을 **스탠퍼드大 MBA 교재로 Case화**  
• 제목: 「POSCO: CORPORATE CITIZENSHIP」 ('22.1)  
• 저자: William Barnett 교수, 김재구 교수, 이무원 교수

**주요 기관 어워즈 수상**

▶ 보스턴칼리지 기업시민연구소(BCCCC) 혁신상 수상('23.5), 한국경영학회 제20회 **최우량 기업 선정**('22.8)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각종 다양한 기관의 어워즈 수상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 성과 인정

**한국경영학회**  
**BCCC**  
**KSA**  
**S&P Global Platts**

기업시민 포스코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의 Role Model로 대외 인정을 받고 있음

15



## 창사이래 초유의 재난에서도 시련을 기적으로 승화시킨 기업시민 정신

태풍 힌남노(23.9.6)와 냉천 범람으로 물에 잠겨버린 포항제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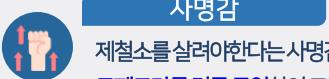
- 전 암연라인 침수 / 토사유입 (지상 1~1.5m, 지하 8~15m 침수)
- 고로, 제강 재가동 불가 / 변압기, 모터, 전장품 손상

침수 피해 135일만에 제철소 전 공장 재가동



기업시민 정신을 바탕으로 발현된 4가지 원동력

### 사명감



제철소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고로 재가동 골든타임(5日) 사수  
토페도카를 긴급 투입하여 고로 운반작업 재개(광양소 18대, 현대제철 5대)

### 공동체의식



설비복구에 일평균 14천명 투입 (직영, 협력사, 그룹사 등)  
MZ세대부터 퇴직직원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되어 참여한 복구활동

### 창의·도전정신



명장, OB 등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한 복구방법(자체수리, 구매) 결정  
창사이래 최초 조업을 중단하는 사전조치로 인명/대형사고 0건

### 공존·공생



印 JSW向 2열연 모터Drive 전용, H제철 등 네트워크 활용지원  
민·관·군의 지원과 응원을 통한 빠른 피해 복구 진행

16

문명사적 대전환기 두번째 추진 매커니즘

**포스코그룹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17

## 포스코그룹이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하게 된 두 가지 환경 변화



### 저탄소·친환경 생산체제로의 전환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 2050 탄소중립 선언하고  
경제, 사회, 산업 전반의 대전환 모색 중



### 디지털화 · 新 모빌리티 시대 도래

친환경·디지털 관점의 新 모빌리티가 고부가가치의  
미래 핵심 산업 분야로 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

18

## 탄소를 배출할 수 밖에 없는 철강業... 철강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소재일까?



철강 1톤 생산時 철광석 약 1.6톤, 약 0.7톤의 석탄(환원제) 필요  
→ 포스코는 철강 1톤당 2톤의 CO<sub>2</sub> 배출 (전세계 평균 2.3톤)



### 철강산업은 CO<sub>2</sub>와 높은 관련성 보유

→ 전세계 배출량 591억톤 중 한국 7억톤(중국 112억톤, 미국 53억톤 등에 이어 9위, '21) \* 한국 배출량 중 17%가 철강제조업



### 사실 철강은 다른 소재 대비 단위당 탄소배출이 적고 재활용률이 높은 소재

자동차강판 1톤 생산時  
CO<sub>2</sub> 배출량 비교

\* 출처 : worldautosteel



소재별  
재활용률 비교  
\* 출처 : 노무라연구소

\* 출처 : 노무라연구소



철강이 탄소 다배출 산업인 것은 철강재 소비량이 많기 때문 (한국 人당 철강소비량 995kg, 글로벌 228kg / '20년)

19

## 포스코, 아시아 철강사 최초 2050 탄소중립 선언 ('20.12.11)

▶▶▶ 글로벌 시민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한편, 저탄소 생산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

저탄소 3대  
대응전략

- ✓ **Green Process** : 기존설비 효율 향상 및 수소환원제철(HyREX) 공법 기술 개발
- ✓ **Green Product** : 친환경·저탄소 제품 솔루션 확대로 밸류체인 전반 탄소발자국 축소
- ✓ **Green Partnership** : 탄소정보 공개, 기후변화 파트너십 강화 및 사회적 감축 협력

2050  
탄소중립  
로드맵



## 친환경성을 가진 철강을 완벽한 소재로 만들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 ESG 시대를 맞아 철강을 탄소배출이 없는 완벽한 소재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전**

### '수소환원제철'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 CO<sub>2</sub> 발생 대신 물 발생

기존 공법  
: 강철 1톤 당 약 2톤의 CO<sub>2</sub>가 배출

수소 환원 제철공법  
: CO<sub>2</sub> 배출 완벽 차단 가능

### 일산화탄소 환원반응



### 수소 환원반응



### 수소환원제철 글로벌 리더십 선도 중

- '韓그린철강위원회' 출범('21.1)
- 세계 수소환원제철 기술 포럼 개최('21.10)
- 英프라이메탈스社와 데모플랜트 제작('22.8~)

CO<sub>2</sub> 배출이 불가피한 제철업 입장에서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자 어려운 과제이나,  
전세계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탄소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

## 신모빌리티 시대 도래에 따른 전기차 시장 확대는 포스코에게는 위기?

전기차 시장은 2030년까지 지속 성장할 전망

(‘23년) 13백만대 → (‘30년) 50백만대까지 확대



내연기관차 VS 전기차 비교해보면  
부품은 50%, 무게(철강 비중)는 30% 축소

내연기관차 VS 전기차 비교해보면  
부품은 50%, 무게(철강 비중)는 30% 축소

	내연기관차	전기차
가격	61~68백만원	70~94백만원
부품수	22,000개	12,000개
구동원	엔진	모터 + 배터리
에너지원	휘발유/경유	전기
주행거리	650km	400~500km

전세계 자동차사에 철강제품을 주력으로 판매 중인 포스코의 매출 감소 불가피

22

## 포스코그룹은 앞서 고민하고, 시장변화에 대응하고자 이차전지 사업 진출

### 포스코그룹 이차전지 사업 History



지금까지 10년 이상 준비한 포스코그룹의 Next Core 사업

23

**새로운 사업정체성을 실현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22년 3월 포스코홀딩스 출범**



**POSCO HOLDINGS**

기업시민 기반 2030년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라는 비전을 향해 5대 지향점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 사업 발굴을 추진

**성장비전** ..... **The global business leader for sustainable future of humanity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

**지향점** ..... 

**핵심사업** ..... 

24

**투자자들이 알아본 포스코그룹의 진정한 기업가치**

**포스코그룹 기업가치 변화**

'18.7월 35조원 → '23.8월 107조원 3배

\* 포스코그룹 상장사 시가총액 (6개사)

이차전지와 더불어 포스코그룹은 지속적인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기업가치 극대화로 지속가능 모델 제시

25



내외부 사업여건 변화에 따른 향후 과제

##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

26

우리가 가진 기술과 창의로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일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포스코의  
사명(使命)이자 정신(精神)은 어디까지 공감을 얻고 있는가?

27



## 포스코그룹 10대 회장 취임과 함께 그룹 경영에 대한 새로운 기대

New 경영비전체계와 함께 7대 미래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더 큰 가치 창출 노력



('22.4월~)  
7대 미래혁신 과제 발표

**자랑스런  
초일류  
소재기업**



- ① 철강 경쟁력 재건
- ② 이차전지 소재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 본원 경쟁력 쟁취 및 혁신기술 선점
- ③ 사업회사 책임경영체제 확립 및 신사업 발굴체계 다양화
- ④ 공정투명한 거버넌스 혁신
- ⑤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 ⑥ 원칙에 기반한 기업 책임 이행
- ⑦ 조직인사쇄신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28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

뤼신(1881~1936)

앞으로도 포스코는  
기업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걸어가  
기업경영의 룰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회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OSCO**

29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SESSION 03 | ESG경영의 사례

## SK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ESG

박성훈(SK사회적가치연구원 기획실장)





## SK의 사회적 가치 측정과 ESG

박성훈 실장

seonghoon@cses.re.kr

CSES | 사회적 가치 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 1.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SK의 재단

 한국고등교육재단

**CSES** | 사회적 가치 연구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CHEY** 최종현학술원

1.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Impact Foundation

Non-Profit Foundation



Impact Foundation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3

1.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Learning Community

Impact Foundation ⇒ Learning Community



30개 이상의 재단/조직이 참여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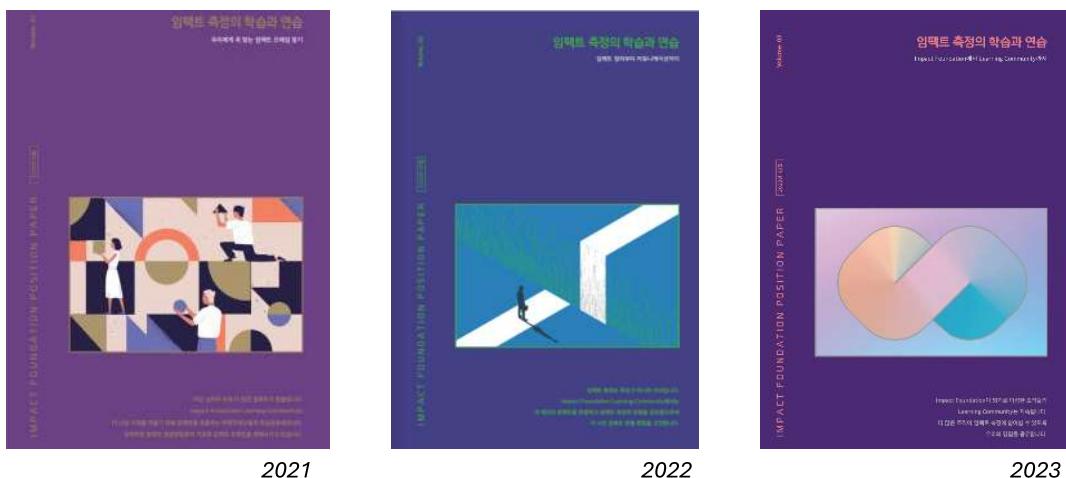
4



## 1.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2021

2022

2023

C E N T E R F O R S O C I A L V A L U E E N H A N C E M E N T S T U D I E S

5

## 1.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사회적 가치 측정

## 사회적 가치의 측정의 이유



C E N T E R F O R S O C I A L V A L U E E N H A N C E M E N T S T U D I E S

## 2. 사회성과인센티브

사회성과인센티브

2015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가치에 비례한 현금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 정책 실험을 시작'



2018년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2019년 어워드

C E N T E R F O R S O C I A L V A L U E E N H A N C E M E N T S T U D I E S

7

## 2.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 인센티브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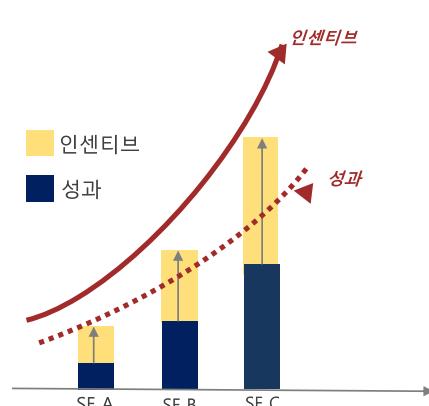
측정과 인센티브로 기업의 성공가능성 증대

메커니즘

기대 효과

**The Better, The More!**

성과 및 인센티브 곡선



기업의 성공가능성 증대



C E N T E R F O R S O C I A L V A L U E E N H A N C E M E N T S T U D I E S

8

## 2.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 체계

사회성과인센티브 웹페이지(<http://socialincentive.org>)에서 누구나 측정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 측정 원칙

- 사회성과 = 사회문제 해결성과
- 측정 대상: 매년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 중 ① 미션에 부합/  
    ② 미보상된 성과
- 측정 방법: 화폐가치 측정  
(시장가격 대비 부가적 성과 측정)

### 측정 체계

4개 영역,  
22개 표준식 제시  
(기업 상황에 맞게 변형 가능)

#### 기업의 미션

사회문제  
해결

환경문제  
해결

제품/서비스  
(Product)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성과  
(사회서비스성과)

전자  
제작  
방법  
SV

내부

공정  
(Process)

외부

내부 공정상의  
사회적 성과  
(고용성과)

제품/서비스/공정의  
환경적 성과  
(환경성과)

외부 공정상의  
사회적 성과  
(사회생태계성과)

### 자동화된 측정 시스템(SP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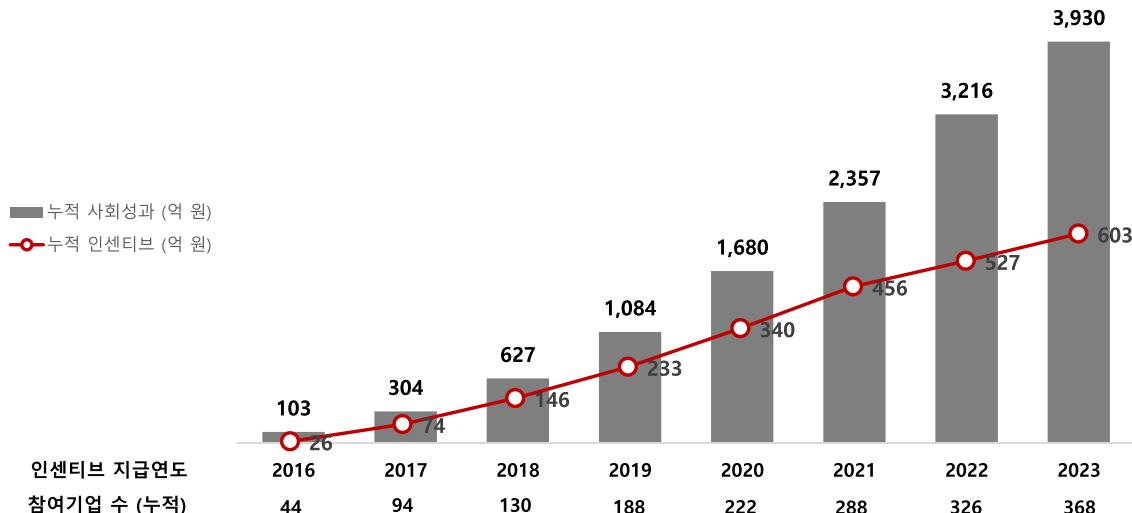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9

## 2.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성과

2015년 프로젝트 론칭 이후, 참여기업들은 누적 총 3,930억 원의 사회성과 창출,  
사회성과에 비례하여 누적 총 603억 원의 현금 인센티브 지급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10

## 2. 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기업 사례

참여기업들은 평균 5천만여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받고, 인센티브는 꼬리표가 없어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개발, 인건비, 운영비에 활용

A사

- 토양 오염 감소/ 토양의 탄소 포집 증대 → 친환경 비료
- 인센티브로 '자사 제품의 환경성과에 대한 연구' 진행  
→ 해당 성과, 사회성과인센티브에서도 인정
- 이후 친환경 연료 개발로  
중소기업 최초,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 기업으로 인정

B사

- 예방적 심리 상담으로 의료비용 절감 → 문턱 낮은 상담 제공
- 인센티브로 '상담 공간 매입'  
→ 공간 임대비용 절약, 추가 상담 제공 가능
- 상담 제공 회수 증가로 기업 운영의 지속가능성 향상

4EN ::

• 참여 후 SV 성장

'16년 사회성과	'19년 사회성과	연평균 성장률
2천만 원	1억 원	73%



TODAC TODAC

• 참여 후 SV 성장

'15년 사회성과	'19년 사회성과	연평균 성장률
9천6백만 원	12억 원	88%

C E N T E R F O R S O C I A L V A L U E E N H A N C E M E N T S T U D I E S

11

## 2. 사회성과인센티브

DB 현황과 확산

참여기업들의 성과 DB는 연구자들에게 공개되어 다양한 사회적 기업 관련 연구 가능

### SPC DB 현황

#### SPC DB

- 기간: 2015-2022
  - 자료: 기본현황, 재무성과, 사회성과
- 데이터 셋 21 개  
변수 141 개

#### SPC Survey

- 기간: 2020-2023
  - 자료: SPC 참여기업/기업가 특성
- 자료 14 개  
변수 332 개



2018년 CSES Colloquium

### DB 활용 및 확산 성과

DB 다운로드  
(2020 - 현재)

12,500 여 건

\* KOSSDA 기탁 자료의 다운로드 수 포함

(다른 CSES DB

다운로드/논문 수와

합산된 수치)

DB 활용 논문  
(2016 - 현재)

66 편

\* 학술지 게재, 학위 논문 포함

C E N T E R F O R S O C I A L V A L U E E N H A N C E M E N T S T U D I E S

12

## 2. 사회성과인센티브

효과성 소개

###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의 경영사례, 공신력 있는 학술지(글로벌 Top 5)에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효과성 관련 사례와 논문 게재

#### 하바드 경영대 경영사례로 SPC 소개 ('21년)



#### 경영학 Top Journal에 SPC 효과성 논문 게재 ('22년)

**제목**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in Mission-Driven Firms

**저자** 신재용 교수(서울대 경영학, 회계)  
정선문 박사과정(서울대 경영학, CSES 펠로우)

**학술지** Management Science (경영학 Top 5 저널)



**Management Science**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in Mission-Driven Firms**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13

## 2. 사회성과인센티브

확산: 지자체

### '사회성과 비례 보상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 경남도, 전남도, 제주도, 춘천시, 화성시 등과 협력사업 진행중



경남도 협약 (2023.1.27)



춘천시 협약 (202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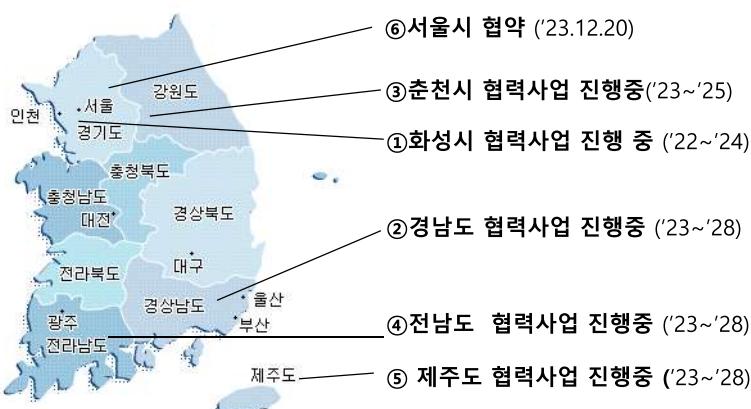
전라남도 협약 (2023.3.22)



제주도 협약 (2023.4.10)



서울시 협약 (2023.12.20)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14

## 2. 사회성과인센티브

확산: 국제화(일본)

### 일본에도 사회성과인센티브 확산



Outcome-based funding for IMM  
(2023.5 ~ )



- JFRA(일본펀드레이징협회)와 일본 최초의 성과 비례보상(outcome-based funding) 사업론칭
- 현지 사회적기업 4개 선발, 3년간 사회성과측정 및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예정  
(기업당 연 최대 1억원 지원)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15

## 2. 사회성과인센티브

확산: 국제화(WEF)

WEF와도 함께 국제적 확산 노력 지속, CSes는 아시아 최초 WEF 아젠다의 리드 멤버사

### WEF GASE 리드 멤버사



- CSes는 WEF 'GASE(Global Alliance for Social Entrepreneurship)'  
'성과 비례 보상(OBF) 아젠다의 리드 기관으로 롯펠러 제단과 함께 아젠다를 주도(2024년~)'
- SPC는 WEF로부터 사회혁신을 위한 기업 파트너십 모범 사례로 인정(2024.1)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16

## 2. 사회성과인센티브

이 프로젝트의 존재 이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가 대기업-소셜벤처 등 사회적 기업간

우수한 파트너십 사례로 소개

→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측정의 노하우를 익혀 영리 기업에 적용했다!

매일경제

2023년 01월 25일 수요일 A17면 기업

### SK ‘사회성과 인센티브’ 다보스서 호평

최태원 회장 10년전 첫 제안  
326개 기업에 527억원 보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독창적 아이디어로 제안해 추진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프로그램이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호평을 받았다. 앞서 최 회장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 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처음 제안했다.

24일 SK그룹에 따르면 다보스포럼

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사무국은 최근 홈페이지에 ‘사회적 기업들과의 협력이 어떻게 대기업들에 지속 가능 혁신의 방안이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와 세계 최대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 인베브의 스타트업·소셜혁신기업 펀딩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사무국은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소셜 임팩트 창출과 ESG경영(환경·책임·투명 경영) 목표 달성을 나서고 있다”며 “특히 SK는 사회적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

회적 가치에 비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독창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평가했다.

사무국 평가처럼 SK그룹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26개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운영한 결과 이들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환경 문제 해결, 생태계 문제 해결 등 4개 분야에서 총 3275억원의 사회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인센티브로 총 527억원을 사회적 기업들에 지급했다. 이영록 기자



회적 가치에 비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독창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평가했다.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17

## 3. ESG

Positive Incentive 시장을 위한 준비

사회적 가치가 거래되는 Positive Incentives 시장이 만들어 질 때를 미리 준비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18

감사합니다

C E N T E R   F O R   S O C I A L   V A L U E   E N H A N C E M E N T   S T U D I E S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SESSION 03 | ESG경영의 사례

## 모래퍼시픽 고객 사회와의 동행, 대자연과의 공존 “2030 A MORE Beautiful Promise”

오정화(아모래퍼시픽 지속가능경영센터 상무)





AMOREPACIFIC

## 아모레퍼시픽 고객 사회와의 동행, 대자연과의 공존

**“2030 A MORE Beautiful Promise”**

2024. 06. 07

아모레퍼시픽 지속가능경영센터 오정화

1

## Part 1. 아모레퍼시픽 소개

2

아모레퍼시픽 소개

“아모레퍼시픽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1993년 무한책임주의를 선언한 이래 우리는 우리가 ‘해운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세상에 기여하는 아름다움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빠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확산하며,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3

아모레퍼시픽 소개

##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Asian Beauty Creator

78

78년의 역사(년)

4.5

22년 매출(조원)

32

국가 진출(수)

34

브랜드(수)

10,010

임직원 수(명)

(아모레퍼시픽그룹 기준, 2022년 12월 기준)

4



아모레퍼시픽 소개

**Cosmetics**

AMORE PACIFIC

Sulwhasoo

LANEIGE

Innisfree

ETUDE

HERA

IOPE

pmr

AESTURA

한율

Mamonde

espoir

HOLITUAL  
Holistic Rituals for Skin Wellness

B. READY

TATA HARPER®

**Hair / Body / Oral Care**

RYO

mis en  
scène  
미 정 션

amos

ILLIYOON

LABO-H

메디안

HAPPY  
BATH

**Fragrance**

GOUTAL  
PARIS

**Inner Beauty**

VITALBEAUTIE

**Tea Culture**

OSULLOC  
오설록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 브랜드>

5

아모레퍼시픽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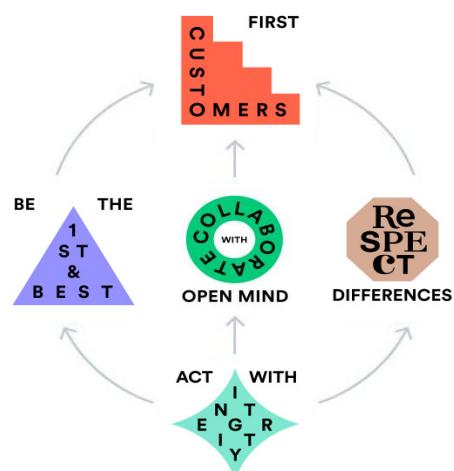
## 우리의 원칙

### “Asian Beauty Creator Spirit”

우리는 ABC Spirit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일하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을 중심으로 최초,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업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스스로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우리만의 원칙입니다.



6

아모레퍼시픽 소개

## 글로벌 대표브랜드



7

## Part 2. 아모레퍼시픽 ESG 전략 소개

8



아모레퍼시픽의 ESG

## 2030 A MORE Beautiful Promise



### 고객·사회와의 동행

1 신제품 100% 환경·사회 친화적 속성 구현, 고객의 지속 가능한 라이프 실현 브랜드 활동 전개

2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사내 외 확산, 모든 이해관계자와 조화로운 성장 구현

### 대자연과의 공존

3 글로벌 생산 사업장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100% 전환, 폐기물 매립 제로 달성

4 제품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플라스틱 포장재 100% 재활용, 재사용, 퇴비화 가능 설계

5 생물다양성 보전·이용 100억 원 투자, 2023년까지 RSPO 인증 팜유 90% 이상 사용

9

We make **A MORE** beautiful World

**A MORE** Beautiful Promise

10

아모레퍼시픽의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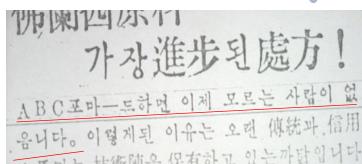
1964년 전쟁미망인들의 “사회진출기회”



11

아모레퍼시픽의 History - 자연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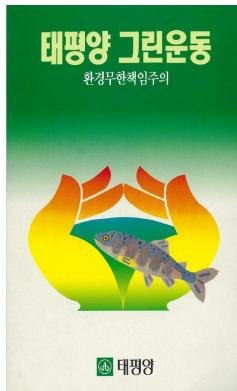
천연 원료와 자연 존중



12

## 아모레퍼시픽의 History - 환경에 대한 본격적 움직임

## 태평양 GREEN 운동



- '93년 태평양 서비스/품질/환경 무한책임주의 선언
-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자연 보호 실천

## 태평양 여름 환경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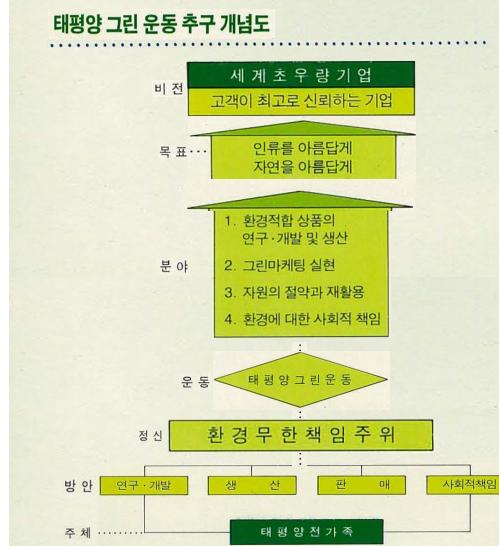


- 전국 초등학교 3~6학년 200명 참여
- 환경 실험, 환경 운동회, 환경 백일장 등의 프로그램

13

## 아모레퍼시픽의 History - '93. 환경무한책임주의

## 태평양 그린 운동 추구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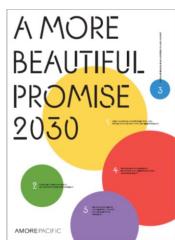
## 태평양 그린 운동 실천방향

1. 태평양 전 기족은 Reuse (재사용), Reduce (감량화), Recycle (재자원화)의 3R을 생활화하여 지구 환경보전에 앞장선다.
- Reuse (재사용)  
발생되는 폐자원을 그냥 버리거나 위탁처리하지 않고 회수하여 재사용하도록 한다.
  - Reduce (감량화)  
폐기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줄이도록 한다.
  - Recycle (재자원화)  
폐유리병, 폐지류, 폐합성수지 등을 분리 수거하여 재자원화 한다.
2. 태평양 그린운동의 실천은 어느 개인, 어느 부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종업원, 전부서가 참여하는 것이다.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운동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 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3. 태평양 그린운동의 추진결과를 환경보전위원회에 보고하고, 환경보전위원회는 이를 분석·평가·조정하여 태평양 그린운동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한다.

14

아모레퍼시픽의 ESG

## 2030 A MORE Beautiful Promise



### 고객·사회와의 동행

1 신제품 100% 환경·사회 친화적 속성  
구현, 고객의 지속 가능한 라이프 실현  
브랜드 활동 전개

2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사내 외 확산,  
모든 이해관계자와 조화로운 성장 구현

### 대자연과의 공존

3 글로벌 생산 사업장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100% 전환,  
폐기물 매립 제로 달성

4 제품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량 절감;  
플라스틱 포장재 100% 재활용, 재사용,  
퇴비화 가능 설계

5 생물다양성 보전·이용 100억 원 투자,  
2023년까지 RSPO 인증 팜유 90% 이상 사용

15

## 고객, 사회와의 동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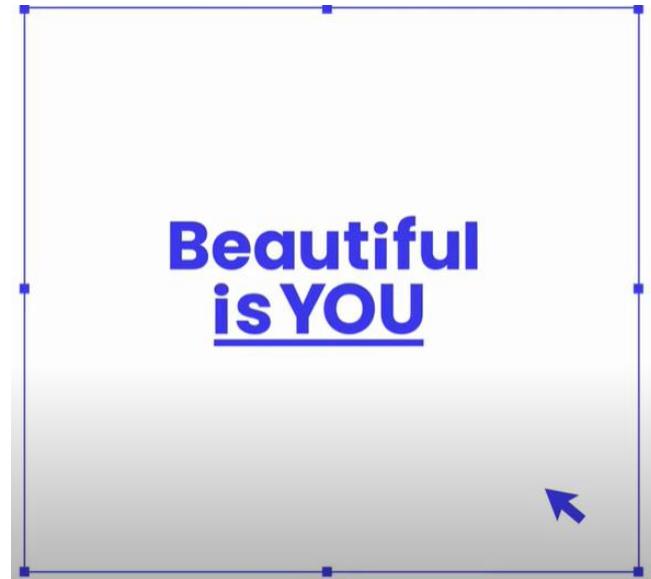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

고객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제품개발 및 커뮤니케이션

건강과  
자립지원

여성의 건강(유방암)과 자립지원  
청년건강(마음건강)과 자립지원

16



17

## 고객 사회와의 동행

### 다양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마케팅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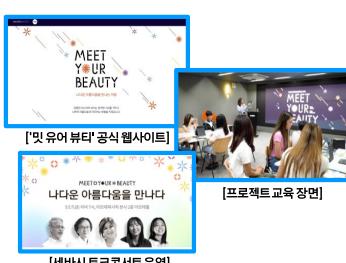
#### 제품/디자인 개발

-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모두를 위한 점자 & 한눈에 썩 스티커 제작, 점자를 적용한 제품 등을 출시함.
- 인클루시브 제품 개발 : 고객의 다양한 피부톤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 등을 출시



#### 고객 커뮤니케이션

- MEET YOUR BEAUTY 캠페인 : 청소년의 건강한 미의식 형성을 목표로 획일적인 아름다움에 치우치지 않고 '나다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강연, 교육, 워크샵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 현업/외부 후원

- 발달 장애인 고용한 사회적 기업과 협업 통해 제품, 판촉물 등 제작
- D&I 관련(장애, 문화, LGBTQ 등) 단체 후원 통해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달성을 동참



18

### 고객사회와의 동행

#### 지역사회와의 포용 성장

##### 여성 건강 증진

###### 여성 건강 관심 확대

-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과 유방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 확대

###### 여성 암환자 지원

-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는 메이크업 교육을 통해 여성 암환자의 자신감 회복 지원

##### 핑크리본캠페인(2001~2022)



인식개선 **483,838**명

교육지원 **657,707**명

검진지원 **134,357**명

수술지원 **1,296**명

##### 메이크업유어라이프(2008~2022)



수혜자 **20,817**명

참여국가 **8**개국

봉사자 **7,069**명

집행금 **57**억원

19

### 고객사회와의 동행

#### 지역사회와의 포용 성장

##### 여성 자립 지원

###### 취약계층 여성 고용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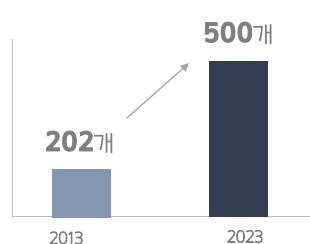
-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등의 고용 가능성 증진을 위한 통합 자립 지원

###### 한부모 여성 경제자립 지원

- 저금리 창업 대출 지원
- 한부모 여성 연대 강화 및 위기 관리 지원



'23년 누적 500호점 오픈, 상황을 82.2%



- 총 4,764명 여성의 취업기반 마련 ('08~'21)
- 취업 비율 68.3%, 소득 증가 비율 52.9%  
(고용만족도 연구결과)



- 한부모 여성 연대 강화 및 통합지원
- 창업 후 안정적 매출 기여 긍정 45%
- 높은 상환율 유지

※ 사진출처: 뷰티풀 라이프 성과연구보고서, 김은정 외(2022)

20

## 고객사회와의 동행

## Look at ME

더 나은 나로 성장하고  
미래를 찾아가는 여정의 청년 캠페인

## 나를 만나는 시간, 미타임 (ME Time)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인정하는, 나와 친해지는 시간

## 나를 준비하는 시간, 미 스타트 (ME Start)

나를 발견하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온/오프)

21

## 고객사회와의 동행

## 나를 만나는 시간, 미타임 (ME Time)

- 청년 마음 건강 증진**
- 세대 갈등, 학업/진로, 대인관계, 경제적 어려움(결혼, 출산 포기), 범아웃 등 경증 우울감 청년 심리지원사업
  - 청년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자기 돌봄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청년마음테라피, 메이크업/차(茶)/향)



22

### 고객사회와의 동행

#### 나를 준비하는 시간, 미 스타트 (ME Start)

'기업이 잘 하고,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

##### 현업 연결 강화

■ 청년의 고용 가능성 증진을 위한 기업 구성원과의 연결 강화 프로그램 제공



23

## 대자연과의 공존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순환 경제를 촉진

탄소중립

전 사업장 신재생 100% 사용 및  
전 생산 사업장 탄소 중립 실현

자원의  
순환 사용

플라스틱 포장재 절감,  
100% 재활용·재사용·퇴비화

생물다양성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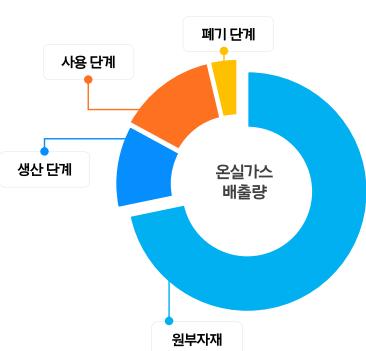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팜오일 90% 사용

24

## 대자연과의 공존

기후변화 접근 전략

## 전과정 탄소발자국



## 지속 가능한 생산

- 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 ② 글로벌 생산 사업장 탄소중립
- ③ 물류 친환경차량 100% 전환
- ④ 협력사 온실가스 배출 공동 저감

## 저탄소 제품 소비

- ① 제품 전 과정을 고려한 온실가스 저감
- ② 그린 케미스트리 연구 강화
- ③ 저탄소/물저감 제품 개발 및 확대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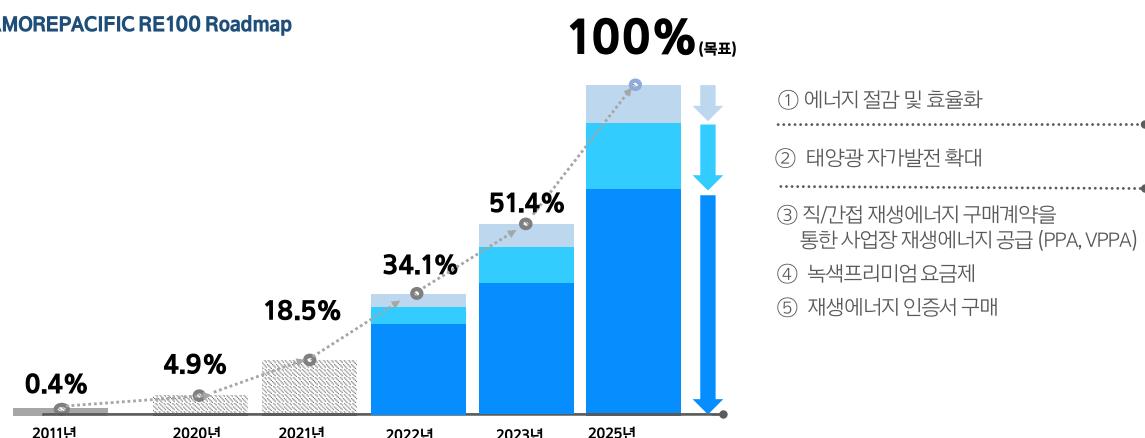
## 대자연과의 공존

RE100 추진계획

2025년까지 전사업장 재생에너지 100% 전환

2022년 오산, 상해 사업장 RE100 달성, 2023년 오산, 대전, 상해 사업장 RE100 달성

## AMOREPACIFIC RE100 Roadmap



26

대자연과의 공존

### 자원순환



#### 1 REDUCE

-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거/경량화 및 재활용/바이오플라스틱 사용

#### 2 REUSE

- 용기 재사용이 가능한 리필 제품 확대

#### 3 RECYCLE

- 용기 재질 및 구조 개선 통한 재활용 용이성 제고

#### 4 RETURN

- 용기 재활용을 위한 고객 참여 온오프라인 유통망 활성화

27

대자연과의 공존

### 자원순환

#### 4R 전략 — REDUCE | 신규 석유유래 플라스틱 사용 절감

##### 제거 및 경량화



플라스틱 ZERO  
종이포장



내용물 덮개, 용기 하단 장식 등  
불필요한 플라스틱 제거



플라스틱 없는  
종이 고정재

##### 대체



몸체 100% PCR



외용기 50% PCR

28



대자연과의 공존

## 자원순환

**4R 전략 — REUSE |** 용기 재사용을 통한 포장재 사용 절감

### ✓ 리필



사용하던 본용기에 내용물 채우는 형태

### ✓ 리플레이스 (내용기 교체)



내용기 교체형 럭셔리 크림



내용기 교체형 리필



립스틱 최초 리필

29

대자연과의 공존

## 자원순환

**4R 전략 — RECYCLE |** 복합 재질 지양, 재활용성 제고 포장 기술 혁신

### ✓ 재질 단일화



몸체/캡 PP 단일소재



알루미늄 단일 소재

### ✓ 재활용 용이성 개선



금속 스프링 없는 펌프



몸체 무색 PET



PET, Easy Peel 라벨

30

### 대자연과의 공존

#### 자원순환

##### 4R 전략 — RETURN | 자발적 용기 수거 캠페인, AMORE:CYCLE



31

### 대자연과의 공존

#### 자원순환

##### 4R 전략 — RETURN | 자발적 용기 수거 캠페인, AMORE:CYCLE

###### 오프라인 용기수거의 온라인 확장 ('24.01)

- 아모레퍼시픽 공식몰 'AMORE MALL' 수거 신청(1회, 10개 이상 용기 수거)
- 수거 품목 확대(스킨케어 → 생활용품, 메이크업 일부(쿠션/팩트), 향수)

###### 아파트 내 화장품 유리병 회수 시범사업 전개('24.04)

- 한국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MOU
- 천안시, 오산시 소재 아파트 단지 대상 브랜드 무관 화장품 유리병 수거



32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SESSION 04 | [종합토론] 사회과학과 ESG

## 포스코 ESG 경영매커니즘과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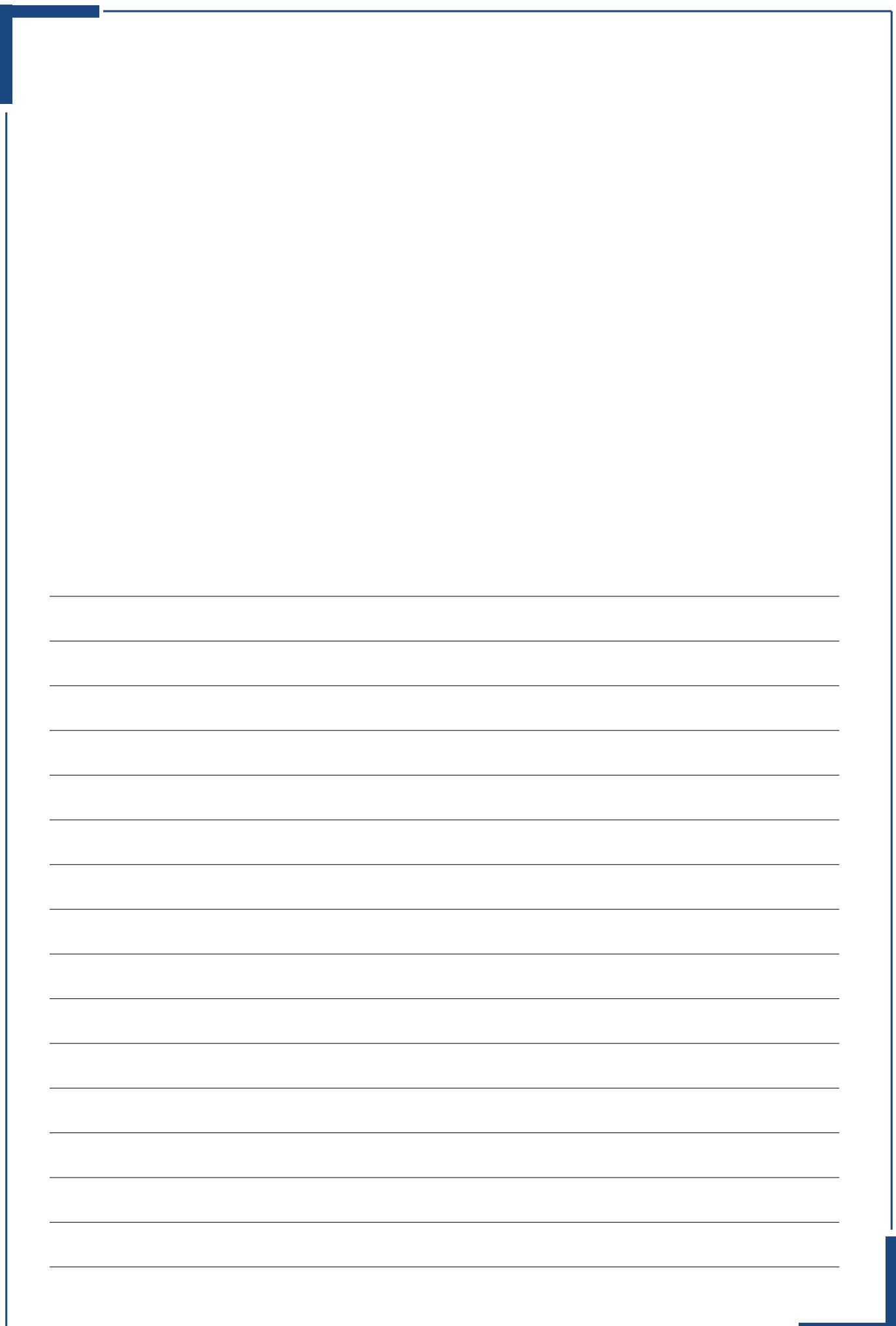
5대 학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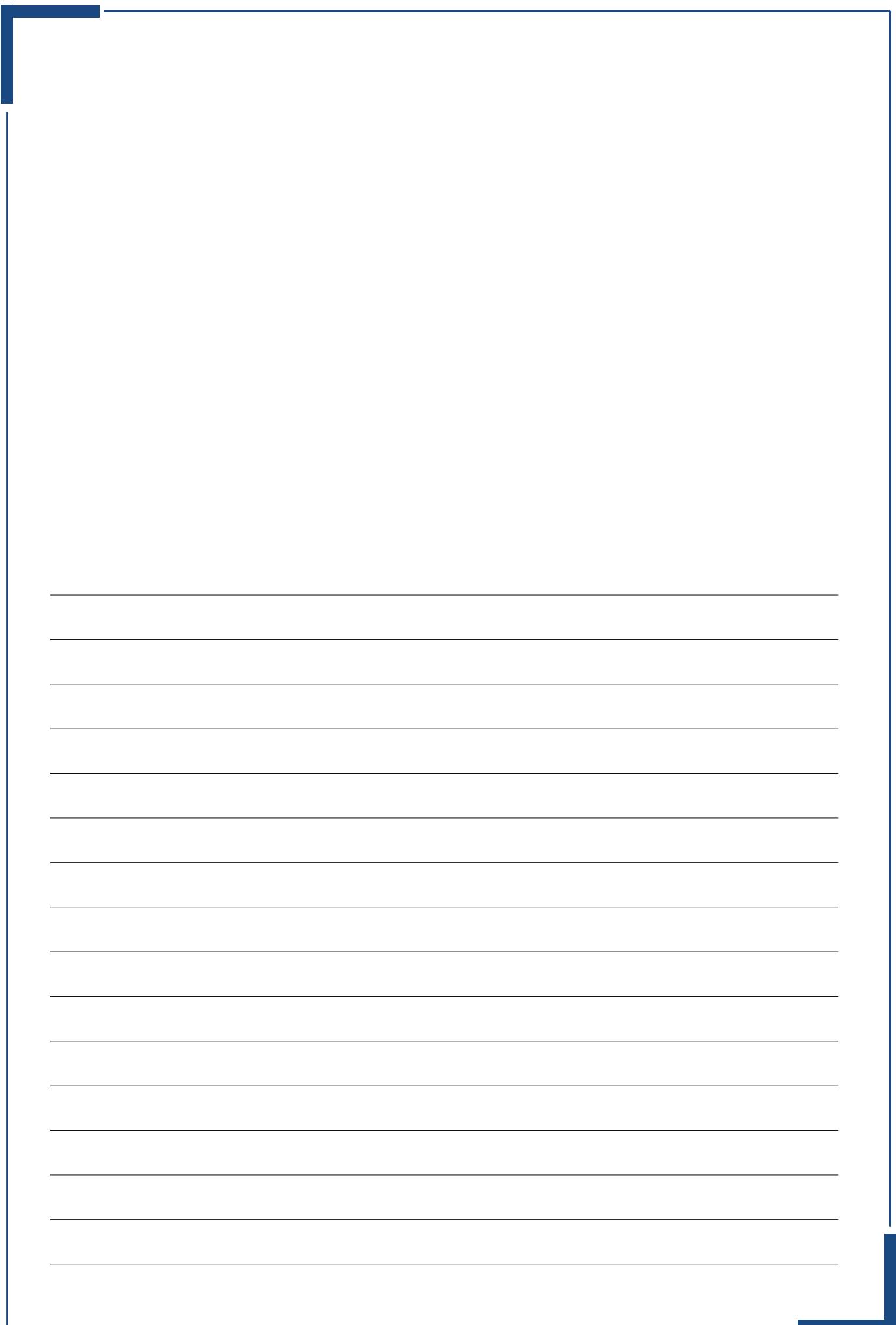
김연성 (한국경영학회장·인하대학교 교수) ·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한남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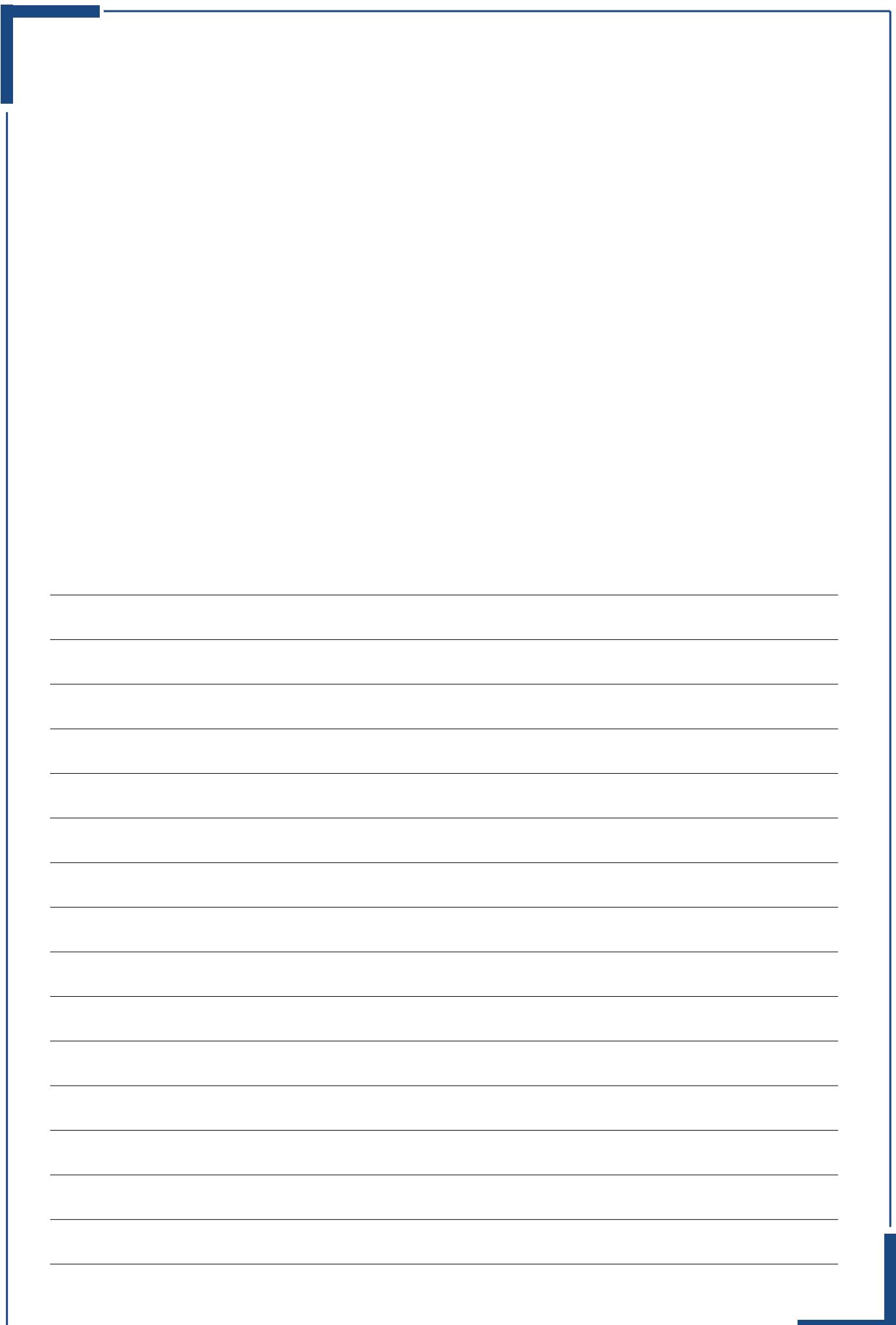
장덕진 (한국사회학회장·서울대학교 교수) · 조화순 (한국정치학회장·연세대학교 교수)

이영범 (한국행정학회장·건국대학교 교수)













# 행복한 대한민국 금융산업 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5대 사회과학학회 융합 심포지엄

**ESG,  
상생과  
공존의 모색**

